

목차

권두언 Foreword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들리는 생명의 소리”...

A Voice of Life from the Areopagus Hill

권다윗 David Kwon (Dean of Kor. Dept., Th.D.)

특별대담 Interview

“알파크루시스 20 년사”...

Recalling the Last 20 Years of the Kor. Dept. of AC

권다윗 학장 vs. 송기태교수 Rev. Dr. David Kwon interviewed by Rev. Dr. Ki-Tae Song

특별기고 Special Contributions

알파크루시스 칼리지 한국학부 창학 20 주년 기념 포럼 발표 논문

Presented papers at the forum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Opening the Kor. Dept. of AC”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God’s Redemptive Plan and His Kingdom

박형용 Hyung Yong Park (S.T.D.)

논찬: 이승학...

Reviewed by Seung Hak Lee (D.Min.)

이민교회 안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in the Immigrant Churches

오상철 Sang Cheul Oh (D.Miss.)

논찬: 장경순...

Reviewed by Kyung Soon Chang (D.Th.Min. Cand.)

교수논문 Lecturers’ Articles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 소그룹 리더의 리더십...

Leadership of Small Group Leaders in Christian Communities

송기태 Ki-Tae Song (D.C.C.)

아가서의 장르, 주제적 구조, 신학적-간본문적 해석...

The Genre, Thematic Structure, and Theological-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Song of Songs

최영현 Yung Hun Choi (Ph.D. Cand.)

전도서의 구조와 메시지...

The Structure and Message of the Book of Ecclesiastes

임바울 Paul Lim (Ph.D.)

이상적인 설교 패턴을 위한 계통적 분류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ethodologies for Patterns of Ideal Preaching

임세근 Se Keun Lim (D.Th.Min.)

호주 이민 1 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이민 신학...

A Consideration on the Sense of Values of the Korean First-Generation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Immigrant Theology

장경순 Kyung Soon Chang (D.Th.Min. Cand.)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난 교회와 정치에 관한 고찰...

A Consideration on the Church and Politic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박영식 Young Sik Park (D.Th.Min.)

권두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들리는 생명의 소리

권다윗 학장

AC 한국학부에서 계속 논문집을 펴낸다는 일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귀하다. 끊임없이 이어가는 지성들의 학문 탐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를 묶어 단권으로 내어 놓는다는 것은 지성들의 꽃이라고 본다. AC 3대 배너는 지성 영성 인성이다. 이런 흐름은 이 시대의 특별한 요청이라고 보인다. 교회마다 혼란스럽고 분별되지 않은 비진리요 비본질적인 세상 학문들이 진리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나타나 진리로 가장한 세력으로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위선과 거짓은 이미 6 세기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도 있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신전을 향해 "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임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새긴 형상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변증한다. 당시 최고의 철학과 지성을 자랑하는 문화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다.

플러의 클린톤(Clinton)은 "세속적 영성에 침몰된 복음"을 개탄했고, 트리니티의 라센(Larsen)은 "탐욕의 복음(the Gospel of Greed)"에서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라 했다. 멜번 호주 교회 목사는 교회를 렌트하기 위해 찾아온 한인 목사에게 당신은 어떤 신(god)을 믿는가 하고 물었다고 했다. 호주인, 한인, 주술사 등이 어울려 교회당을 사용하고 있었고 뒤뜰에는 성황당 모형들이 가득했다. 알지 못하는 석상들이 있었다. 주술 예배자들은 촛불을 밝히고 검은 망토와 가운을 입고 교회당을 돌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른다고 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절규했던 바울이 떠올랐다.

본 논문집은 세상이 내안에 들어와 자리잡는 일이 쉽고 편해진 환경에서 교회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사신들이 내는 소리이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의 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현장을 학문적인 논술로 지평을 연 자료집이다

논문집을 위해 귀한 원고를 제공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전체적인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송기태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본 논술들이 세상의 영들을 제어하고 어그러진 구조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하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외치는 생명의 소리가 되라는 바람이 있다.

20/3/2016

“20년 역사는 은혜의 기록이며 책임입니다”

대담 : 권다윗 학장 vs 송기태 교수

일시 : 2015년 2월 19일(목) 오후 2시, 11월 3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교 접견실

군자삼락(君子三樂) 가운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즐거움은 으뜸이다. 지식과 경륜을 쌓기에는 교육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말 못하는 생명인 화목(花木)도 애정을 쏟은 만큼 변화하고 성장한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불러 모아 열과 성을 다해 인재로 키우는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척박한 이민의 현장에 곧고 푸른 나무를 심듯이 황무지를 개간하듯 묵묵히 KC(Korean Campus)를 일구고 성장시켜온 권다윗 학장으로부터 지난 20년 역사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비전을 들어보았다.

- 우리 대학 **Korean Campus** (이하 **KC**)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학장님과 함께하고 보니 ‘벌써’라는 말이 오늘처럼 잘 어울리는 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스터힐(Chester Hill) 캠퍼스 채플에서 처음 신입생들이 호주학생들과 어우러져 영원히 함께 따를 리더를 찾아 함께 흔들 깃발, 함께 부를 노래로 유쾌하게 열창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먼저 어떻게 영어권에서 한국신학부를 구상하게 되셨는지요? 당시 미국의 풀러신학교 등에만 한국신학부가 있을 뿐, 호주 신학교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래 전,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을 바로 세우고, 리더로 육성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호주에서 한인 YMC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호주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위상과 어떠한 자기정체성으로 살 것인가에 관심 갖고 시작했습니다. 호주 Y와 협력하여 시작했지요. 여성 합창단도 만들어 여기저기 유치원, 양로원 등지로 초청받아 노래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Y는 주로 젊은이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나 학교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신학화 시켜서 리더를 양육하고 세우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온

한인 이민자들이 ‘사람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공부해서 호주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주의 한인 커뮤니티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민사회에서는 젊은이들 뿐 아니라 여러 층이 있지요. 호주에 이민 온 한국인들은 자녀들 키우고 정착하는데 세월을 다 보냅니다. 아이들이 장성하면 부모는 50-60 대가 됩니다. 부모들의 문제는 현지어도 잘 안되고, 나이도 들어 누구하나 온전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를 감안해 한국 어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아무 것도 없어 학교에서 한국어로 공부하도록 하는 일이 도움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호주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신학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과목보다 신학을 선호한 것은 종교생활을 통한 교제, 교류와 삶의 공유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이민 온 모든 분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돈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아스포라의 삶이 설교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모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지요.

또 하나는 선교마인드로 선교사 훈련도 시키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많은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여러 나라의 신학교 형편을 조사했으나 신통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교단 색채가 강한 교단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가 교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했으나 저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어 신학교가 미국과 여러 나라 사례에서 보여주듯 목적의식이 흐린 상태에서는 매우 허약한 체질이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구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구상 속에서 골드코스트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던 1994 년, 당시 AC의 전신인 서던 크로스 칼리지(SCC) 데이빗 카트리지(David Cartledge) 총장과 교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SCC 94 학년도 졸업식에 초청받아 제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계속해서 사역환경에서 그리스도 지체의 신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빛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불신앙의 세계를 정복’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후 KC 개설을 많은 페이지로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고 결국 이사회 통과 후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교수한 다음 한국어로 통역하는 형식이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호주까지 와서 한국어로 공부하려 하느냐?’하는 문제가 이해되지 않았는지 거듭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제가 시도했던 일이 호주 정부로는 처음 일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정부와 씨름하다가 우리의 생각을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한권씩 나누었고 마침내 96 년도에 준학사 과정을 허락받았습니다.

어쨌든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호주인들과 더불어 호주 문화를 공유하면서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것과 탁월한 리더를 키우겠다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그 내용을 학교와 정부에 제출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한다면, 94 년도에 한국 캠퍼스를 제시했고, 95 년 여러 과정을 거쳐, 96 년도에 인가받아, 96 년 연말부터 학생모집을 하여 97 년 2 월에 KC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첫 입학식을 하였을 때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7 년 2 월에 처음 체스터 힐(Chester Hill) 캠퍼스에서 학생모집을 했더니, 약 80 여명이 입학했습니다. 사람들은 첫 입학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마련입니다. 저도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서 첫 입학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어 강의를 한다는 소문은 한인 사회에 잔잔한 감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로 교실을 채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입학생 80 여명이 모두가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소위 ‘내노라’ 하는 ‘크고 잘난’ 분들이 입학해서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힘든 일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그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들로 꽉 찬 교실에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과 교류하다보니 몇몇은 내용 없는 잘남이요, 스펙 없는 유명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이분들은 호주 우리 교민 사회에서 중심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관리해 주시도록 주문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약 3 개월이 지나면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잠잠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 시드니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학교와 저를 폄하하는 엄청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더욱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며 의존해야

하는 광야체험일 뿐만 아니라, 저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학교를 반석 위에 정착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를 열었으나 자격 있는 교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처음 학교 강의는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두란노교회를 담임하던 송기태 목사님이 감사하게 맨 처음 교수요원으로 동역해 주었습니다. 본인 앞에 이런 말하기 뭣하지만, 송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신학교 교수사역을 하고, 저널리즘 현장에서 일하면서 책을 쓰고 만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이어서 필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공홀히 보시고 이후에 진기현 목사님 등 훈련된 교수들을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권한나 목사님은 싱가포르와 여러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학교 영어 과정부터 한국어 과정 공부를 마친 뒤 AOG 교단에서 한국 여성으로서 처음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조력자로 항상 곁에서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의견들이 대립되기도 했으나 토의 뒤에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창기 어려운 일들은 그것도 필요하기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전략'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는 불평하면서 목소리가 컸으나 약 3개월이 지나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한결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기적 중 기적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니 바꾸시고 올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참으로 필설로 헤아릴 수 없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품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 견고해져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핵심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2월 26일은 '호주의 날' 아십니까? 이 행사에서 호주 이민장관을 지낸 머독을 만났습니다. 그가 '당신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며, 그분이 머독이라는 것을 다음 날에서야 알았습니다. 평소 생각대로 사용한 단어가 진실함(integrity)이라고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거창한 교육철학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학교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믿음의 주역되신 하나님이 편히 일하실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 교육철학이면서 학교 경영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됩니다. 그동안 언제나 학교가 가야할 방향을 품고 있던 것, 핵심가치는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학교는 다양한 지도자를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신학을 전공한 기업인 회사원, 직장인,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 ‘목사’라는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선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초가 잘 되어야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잘되면 기업인도 좋고, 목회자도 좋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지만,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재앙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직위나 명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신학교는 다양성 전문성을 가진 통전적 인물을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신학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물론 학문의 세계는 여러 다양한 논리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을 이루는 중심은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이어야 합니다. 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인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삶, 직장, 미래... 이런 여러 토대 위에 신학을 기초하고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이민사회에서 현지인과 한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초월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규례에서 그 의미가 말하듯 우리는 흩어져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정의 할 때, 한인들이 호주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초월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쌍방적 존재로 호주 사회에 정착하려면 절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젊은 2 세들은 어느 정도 호주 문화에 인접해 있으나, 이민 1 세들은 문화의 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문화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온전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삶에서 흘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자유하고, 자족하고, 절대 긍정이라는 나름대로 규례를 설정하고 이웃을 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서로 떡을 때며 나누는 공동체의 삶이 이민자의 삶이며 디아스포라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겐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을 하다고 왔는가?’하고 물으실 때,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다 왔습니다’ ‘부부가 하루에 세 가지 직업을 뛰면서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내놓으면 얼마나 궁색합니까? ‘예,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인생 끝자락에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부족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다 왔습니다’하는 것이 바른 대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영어권에서의 한국어 신학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문화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를 신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는 서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은 4 부분, 그러니까 나와 자신, 이웃, 자연, 하나님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웃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조화대상이 되기 때문에 호주와 한인 사이, 다시 말하면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조화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이민사회에서 각자가 역동적인 삶의 리듬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한국어 신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민 사회는 한마디로 긴장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긴장관계를 해소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리듬을 형성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핵심 열쇠가 신학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학은 학문적으로 깊이를 알수 없으나,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통한 은혜의 선물을 제공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방을 위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지요(골 1:1-6). 역동적인 삶의 리듬이란 주체가 복음이어야 하고,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역이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공급하시는 사랑입니다(롬 5:5).

이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데에도 신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3 가지 타입의 사람 중에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민사회에서 호주나 한국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모델같은 사람이 되어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로 남아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 디아스포라의 정착, 역동적이고 탁월한 리더 양육, 섬기는 신학, 세계선교 등등 이상적인 건학이념이라고 할 수 있군요. 그런데 좋은 뜻과 이상만으로는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지요, 칩칩산중이란 말처럼 엄청난 대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필수코스처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의 도전들과 그에 대한 응전은 어떠했습니까?

무엇보다 이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것이 초창기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참고할만한 사례도 없었고 말입니다. 마치 정글에 길을 내고 지나가야 하는 개척자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호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통해 결국은 학교를 세우는 목적을 거듭거듭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격려는커녕 이유 없는 비난과 뒷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를 광야에 두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대한 경험도 없고, 교수를 해본적도 없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학교운영과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비전(Vision), 핵심가치(Core Value), 사명선언(Mission Statement) 등이 없는 험렁한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밀려가면서 비전이 생기고 점점 정신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날 속에서 결국은 학교를 세운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를 광야에 두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학교라면 대부분 일정한 계층의 비슷한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KC에는 이민사회 구성이 일정한 학력, 나이가 아니라 모두가 다른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연령이나 계층, 달란트에 무관하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다양성만큼이나 사람마다 개성은 또 얼마나 강했던지요(웃음). 이들을 훈련시켜 리더를 세우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리더를 양육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민사회에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신학교육 경험하기에 엄청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성령께서 소통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따라 갔더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때 이상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듭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라. 영적전쟁을!’ 전쟁의 규례도 주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군인들의 캠프 스타일로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학생들을 캠프 조직으로 15 명씩 조를 짜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 ‘각 캠프를 돌아가면서 아침 금식을 시켜라’하셔요. ‘다음은요?’ ‘배너를 만들어 달아라’ ‘다음은요?’ ‘선포해라’..... 계속 이런 질문과 응답으로 영적전쟁을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지요. 이 영적전쟁은 20년 넘게 계속 해오지만 지금도 자세히 모르는 신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일깨우심대로 처음엔 군대조직으로 했습니다. 캠프조직으로 하여 금식을 시켰습니다. 1조 금식, 2조 금식... 이런 식으로 오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바꾸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 하시더군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이런 모임을 통해 각 사람에게서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통전적인 발전이 있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간증이 자기가 공부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고, 남편이(혹은 아내가) 아내를(남편을) 인정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간증이 공부했더니 나도, 가정도 자녀들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좋아지더라는 공통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뻐다는 생생한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마약하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가 결별했던 학생은 영적전쟁을 통해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고, 비즈니스도 잘되었다는 은혜의 고백들이 영적전쟁 때마다 기록이 넘쳐났습니다. 한 마디로 한 사람만이 아닌 전 가족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통합적으로 통전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은 영적전쟁 중에 호주 학생이 눈이 붓고, 얼굴에 붕대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킹스크로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술 취한 불량배에게 집단 구타당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를 얼싸안고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킹스크로스에 거리에서 '예수는 구주'라며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의 정착과정은 예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후 제자를 부르고 사람 낚는 어부를 세우신 현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마 4:10-19).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돌처럼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처럼 바뀌지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KC가 그때부터 변화되고 발전했습니다.

학교의 방향을 제가 마음대로 잡고 시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하며 가나안에 진입하듯,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로드맵을 따라 왔더니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세월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험난했던 세월 속에 꽃피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천둥처럼 내리치는 도전에 영적전쟁으로 응전한 것이 우리

학교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학풍으로 앞으로 계속 전승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때쯤부터 학장님께서 책도 저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학교의 방향이나 강의방향이 잘 잡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20 일 동안에 집중하여 쓴 책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 그것으로 강의했습니다. 이때 서울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고 책으로 만들어 한국에서 목회자 훈련 교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98 년~2004 년까지 한국에서 그 책으로 많은 목회자를 훈련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책이 10 단계 성령공부로 편집되어 중국말로 번역되었고, 중국 신학교와 많은 지도자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드코스트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이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설교 중 그들에게 그곳에서 성경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나가라고 했더니, 교인 절반이 나갔고, 성가대가 몇 명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했으나 결국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까? 가르쳐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그만큼 했고, 성경 많이 통독하다고 해서 저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 깨진단 말입니까? 말씀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뢰었더니 이때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마 16:24)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받아쓴 글들이 <비워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강의 했던 부분들이 치유목회, 목회신학, 디아스포라 등인데, 그 중 <목회신학 개론> <디아스포라 개론>을 집필 중이며 다음 차례는 허락되는 대로 쓰고 싶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자금 하시는 말씀들이 먼 훗날, 사가들이 KC 50 년사, 100 년사를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1 차 사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도 처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20 여 년 동안 우리 학교가 성장해오는 동안 SCD 탈퇴과정에서의 혼돈,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은 성장 등을 생각하면 주변의 폭풍도 세차지 않았습니까?

학교 프로그램도 하나님께서 자꾸 바꾸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꾸시며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핵심은 어떤 일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 입학하는 학생과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지혜가 있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구체적인 말씀이며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받음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알면 된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정부로부터 준학사 과정을 받은 다음 계속교육을 위해 학사 과정이 필요하기에 SCD 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3 개 신학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공유했고, 졸업식도 시드니대에서 다른 날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많은 학교가 학사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부담이 녹녹치 않아서였습니다. 남은 몇 학교 중 우리 KC가 학생이 제일 많아 사용료를 제일 많이 지불했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도 SCD 학사 프로그램을 반환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SCD 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에이전트로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체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엠마오 칼리지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엠마오를 통해 한국어 학사과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에게 많은 요청이 있었으나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뜻밖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신청한 학사과정이 착오로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과정과 과목이 없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SCD 엠마오 칼리지로 가든지, 우리 학교 영어학부에서 가르치는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어로 강의를 듣든지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영어가 힘들어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 학교에 남아 기다려준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면 안 되고, 계획 없이 바램 안에 있으면 되더라’는 교훈입니다. 성서의 규례(잠 3:5-6, 히 11:1)와 일치하는 원리입니다. 바램(‘바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구체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 우리 학교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계에서 가장 크고 건실한 신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라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0 주년을 결산해 보면 아직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학장이 큰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했다고 하나 지나고 보면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찾기가 힘듭니다. 모든 일들의 성취, 온전함, 사람을 바꿈, 변화시킴, 회복시킴...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뒤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학교의 성장과 발전 비결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KC 는 처음부터 일반 신학교와 차별화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단의 매임’을 풀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마다 자기 교단에서 공부한 교수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교단의 교리상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저는 이런 ‘교단 교리의 신학화’는 많은 부분에서 비성서적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대립이 복음이 아니라, 크기와 신학의 정통성,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은 점점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세상 철학을 힘입은 교리와 논리들이 침투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거기에 맞싸울 신학도 교리도 찾기 힘든 현실을 본 것입니다. 자기 교단을 자랑하는 일은 멈춰야 하고, 거기에 힘입어 교만해진 교단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말을 준비하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다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수들입니다. KC 는 처음부터 학교 총회 교단을 넘어 초교파적인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AOG 교단 총회 신학교인 것은 맞으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기존 교단을 수용할 수 있어야 좋은 신학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교리를 선별해서 성서적인 해석을 가미해 학생들에게 교단의 교리의 이해를 돕는 일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은 교단 배경이 다 다르고 공부한 배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요구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분들입니다. 교수들은 각자가 연구한 분야를 발표하고 문서화해서 교수 논문집을 만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여러 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학분야에서 VET, BTh, MA, MTh, DMin 과정을, 상담, 교회음악 등을 순서대로 개설 할 수 있었던 것은, 교민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다양한 학문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까지 1800 명의 학생을 졸업 시킨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호주 문교성 관리는 호주에 147 개국 이민자들 가운데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나라국민 들에게 석사 이상을 공부하는 국민은 한국인이 유일하고, 그 유일한 교육기관이 바로 우리 학교라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 연초에 만난 NSW

주지사 역시 ‘이런 일은 호주 안에 한인 커뮤니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되고, 호주 사회에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것도 정부에서 우리 학교를 평가하는 한 단면이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교단의 교수들로 구성된 것도 호주의 다문화 정책과 맞아서 정부에서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 교육부에 우리 학교가 샘플이 되어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마타 지역 국회의원 제프(Jeff) 씨는 학교 채플에 참석하여 열심히 예배하는 학생들을 보고 학교에 교육방법을 질문했습니다. 다양한 교회와 교과를 초월한 교수들이 강의 한다는 말에 심히 놀라움을 표시하더니, 교수들이 한 달에 연구 발표를 하고 책자도 만든다고 했더니 이 내용을 교육청 관리가 알고 KC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넷째로, 교수님들의 헌신과 학교사랑입니다. KC 교수님들은 모두가 참으로 훌륭한 학문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KC가 발전했고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수님들의 노고와 헌신과 학교 사랑, 학생 사랑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고민과 신학이 없었다면 오늘의 KC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한 교수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필설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학교 안의 연구소에 대해서도 들려주십시오.

KC 안에 한호신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목회신학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소, 학제융합신학연구소등이 있고, 각 연구소마다 책임교수와 연구 교수들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 3 개 부서는 그동안 활발한 발표를 하며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국제적 리더십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수들이 35 명, 거의 자격이 된 분들이 전문적인 연구하신 분들이기에 한달에 한번씩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역량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단을 넘어서 교수들이 각 다른 교단의 다양하게 영입하여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짧지 않은 세월동안 수많은 동문들도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졸업 이후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길도 알려주십시오, 바로 오늘의 학생들에게 내일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1,800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이 많지요, 특별히 16 개국에 80 여명의 선교사 나간 것은 처음 건학이념 가운데 하나인 선교사 파송을

어느 정도 감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C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학교 분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프로그램을 마음껏 짜서 우리 스타일로 운영하는 신학교가 없지요. 호주와의 관계 동역을 잘하는 데도 없구요. 많은 신학교들이 굳어있고, 개인주의적인데 우리는 그런 벽들이 전혀 없습니다. 호주나 한국 학생들이 다 열려있고, 따뜻하고 편안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이나 오래 다닌 재학생 사이에도 장벽이나 막이 없는 것이 큰 은혜이고 장점입니다.

학생들이 목사로 안수 받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C가 속한 AOG 교단에서 안수 받는 길이 있습니다. AOG 교단은 호주 교단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열려있지 않고, 영주권자 이상의 호주인들에게만 목사안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유학생이나 선교적 차원에서 중국 중동... 등 호주 비자가 아닌 비자를 지닌 파송된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KC 출신들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산하 '국제다문화선교총회'(총회장 권다윗)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교총회는 현재 C국과 기타 여러 나라에 목사자격이 있는 선교사와 전도사들을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시드니에서도 작년에 4 차 안수식을 10 월에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에서도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안수 받고 다들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KC 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터인데요.

누구보다 먼저 떠오르는 분이 데이빗 카트리지 전 총장입니다. 저와 매우 가깝고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KC 의 초석을 놓아준 분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소천하셔서 참 상실감이 큼니다. 그분이 KC 에 애정을 갖고 동역하면서 학교의 중심을 힐링센터(Healing Centre)로 정하고 당시 유명한 치유사역자들을 많이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힐링센터인 학교에서는 수많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피스 전 교장, 부총장 존, 이런 분들이 고맙고, 마이클 머피(총장), 존 울리아노, 스티브 포가티 박사, 데이빗 파커, 사이먼, 케빈 ... 이런 분들이 KC 에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 그럼 앞으로 KC 의 비전과 개선을 예정하고 있는 학과와 과정도 알려주십시오.

우선 2015년 2 학기에 상담학이 열렸고, 2016년에 1 학기에는목회학박사(D. Min.) 과정이 열렸으며, 2 학기에는 리더십 석사(Master of Leadership), 온라인 원격강좌(Distance course) 등이 개설됩니다. 현재 AC는 종합대학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의 요구 중에 예산, 학생수 등의 규정이 요구되는데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학부에는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여러 학과가 오픈되고 있습니다.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현장을 볼 때, 미래도 계속해서 함께하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KC 가족들에게 부탁하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켜 학풍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선구자적인 학교로서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에 거울로서 본이 되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님들은 사회에 비쳐지는 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성, 인성, 영성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아름다운 시드니 디아스포라 가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Alphacrucis College 창학 20주년 기념 학술포럼 발표 논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박형용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신약학

목차

1. 서언

2.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 실현의 세 단계
 - 2.1 예수님의 초림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
 - 2.2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 2.3 예수님의 부활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책임

3. 교회의 설립과 선교
 - 3.1 오순절을 향한 예수님의 의식
 - 3.2 오순절에 설립된 신약교회
 - 3.3 신약교회의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1. 서언

우리는 말세와 선교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세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말세를 말할 때 먼저 세상의 끝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떠올리게 된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말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성경은 더 넓은 기간의 말세를 가르친다. 성경은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다. 히브리서 1:2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2, 개역개정; 참조 히 9:6)라고 증거하고, 베드로전서 1:20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벧전 1:20, 개역개정)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세상 끝”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설명하면서 요엘서 2:28-32을 사도행전 2:17-21에서 해석 인용한다. 베드로는 요엘서 2:28절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의 내용을 사도행전 2:17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로 해석 인용한다. 요엘서의 “그 후에”가 오순절 이후에는 “말세에”로 변환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중심한 구속역사의 성취관점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구속 사건들은 말세에 발생한 사건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 예언의 종말론적인 성취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마 4:17, 개역개정)고 선포하신다. 바울 사도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개역개정)고 설명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이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 그의 구속 사건들이 말세에 발생한 사건들이요, 바로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와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천국의 현재면과 미래면이라는 전망으로 진행되어 왔다. 천국의 현재면과 미래면은 추상적인 성격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천국에

관한 연구를 천국의 현재면과 미래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한 교훈을 좀 더 성경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연구하는 것이 유익하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부활 때까지의 기간,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기간의 세 단계로 설명한다.¹ 그리고 복음증거 혹은 선교와 연관된 하나님 나라의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세와 선교”라는 관계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이해되며 선교가 구속역사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다.

2.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 실현의 세 단계

말세와 천국의 실현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 연구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뿌리는 두는 더 성경적이며 더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다.

2.1 예수님의 초림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

천국 실현에 있어서 제 1단계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해당한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에 천국이 이미 실현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약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 천국 실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 천국 실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즉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되었음을 가르치고,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현될 천국에 대해 가르치며, 또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실현될 천국에 대해 가르친다. 이 사실은 2단계와 3단계의 천국 실현은 1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¹ 예수님의 생애와 천국 실현의 관계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초림-부활	예수님의 부활-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후
예수님의 초림	실현된 천국 (현재면) 실현과정에 있는 천국 (현재면과 미래면)	예수님 의 부활 실현과정에 있는 천국 (현재면과 미래면)	예수님 의 재림 완성된 천국
	예수님의 사역	교회(성도들)을 통한 사역	

미래실현을 증거하고,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미래 실현을 증거 한다. 예수님의 교훈은 세 가지의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통일된 천국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 1단계 기간 동안에 실현된 천국에 대해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먼저 요약하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은 왕국의 강림을 위한 준비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리스도로서 천국을 실현시켰다고 명백히 증거 한다(눅 4:16-21). 요한에게는 천국이 미래로 남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였다. 따라서 요한의 사역은 준비적인 것이었고, 그의 사역의 의의는 그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네가 누구냐”(요 1:19)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1:20, 개역개정)고 대답한다. 그들이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계속 추궁할 때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요 1:23; 개역개정; 사 40:3 참조)고 말했다. 누가복음 3:15-17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종말론적 왕국을 설립할 메시아가 아니요 오로지 물로 세례 주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한다. 첫째, 요한은 자신이 종말론적인 위치에 처해 있음을 명백히 한다. 둘째, 요한은 자신이 종말론적 성취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 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할 메시아가 아니다. 요한의 이런 입장은 마태복음 3:2의 선포에서 요약된다. 왕국의 시작이 임박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개역개정)의 말씀은 천국의 임박함을 증거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마 4:12)을 들으신 후 천국의 전과를 시작한 것으로(마 4:17) 기술한다. 마가 역시 요한이 잡힌 후(막 1:14) 예수님께서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개역개정)고 선포하신 것으로 기술한다. 이는 요한의 사역의 시기와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를 명백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즉 요한은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다.³ 요한의 사역은 쇠퇴하여 자취를 감추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개역개정).

그러면 이와 같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천국의 강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의 준비의 대상, 그리스도(ho kristos; ὁ Χριστός)라는 것을

² Oscar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25. “It is always others who ascribe the role of the Prophet to him. But it may be said at least that the Baptist did not think of himself as the Prophet of the end time in the sense of one preparing the way for God.”

³ G.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36.

명백히 한다(요 1:25-27).⁴ 즉 그리스도가 천국 강림을 실현시킬 분이다. 마가복음 1:15의 말씀은 선구자 세례 요한은 선포할 수 없지만 천국의 강림을 실현시킬 메시아는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구절은 천국의 현재 실현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천국 실현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됨으로 사단의 통치의 영역이 축소되고 분쇄되어짐을 말한다(마 12:28; 눅 11:20).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나 승리한 사건 역시 천국의 실현을 증거하고 있다(눅 4:1-13).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신 것은 천국의 실현을 증명해 주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 마태복음 12:28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⁵(개역개정)고 기록한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20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대신 ‘하나님의 손가락’(en daktulo theou; ἐν δακτύλῳ θεοῦ)을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12:28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대신 ‘하나님의 성령’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성령을 뜻함은 명백하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가리키기 위해서이다.⁶

보스(Vos)는 이 구절의 중요한 논증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만약 사단의 왕국의 파괴가 있었다면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현재의 실재로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⁷

마태복음 12:28절의 배경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마 12:22).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마 12:24)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실에 대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랬듯이 경멸과 분노로 이 사건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마 12:24, 개역개정)고 말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25 이하에서 예수님은 일련의 비유로 대답하신다.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과 나라(basileia; βασιλεία), 동네, 집과의 관계를 비교한다. 한 단체가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단 역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신의 왕국(basileia; βασιλεί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문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2:28에 이르기도 전에 사단의 활동이 왕국의 개념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마태복음 12:26에서 명백해진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⁴ G. Vo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New York: G.H. Doran Co., 1926), 115.

⁵ εἰ δὲ ἐν πνεύματι θεοῦ ἐγὼ ἐκβάλλω τὰ δαιμόνια, ἄρα ἔφθασεν ἐφ’ ὑμᾶς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⁶ J.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79; J.D.G. Dunn (*Jesus and the Spirit*. London: SCM Press, 1975, 45-6)은 마태의 “Spirit”이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누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성령의 주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⁷ G. Vos,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Nutl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2), 32.

서겠느냐.”(개역개정) 예수님은 마태복음 12: 28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왕국과 사단의 활동을 연관시키므로 귀신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연관된 것을 시사한다.⁸

마태복음 12:28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명이며 하나님 나라가 현재 실현된 것임을 강조한다. 둘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낸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제어(制禦)한 것이다.

성령은 왕국의 능력이다. 바울 서신에서도 성령은 왕국의 능력임을 말한다(고전 5:4; 고후 3:6; 롬 14:17 참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 왕국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왕국의 능력임을 확실히 한다. 예수님께서 왕국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마 3:16).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눅 4:1). 이는 성령이 천국을 조종하시고 주도하심을 증거 해 준다.⁹

이런 사상적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말씀하심은 천국이 실현되었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복음전파로 천국이 실현되어진다.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분이다(사 40:9).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 11:3, 개역개정)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적이 행해졌다고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가 이미 임했고 왕국이 이미 임했느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다. 왕국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로 실현되었다. 복음 선포는 천국의 실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적과 똑같은 증거 역할을 한다.¹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눅 16:16, 개역개정).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구세대가 새로운 세대와 대칭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질서의 특징은 복음의 선포이다. 복음의 선포는 종말론적인 개념이며 구약 대망의 실현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

⁸ G.E. Lad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68), 88. “There is no linguistic reason for not giving ἔφθασεν its proper force of ‘has arrived’ in Matthew 12:28 if we take it to mean that ‘the kingdom of God has just reached you’ without bringing a full experience of all that the kingdom involves.”

⁹ R. J. Sneed는 눅 17:21 을 해석하면서 롬 14:17 을 유추(類推)로 사용하여 성령과 왕국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비록 성령이 왕국의 능력으로 왕국의 사역을 주도함에는 틀림없지만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사람이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왕국이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령과 왕국이 동등하게 생각될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상충(相衝)이 된다. 참조, R. J. Snee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Lk.17:21),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4(1962), 363-82.

¹⁰ H.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 Co., 1969), 71.

13:16-17, 개역개정)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제자들이 들은 것은 선지자와 의인이 소원하고 대망했던 복음을 듣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9-10의 인용이요 성취이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이사야 40:9의 실현이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사 40:9) 가져오는 분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10과 연관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바로 그 성취인 것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사 40:10, 개역개정).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사 41:27; 개역개정; 눅 2:10-12 참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실 예언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자¹¹였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사 52:7, 개역개정)고 선포하신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다. 그가 가져올 것은 평화(shalom; שָׁלוֹם)의 선포, 구원의 선포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다.

구약적인 이런 배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름부음 받은 선지자”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 올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포는 왕국의 도래를 뜻한다. 누가복음 4:16 이하는 예수님이 이사야 61:1의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선포는 단순히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포가 아니요 구원과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euangelion)을 선포하셨다고 말할 때 구원과 왕국 도래가 현재 실현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구원과 평화의 왕국의 도래가 현재 실현되었음을 명백히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 예언이 구체적인 역사적 형편으로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성격이 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는 능력과 권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예수님의 선포는 말만의 선포가 아니다. 종말론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이사야 55:11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1)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구속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선포하신 말씀이나 다른 경우의 말씀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경우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 선포로 인해 나타난 효과를 떼어놓을 수 없다.

넷째,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적을 행하고,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천국은 기독교적이요 메시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과 천국의 실현을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는

¹¹ שָׁלוֹם, Piel 분사, 남성, 단수 실명사로 사용됨.

¹² 예수님의 선포에는 권세(ἐξουσία)가 뒤따랐다. 따라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곤 했다(막 1:22; 마 7:28,29; 눅 4:32). cf.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75.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적 임재 자체가 천국 실현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천국의 실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이다. 천국의 실현은 예수님이 사단을 대항하여 승리한 데 있다. 천국의 실현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나타난 권세를 통해 증명된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은 기독교론적이며 메시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천국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둘 사이는 분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천국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함축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천국의 실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델보스(Ridderbos)는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천국의 현재 실현을 설명한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복되다고 말한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축복은 더 이상 미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미래가 현재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시요 그들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 곁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에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 앞서 가며 그들은 오로지 왕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¹³

그리스도의 인격적 임재로 천국이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구절 중 중요한 성경구절이 누가복음 17:20, 21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개역개정)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이 천국의 미래 실현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델보스(Ridderbos)는 본 구절을 문맥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에 대해 때를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이미 성취된 상태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으며, 둘째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한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oude erousin; ouðè êrousin)”라고 미래의 시상을 사용하여 천국의 임함을 설명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리델보스(Ridderbos)는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구절이 명백히 왕국의 종말론적인 강림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즉 왕국이 임하게 될 때 그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게 된다. 앞으로 임할 종말론적인 왕국은 관찰을 철저히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질 것이 아니요 누구나 그 임함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눅 17:24, 개역개정)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도 누구에게나 보여 질 것을 가르친다¹⁴고 주장한다.

¹³ H. N. Ridderbos, *Matthew's Witness to Jesus Christ* (Seoul: Korea Scripture Union, 1979), 31: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e future has begun to be the present. For he is the King, and they are no longer alone. His power is over them and at their side.”

¹⁴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473-5.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재 해 있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으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볼 들어야만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본 구절이 미래적인 요소를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구절이 천국의 현재 실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천국의 현재실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 간에 본문의 “너희 안에”(entos humon; ἐντὸς ὑμῶν)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견이 양분된다.

보스(Vos)는 전치사 “엔토스”(entos; ἐντὸς)는 “너희 가운데”(in the midst of)나 “너희 안에”(within)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본 구절에서는 “너희 안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¹⁵ 그 이유는 “엔토스 휘몬”(entos humon; ἐντὸς ὑμῶν)이 천국의 현재 실현을 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적인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엔토스 휘몬”을 “너희 안에”(within)로 해석하는 입장에 대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의 이유는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첫째 이의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다고 대답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를 반드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없고 “사람들 안에”(within people)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둘째 이의는,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고 천국 강림의 때를 물었기 때문에 “엔토스 휘몬”을 “너희 안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어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대답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때로 이런 방법으로 질문에 답하신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도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 4:15, 개역개정)라고 요청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요 4:16)고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셨다.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개역개정)라고 천국 강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7-8, 개역개정)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그들의 할 일을 명하셨다. 호케마(Hoekema)도 누가복음 17:20-21이 천국의 현재실현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호케마(Hoekema)가 엔토스 휘몬이 “너희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cf. I.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655f.

¹⁵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68), 408. Vos 는 이전에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ἐντὸς ὑμῶν 을 “너희 가운데”(in the midst of)로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로 더 낫다고 말한 바 있다. 첫째 이유는 왕국의 임함에 대한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요, 둘째 이유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Vos,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34). Vos 의 이런 엇갈린 견해를 놓고 어느 견해가 진정으로 Vos 를 대표하는 견해인지를 판단할 때 Vos 가 자신의 처음 견해를 후기에 수정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Vos 는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를 1903년에 출판했고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는 1948년에 출판했다. cf. James T. Dennison, Jr., “A Bibliography of the Writings of Geerhardus Vos (1862-1949),”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XXVIII, No. 3(Spring, 1976), 350-67; cf. Ransom Lewis Webster, “Geerhardus Vos (1862-1949): A Biographical Sketch,”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L, No. 2(Spring, 1978), 304-17). 그러므로 본 구절의 ἐντὸς ὑμῶν 의 뜻을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기보다 “너희 안에”로 해석하는 것이 Vos 의 견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운데”나 “너희 안에”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지만 본문 해석의 방향으로 보아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는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호케마(Hoekema)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외적이며 극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제할 하나님 나라의 설립 시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개역개정)고 대답하셨다는 것이다. 호케마(Hoekema)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정치적 왕국이 굉장한 외적 표적과 함께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대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으로 그들 가운데 이미 실재함을 인식해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¹⁶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한다.

벵겔(Bengel)도 “여기 사용된 ‘안에’는 개개인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마음 속에 거하지만, 엡 3:17) 전체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메시아이신 왕이 계심으로 여기 왕국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데로 왕국이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너희 안에”(entos humon; ἐντὸς ὑμῶν)를 예수 자신의 인격적인 현존과 연관시켜 해석했다.¹⁷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17:20-21의 “엔토스 휘몬”을 “너희 안에”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명백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천국의 현재 실현을 증거하고 있으며, 천국의 실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외적, 정치적, 세속적 왕국 개념 대신 천국의 영적인 면을 가르치고 계신다. “왕국-왕권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외적이며 보이는 실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과 같은 내적 특성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곳에 존재하는 특성들이다.”¹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자기 자신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키시고 바로 그 증거가 천국의 현재 실현을 뜻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왕으로 인정할 때 실현되는 영적인 실재임을 가르치신다.

2.2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선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기간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¹⁶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9), 48.

¹⁷ John A. Bengel,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I (Gnomon of New Testamen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1), 490.

¹⁸ William Hendriksen, *The Gospel of Luke* (NTC, Grand Rapids: Baker, 1978), 805; cf. Norman Perrin, *Rediscovering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7), 74; G. E.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4), 279; Ray Summers, *Commentary on Luke* (Waco: Word Books, 1972), 202.

제 2 단계의 기간이기 때문에 편의상 천국실현의 제 3 단계인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천국에 대해 여기서 먼저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천국실현의 제 2 단계는 다음에 다루는 것이 유익하리라 사료된다.

천국실현의 제 3 단계는 인자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제 3 단계는 제 2 단계보다 더 복잡하지 않다. 세상 끝에 천국의 강림이 있을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면 제 3 단계의 천국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 8:11-12, 개역개정).

본문의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곳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천국은 일반 부활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을 천국을 가리킴이 확실하다. 즉 여기 언급된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천국을 가리킨다. 우리는 천국을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신 왕의 활동 단계와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여기서 인용된 마태복음 8:11-12의 말씀은 제 3 단계 즉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천국을 묘사하는 다른 구절은 마태복음 25:31-34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31-34, 41, 개역개정)

본문에서 천국을 상속받을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한다. 적어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 후에 성도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마 25:31). 그런데 인자가 영광중에 오시는 때가 바로 왕국의 왕이 오시는 때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이다. 왜냐하면 왕국의 주인이신 왕이 인자요, 심판주가 왕이시기 때문이다(마 24:14; 마 24:30-31 참조). 렌스키(Lenski)는 “예수님 재림 후에 설립되는 왕국에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왕들(우리들)의 왕이요 주들(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¹⁹라고 말했다. 본문의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제 3 단계 천국을 가리킴이 명백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단계적인 천국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

¹⁹ R.C.H. Lenski,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4), 990.

천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구절은 천국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어떤 말씀은 천국을 전체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시간의 구별 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그런 진술은 천국을 완성된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미래의 왕국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전체 왕국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마 10:23; 26:64 참조).

2.3 예수님의 부활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선교적 책임

천국 실현의 제 2단계는 메시아의 승귀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은 신약 교회가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선교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천국의 문제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전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교회는 왕국의 전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왕국은 교회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마셜(Marshall)은 말하기를 “교회는 왕국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나타난 왕국 표명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왕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왕국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예수님을 대신해 사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²⁰라고 한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요 왕국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투쟁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다(고전 15:50-57). 예수님의 시험이 왕국의 의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마 4:1-11; 눅 4:1-13 참조), 예수님의 부활 역시 왕국의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의 최고 표명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분리시킬 수 없다. 부활 이전에는 교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마 16:18).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통일성이 있다. 그러나 구속역사 성취와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부여받은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와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 사건에 의존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전 15:45)라고 증거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살려주는 영”(the Life-giving Spirit)으로서 그의 백성을 대표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부활 때에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이 그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²⁰ I. Howard Marshall, “Kingdom of God, of Heaven,” *ZPEB*, Vol. 3, 808.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벤전 2:4-5, 개역개정)²¹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성도들은 산들이 되었으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중첩(重疊)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교회와 왕국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왕국 개념이 교회 개념보다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신약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의 구속역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약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구속계획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역사상에 실현시킴으로 설립되게 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계속할 교회의 설립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 교회의 설립과 선교

3.1 오순절을 향한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구속 성취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건이었다.²²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공동체가 필요했다(눅 24:46-48).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오순절을 의식하면서 공생애를 진행하신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의식은 오순절을 향하고 있음을 본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이나 부활이 궁극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의미 있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7-8).

여기서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보혜사를 보내 주심은 오순절 사건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다(요 14:16, 26; 15:26; 16:13 참조).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²¹여기서 산 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벤전 2:6에서 사 28:16 절을 인용하고, 벤전 2:7에서 시 118:22 를 인용한 것은 본 구절의 돌이 구약에서 예언한대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²²이 사건들의 중요함은 한 성도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의 내용과 일치함에서도 나타난다. 한 성 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개역개정)와 같은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있을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²³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필 수 없다는 뜻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는 예수님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세상의 시작이 있기 전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복귀하시기까지는 충분히 시작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으로 복귀하시는 것은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어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뒤따를 것을 가르친다.²⁴ 예수님이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구속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성육신)은 이전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시기”(승귀)위해서이다(참조. 엠 4:9; 요 3:31).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ἀπέλθω)은 목적이 있는 떠나감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결을 의미한다기보다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충분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다(요 16:7-15).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은 제자들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요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다.²⁵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특별한 일이 오순절에 발생할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상태로 계속 계시면 편재하실 수 없지만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시면 “살려 주는 영”으로서 편재하실 수 있다(고전 15:45).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적이며 육체적인 임재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못할 것이다.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9, 개역개정)고 증거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다보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²⁶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9, 개역개정). 예수님의 사고의 방향은 분명히 오순절 중심적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오순절을

²³ “너희에게 유익하리라”(συνφέρει ὑμῖν)는 표현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에게 유익 하다고(요 11:50) 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 루고 계신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백성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유익한 것이었다.

²⁴ cf. D.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533-4.

²⁵ Herman Ridderbos, *The Gospel of John*, Trans. by John Vriend (Grand Rapids: Eerdmans, 1997), 530-1.

²⁶ Leon Morri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696-7.

바라보셨으며, 오순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며 신약의 교회가 설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3.2 오순절에 설립된 신약교회

신약 교회의 설립은 오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성도들의 수가 삼천이 되었다(행 2:41). 이 성도들의 모임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순절에 설립될 신약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의 의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요한복음 1:40-42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때에 예수님은 처음 보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요 1:42, 개역개정)고 말씀하셨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이다.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앞으로 게바 즉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 바로 시몬을 향해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시몬이 반석 되는 것이 신약 교회의 설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신약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롬 10:9-10; 고전 12:3).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미래 시상을 사용하여 “장차 게바라 하리라”²⁷고 말씀하셨다.

이제 공생애 후반부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어보자. 그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셨다. 그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이며,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예수님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답을 한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개역개정)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대단히 만족하셨다. 예수님은 “마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개역개정)²⁸고

²⁷ σὺ κληθήσῃ Κηφᾶς. (κληθήσῃ는 καλέω의 미래 수동형)

²⁸ 교회 설립과 관련하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 이유는 이름을 가리키는 베드로(Petros)는 헬라어로 남성형이지만, 반석(petra)은 여성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인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옳다. 박형용, 「사복음서 주해(II)」(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4), 95-6; cf. Edmund P. Clowney, *The Church* (Downers Grove: IVP, 1995), 39-41.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개역개정)고 말씀하셨다.²⁹

여기서 우리는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차이를 본다. “장차 계바라 하리라”(요 1:42)에서 “너는 베드로라”(마 16:18)로 변했다. 즉,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에서 “너는 지금 반석이다”로 변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가? 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진행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변화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때에는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설립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금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³⁰라고 미래 시상으로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을 완성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 당시로 보아서는 아직 미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구속의 성취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 구속의 복음을 책임지고 전파할 교회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신약 교회를 설립하면 신약 교회는 전파할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 설립되게 된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교회 설립 시기로 생각하고 계셨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3.3 신약교회의 선교적 사명

누가복음 24:46-48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 사건과 이 구속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증거 한다. 누가복음 24:46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증거하고, 누가복음 24:47은 구속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실히 한다. 누가는 누가복음 24:46 서두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hōtos gegrapται; οὕτως γέγραπται, Thus it is written)라고 말함으로 누가복음 24:46과 47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누가복음 24:46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구속 사건이다. 이제 누가복음 24:47의 내용은 누가복음 24:48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²⁹ “너는 베드로라” (σὺ εἶ πέτρος)는 현재시상으로 사용되었다.

³⁰ ἐπὶ ταύτῃ τῇ πέτρῃ οἰκοδομήσω μου τὴν ἐκκλησίαν.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오순절 사건은 종말론적 질서 실현을 위한 기초를 놓은 사건이요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단위로 생각하면 오순절 사건이 하나님나라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국과 오순절 사건이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 성령과 왕국과의 관계도 명확해 짐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한 천국의 사역을 오순절에 설립된 신약 교회를 통해 계속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신약 교회가 설립되었다. 신약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모든 사역은 왕국 사역(행 8:12; 19:8; 20:25; 28:23; 28:30-31)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활동 단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천국의 단계적 실현을 생각했다. 구약 예언의 종말론적 소망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세 단계에 상응하여 실현되었다. 예수님 자신은 제 1단계에서 천국의 현재 실현과 함께 미래의 승귀를 바라보셨고 그 너머 재림으로 시작될 단계를 내다 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실현될 전체 왕국의 주인으로서 처음과 나중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제 2단계 기간에 천국의 확장을 교회에 맡기셨다. 성령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도울 것이다. 물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도 함께하실 것이다. 그러나 선교의 직접적인 사명은 천국의 제 2 단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데 하나님은 교회의 참여도 계획 속에 마련해 두신 것이다.

[논찬]

박형용 박사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이승학 교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신약학계에서 일어난 일대 변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주로 비종말론적인 입장을 취했던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강한 반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묵시적 성격을 강조하는 종말론적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요한네스 바이스(Johannes Weiss),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도드(C.H. Dodd),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으로부터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에 이르기까지 종말론 논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라는 종말론적 구조를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스카 쿨만의 주장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이라는 이중적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not yet)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종말론 논쟁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신약학계의 토론의 중심에서 잠시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예수의 자기 이해’라는 주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이해들이 파급되기 시작했다.

박형용 박사의 소논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신약학계의 토론의 결실들을 기반으로 말세와 선교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과정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역설함으로써 선교가 단순히 교회에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이해의 수준을 넘어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의 흐름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를 논증하여 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정초하는 매우 값진 시도요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성경적, 구속사적 측면에서 탁월하게 그려낸 논문이라고 논찬하고 싶다.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 대한 여러 저술들이 성서학계는 물론

선교학계에서 적잖게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소논문에서처럼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설립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 맡겨진 구속사적 사명이며, 따라서 교회의 선교 사명 성취는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정확하게 합치되는 중대한 사명임을 논증함으로써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이면서도 구속사적인 수준 높은 이해를 가능케 해준 시도는 가히 한 분야에서 오랜 연구 활동을 통해 통전적 시각을 터득한 대가만이 할 수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박형용 박사는 말세와 선교와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연구들이 천국의 현재면과 미래면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기에 추상적인 성격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천국을 좀 더 성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세 단계,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부활 때까지의 기간,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기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를 단순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행되어야 할 시기로 이해하는 수평적 조명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직결되어 있는 수직적이고 통전적인 조명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를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 성격적 신학적 주초를 시도했다.

박형용 박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신학적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주석적 해안들이 돋보였는데 특히 천국의 현재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흔히 거론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 사단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 장차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된 복음 선포 외에도 누가복음 17장 20-21절(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적 임재에 대한 학계의 여러 이론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인격적 임재를 의미하는 구절로 신중하게 결론내린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총 17면에 해당하는 소논문의 지면 중 10면 가까운 지면을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에 할애함으로써 정작 이 소논문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과 그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가 좀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해 전체 소논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소 의아하게 할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앞부분의 할애된 지면을 조금 아껴 결론 부분을 보강하는 데 사용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소논문이 주는 연구 결과가 장차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적 제언이 언급되지

않아 이론적 연구를 넘어 연구의 실천적 함의가 포함된 미래적 제언이 이어졌더라면 훨씬 더 좋은 소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 교회 안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

오상철 박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미국 한인 이민 교회의 상황: 다양한 공동체
3. 이민 교회 내에서 원만한 대화를 이루는 요소
 - 3.1 한(Han)- 대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요소
 - 3.2 다문화- 대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
 - 3.3 이민 성도들의 심리적인 부분- 대화의 유연성 요소
 - 3.4 이민 성도의 상황적 유형- 대화의 전문적 요소
4. 이민 목회자의 효율적인 대화를 위한 제안
 - 4.1 이민 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운다
 - 4.2 이민 성도들을 화해시킨다
5. 결론

이민 교회 안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

1. 들어가는 말

북미주 한인교회의 사회적 이해를 고찰하는 것으로 이민 교회와 이민 사회속에 들어 있는 사회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한인 이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간에 올바른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중문화속에 들어 있는 목회자와 성도간의 대화 문제를 해석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현재적 하나님나라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대화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먼 미래의 종말론적 하나님나라에 대한 동정보다는 이민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민자들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현재성만을 강조하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급진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전한 개념 이해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데오파루시아’의 현재에 몰입된 나머지 현재의 인위적인 평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미래성과 그 영원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이민 교회의 현실상황속에서의 실제적인 진정한 대화의 엄 격한 차이를 보완하고 행복한 이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데오파루시아’의 미래성만 강조하여 현재의 교회적 사명을 소홀히 하고 요단강 저편만 바라보게 하는 신비주의 내지 극단적 보수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크리스찬들이 이땅에서의 현실적 책임과 왕국윤리(Kingdom Ethics) 실천을 등한케 하는 결함이 있다.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의무는 이민 교회안에서의 대화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민 교회안에서의 대화가 불편하고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1) 미국 한인 이민 교회의 상황: 다양한 공동체를 다루는데 이민 교회상황속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정의를 내리고 이민 교회가 가지는 다양한 신앙공동체의 의미를 설명

하며 이어 이민 교회의 사회학적인 해석의 범위를 이민 교회의 성격규명, 이민자의 유형과 그 목적으로 나누어 해석하면서 이민 교회안의 목회자와 성도간의 효율적인 대화에 대해 논한다.

- (2) 이민 교회내에서 원만한 대화를 이루는 네가지 요소에 대해 말하면서 (a) 한 (Han)-한민족의 문화속에 배여있는 소외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대변하는 특수한 용어의 의미함³¹-대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요소, (b) 다문화-대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 (c) 이민성도의 심리적인 부분-대화의 유연성요소, (d) 이민성도의 상황적유형-대화의 전문적요소로 구분하여 전개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주제는 이민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민 교회안에서 대화할 때 이민목회자는 성도들의 “한”(Han)의 의미를 알아 그들과의 대화의 깊이를 이해해야 하고 다문화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여 성도들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용하는 자세로 대화해야 하며 성도들의 억압된 심리적인 요소를 깊이 인식하여 유연성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성도들의 상황적 유형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명한다.
- (3) 이민목회자의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실제적인 과제로 두 가지로 제안하는데 (a) 이민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과 (b) 이민성도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제안하면서 대화의 극복방안으로 이민 교회내의 목회자와 성도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제시하고
- (4) 종합적인 맺음으로 목회자와 성도간의 좋은 대화의 자세를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즉 하나님나라의 현재적 모습은 목회자와 성도가 아름다운 대화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조화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³¹ 나사렛대학교의 전광돈교수는 “한의 신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울림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한으로 뒤덮여 있는 고난의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의 인생들에게, 한의 채널을 통하여 전파하려는 복음적인 의도에서 태동되었다. 이는 서구 신학의 재판(再版)도 아니고, 한국판 해방신학도 아니며, 민중신학의 속편도 아니다. 비록 이런 저런 신학사상들과 많은 부분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내용적으로 공유하고 있을지라도, 한의 신학은 어디까지나 한이라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서구 신학이 좀처럼 보지 못한 계시의 비밀을 살펴보고 한이라는 하나의 귀를 갖고 해방신학이 미처 듣지 못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또한 한이라는 하나의 손을 가지고 민중신학이 아직 다루지 못한 복음의 진리를 터치하려는 신학이다”. 라고 말한다. 전광돈, *태초에 한이 있었다: 한(恨)의 신학*(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7)을 보라. 한이 중요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시인 김지하의 공헌이 있었다. 그는 “성지”와 “말뚝”이라는 메모에서 한에 대한 깊은 사고를 전개한다. 그는 한을 억압되고 농축된 억압의 경험의 축적이라고 정의한다(서남동, *한의 신학을 위하여*, 66-8.), 그리고 시인 김지하를 만나 한의 신학에 대한 생각을 최초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서남동은 한을 “의로운 분노”로 번역하면서, “한은 민중의 불의의 경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깊은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서남동, *한의 신학을 위하여*, 64.). 또한 한신대학교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김정준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참하시어 함께 고난당하심으로 새 생명, 새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억울하고 비참한 고통의 현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야 함을 ‘한의 신학’을 통해 밝히고 있다(한국 고등신학연구원, 김정준, 서울: 홍성사, 2009).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광선은 한을 정의하기를 “권력에 의하여 행사된 불의의 상황과 취급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서광선, “A Biographical Sketch of an Theological Consultatio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 of History*, 25)이라고 하였다.

2. 미국 한인 이민 교회의 상황: 다양한 공동체

한인 이민자들에 대해 살펴보자. 영어로 이민자(immigrant)는 이방인(alien), 외국인 (foreigner), 비 본토인(nonnative), 타국인(outlander), 주변인(outsider) 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에 있는 코리언이 아니라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거주자들을 가리킨다. 즉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의 역사배경이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에 코리안 아메리칸 (Korean-American)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민 교회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인 신앙적 공동체이다. 미국에서 비로소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점이 이민 교회의 구성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 교회안에는 한국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있지만 이민 교회를 처음 출석하는 이민자들도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민 교회의 성도들은 본국인 한국교회의 성도들과는 그 유형과 성격이 현저하게 다른 다양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교회내에서의 이민목회자와 이민성도들 간의 대화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민 성도들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미국땅에 와서 겪는 교회선택의 어려운 문제와 신앙적 경험의 다양한 견해, 언어적 구사의 어려움, 미국생활의 부적응문제, 인간관계의 부조화현상, 원치 않는 다른 직업에의 종사의 아픔 등이 이민성도들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특히 그중에서 위에 언급한 언어적 구사의 어려움은 이민사회에서 영어 사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³² 칼리 도드 (Carley H. Dodd)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구사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언어의 코드 (cod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드(Carley H. Dodd)는 워프(Benjamin Whorf)의 언어이론중 인식-언어

³² CAL State L.A. 유의영 교수는 이민자들의 2009년 4월 14일, 남가주 월드미션대학 주최 개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월드미션 대학교와 한인커뮤니티 (World Mission University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란 주제강연에서 “한인사회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유의영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인 이민비자 수혜자들은 년 2만에서 2만 5천명으로 지속되고 있고 매년 비이민 비자로 미주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 가량 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정도가 유학생”이라 말했다. 그는 “L.A.와 뉴욕 등에는 한인타운이 형성되었고 교외지역의 한인부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의 영어구사력은 타민족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사회는 교회의 힘이 막강했지만 점점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인교회 역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어권 자녀세대들의 이탈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세 위주의 예배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영어를 쓰는 2세대와 언어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세와 1세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펼쳐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신학교에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를 말하면서 이 세가지 기능중에 언어의 특징은 1)체계적으로 정리
한다 2)분류한다 3)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유용함을 확장하도록 한다고 하면
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며 언어가 사고를 높여준다.³³

도드(Carley H. Dodd)가 말하는 것은 문화가 표현하는 언어속에 숨어 있는 코드 (code)를 찾아내는 것인데 은어, 속어, 내부의 코드(code)를 알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민목회자와 이민성도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속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대화속에 숨어 있는 언어의 코드(code)를 찾아내어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민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이민 성도들이 미국 문화생활하면서 겪었던 언어의 코드(code)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민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에 있는 한 국민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이민성도들이 필자와 대화를 하는 중에 영어(English)와 스페니쉬(Spanish) 단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나타나는 대화의 불편함과 그러한 언어전달을 통해 느껴지는 불편함등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대화과정에서 속히 상대의 언어코드 (code)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이므로 이민자들의 비전(vision)과 애환이 동시에 묻어져 있는 곳이다. 이민 교회안에 이민자들의 비전(vision)이 들어 있다는 뜻은 이민자들이 이민 교회를 향해 소원하고 바라는 염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애환이 있다는 뜻은 이민자들의 아픔과 힘들이가 이민 교회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전(vision)과 애환이 교차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민 교회인데 이 공동체에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아름다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드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비전(vision)과 애환이 교류하는 공동체인 이민 교회 즉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성도간의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회학적인 해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민 교회의 성격 규명 둘째는, 이민자의 유형과 그 목적이다.

전자를 살펴보자. 이민 교회의 성격규명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민 교회는 1903년 하와이 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본토를 떠나 미국에 주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일본을 항거한 조국독립운동의 장소였고 민족운동과 교육적인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공동체였으며 각 주에서 고유한 한인역사와 문화계승을 유지한 장소였는데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 교회의 모습이 다양해졌다.

³³ Carley H. Dodd,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w York: The MacGraw Hill Companies, Inc, 1998), 79, 196.

후자인 이민자의 유형과 목적을 분석해보자. 미국내의 한인거주자들을 분류해보면 다양하므로 대화를 잘 해야 한다. 한인 거주자들은 조기유학생, 유학생, 지상사 근무자, 교환교수이며 이민자들은 취업이민자, 정규이민자등이 있다. 그런데 한인 이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유학생들은 학업성취 라는 목적을 지니고 미국에 왔으나 취업관계로 미국직장에 남았고 취업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왔으며 지상사 직원들은 일정한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여 미국에 영구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공식적인 이민절차를 밟아 미국에 왔으므로 그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이민 교회는 모인 사람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민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의 생각을 인식하고 대화해야 한다.

3. 이민 교회내에서 원만한 대화를 이루는 요소

이민목회자는 이민성도들과 대화를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목회자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민문화를 연구해야 하는데 특히 이민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를 익혀야 한다. 문화를 바로 인식해야 서로간에 올바른 대화가 되는 것이다. 폴 히버트 (Paul G. Hiebert)는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화를 통한 성경이해, 대화를 통한 사람이해, 대화를 통한 왕국이해, 대화를 통한 복음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서학자, 신학자, 인류학자들이 대

³⁴ 홍치모는 총신대학교 역사신학교수이다. 그는 한인의 이민목적이 있듯이 ‘미국인 이민자의 이민목적’에 대해 다음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1606년 영국왕 제임스(James)1세가 미국 버지니아 (Verginia)를 개척하면서 제임스 타운(James Town)에 이민한 최초의 정착지역으로 첫 이민자들은 상업 을 목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었고 국왕의 특허(Royal Charter)을 받은 사람들이 었므로 종교생활은 영국 교회에 속해있었으며 이주민들 중에 소수가 칼빈주의적(Calvinistic) 신앙을 소유한 청교도가 있었다고 한다. 둘째, 1620년 순례자 (Pilgrims)들이 메이플라워(Mayflower)를 타고 메사추세츠 (Messachusstts) 주의 해안인 플리머스 바위 (Plymouth Rock)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의 신앙은 청교도적이고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지만 대다수는 장로 교회보다는 조합교회적(congregational) 이었으며 단지 소수만 이 장로교회적 형태를 지녔다. 셋째, 1623년에 화란 (Holland)으로 부터 칼빈주의 적 개혁파 교인들이 뉴욕 (New York)에 도착하여 그 후손들이 미국 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이 장로교회로 합류하였다. 넷째, 프랑스(France)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해온 위그노파(Huguanots)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미국 장로교회의 발전에 남긴 공헌이 크다. 다섯째, 아일랜드(Island)로부터 이주해 온 장로교들과 스코틀랜드(Scotland)로부터 이주해 온 장로교들이었는데 그들은 미국 동부에 있는 뉴저지(New Jersey), 남북 캐롤라이나 (North and South Carolina)등지에서 주거하였고 이들이 장로교회 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여섯째, 1700-1770년 사이에 독일 이민자들이 왔는데 이들중에 독일 개혁교회 (German Reformed Church)에 속한 칼빈주의적 (Calvinistic) 장로교 신자들이었다.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로 부터 건너 온 이들이 하나의 교회체제를 형성해 나갔는데 곧 ‘조직된 교회’로 발족하는 것이 이들 에게 주어진 목적이었다. 자세한 것은 홍치모, *영미 장로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131-3.를 보라.

화를 함으로서 성경적, 인류학적 신학이 생겨 선교사가 인간과 토착민의 사회를 관찰하여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³⁵

히버트(Paul G. Hiebert)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화라는 창문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며 왕국을 이해하되 결국은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목회자들과 이민성도들간의 대화를 돕기 위한 다음 네 가지의 요소를 살펴본다.

3.1 한(Han)-대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요소

이민 교회의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Han)이라는 단어이다. 한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아픔의 극치를 말하고 그 아픔은 단기간의 고통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 그들의 가슴과 육체에 새겼던 고난의 긴 여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굳이 말하자면 "한"은 가진 자들의 단어가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대변하는 특수한 어휘이다. 즉 부유한 자는 일생을 살면서 이러한 단어를 거의 접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공통단어임과 동시에 생활어휘인 것이다. 한 (Han)을 이해해야 한인성도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특히 한(Han)은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보다는 여성의 지위를 낮게 보는 제도적 관습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강도는 훨씬 강하게 다가간다. 이러한 한(Han)에 대해 미국 유나이티드(United) 신학교 교수인 앤드류 박(Andrew Park)은 이렇게 정의한다.

한은 한국사회에서 장기간의 고통이나 사회의 부정의함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남성이나 여성들이 겪는 내적고통의 정점으로 내적이고 심리적이며 영적인 반응이다.³⁶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한(Han)과 같은 고통이 존재한다. 한국사회와는 환경의 조건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만만치 않는 이민사회에서 아픔을 경험한 한스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오히려 이민현장은 겉으로 보면 접근하기 쉽게 보이나 막상 경험해보면 설명하기에 어려운 고통의 종류가 있다. 그 고통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경험하는 미국사회 법과 구조로 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그중 힘든 것은 누구를 만나도 미국의 법과 사회 구조에 대해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각자의 경험이 다양 하기에

³⁵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76-8.

³⁶ Andrew Sung Park, *Racial Conflict & Healing, An Asian-American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Orbis Books, 1995), 75.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즉 이민자들에게는 한국과 판이한 미국의 사회 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고통이 적지 않은 현상이 바로 이민사회이다.

둘째,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에도 많은 교파와 교회가 있어 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영국 성공회등의 교파를 따라 세워진 교회의 형태도 있지만 이민사회에는 이들 교파외에도 이민사회의 다양성에 따라 세워진 오순절교회, 독립교회등의 형태가 적지 않게 산재해 있어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고심하는 것이 사실이다.³⁷ 하지만 먼저 정착한 이민자들이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형편이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즉 이민성도들에게는 교회선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곳이 이민 교회이다.

셋째, 이민자들의 인간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혈연, 지 연, 학력등의 연계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민사회는 그 형태가 많이 다르다. 그 이유는 굳이 그렇게 매이지 않아도 이민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생각들이 이민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교회의 정의도 달라졌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달라졌다. 이민자들에게는 인간관계로 인한 사고의 변화가 있는 곳이 이민사회이다. 즉 이민 교회는 이민의 상황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대화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대화가 성립된다면 예수가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되는 것이다.

3.2 다문화-대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

다문화가 대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민목회자가 다문화를 이해하면 그만큼의 깊이있는 대화가 전개된다. 북미주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복합적인 다문화가 각 문 화의 모습과 형태로 포진되어 있다. 유럽(Europe)문화, 아프리카(Africa)문화, 라틴(Latin)문화, 아시아(Asia)문화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그 나라 고유의 언어, 전통, 역사, 문화의 양식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각국의 의상과 음식을 나누는 풍성한 자리도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민자들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는 증거이다. 이민성도들이 겪는 문화변용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문화적 요인에 대해 베리 (Berry, J.W.)와 김(Kim, M.S.)은

³⁷ 미주 크리스찬신문, 2010년 1월 16일자, 2010년도 미주 크리스찬신문,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실린 미국의 각 교단별 통계를 보라. 미국내 교단 별로 보면 장로교가 1,533 교회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17% 를 차지한 침례교(673)가 2 위, 3 위는 하나님의성회 및 순복음 계열이 332 교회(9%)로 감리교 242(7%) 교회를 앞섰으며, 성결교단이 161 교회(4%)로 5 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독립교단 196, 초교파 72 로, 또 교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무소속도 다수 있었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로 579 개 교회(전년대비 + 40)로 나타났으며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272 교회(+ 1)로 그 뒤 를 이었다. 또 미국교단인 PCUSA 319(+ 13), PCA 가 163 교회(+ 7)로 나타났다. 또 선교단체인 C&MA 가 79 교회, 장로 교 개혁주의 교단인 CRC 와 RCA 도 70(+ 2), 36(-18) 교회로 각각 집계됐다.

다문화속의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문화 변용양식”을 말한다.³⁸

- (1) 동화(Assimilation): 동화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 이미지를 그들이 속하고 싶은 문화에서 널리 유행하는 자아관으로 바꿀 것이다.
- (2) 이중문화적(Bicultural): 집단주의적 문화로부터 혹은 개인주의적 문화로부터든 통합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래 자아개념에 덧붙여서 독립적 자아 혹은 상호의존적 자아를 발전시킬 지 모른다.
- (3) 분리(Separation): 동화혹은 통합대신에 본래의 자아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이다.
- (4) 주변적 변화(Marginalization): 새로운 자아 이미지로 본래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본래의 자아를 격하시킨 결과인지 모른다. 따라서 자신을 주변적(어떤 명확한 자아의식이 없는)상태로 남겨둔다(Kim 2002: 208).

즉 이민자들사이에 발생하는 동화, 이중문화적, 분리, 주변적 변화등으로 발생하는 문화변용양식이 다르므로 자신이 경험한 다른 문화양식의 눈으로 평가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유발하는데 목회자와 교인의 대화 문제도 문화변용양식 의 차이때문에 나타 나며 미국이 복합민족 다인종국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민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인 문화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북미주 복합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북미주 복합문화의 지역문화를 해석해야 한다. 북미주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며 전통 문화가 다르다는 다양성에 기인한다. 미주의 각 지역을 자세히 보면 그 지역에 제일 처음 이민 온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다. 이 발자취는 단순히 그들의 선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이민자들이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지금까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 하고 개발하는 동안에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큰 영향력을 남겼는데 이민목회자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직시하면서 이민성도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민 교회 목회자는 그 지역을 처음 개척한 첫 이민선조들의 문화가 깊이 배여있고 그들이 그 지역사회에 미친 전통과 리더쉽이 뿌리에 남아있어 목회자가 그 지역문화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배워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다양한 문화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Pennsylvania)에는 영국에서 온 퀘이커(Quaker)³⁹ 이민자들과 독일 이민자들이 형성한 아미쉬(Amish)

³⁸Min Sun Kim, 재인용, *Non-Western Perspectives on Human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2002), 208.

³⁹ 프로테스탄트의 한 파(派). 1647 년 조지 폭스(George Fox)가 창시하였으며 프렌드(Friend)파라고도 한다. 17 세기 영국의 급진적 청교도 신비주의에서 출발하였으며 신자들이 자기 신앙을 육체의 진동(震動)에 의해 표현하였으므로 퀘이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정적(靜寂) 속에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깊은 내면적 체험에 의해 < 내적인 빛>을 받아 거기에서 구원을 찾는 것을 지향한다. 성서가 성령만큼 중요하 지 않다고 보아 세례·찬송도 부인하며, 성령에 관한 교리에 주목하고 신과 인간 영혼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갖게 되는 회심(回心)을 무엇보다

공동체⁴⁰같은 문화의 자리가 남아 있어 이렇게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성도들과의 대화를 위해 지역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문화적 형식, 문화적 의미, 문화적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지역공동체의 문화개념이나 그 지역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화변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변동상태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창출하며 지속하는데 옛 문화와 새 문화와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다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러한 긴장이 풀리면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민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한 지역의 문화가 탄생되고 변화하는 동안에 과연 그 문화를 통해 지역에 어떠한 사회적인 정서와 문화를 수반되어 왔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 지역 한인교회 공동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인교회 문화와 전통에 맞는 대화의 기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California)에 있는 교회지도자들은 멕시코(Mexico), 중미, 남미에서 온 수많은 라티노(Latin)문화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청되며 시카고(Chicago)지역에는 수많은 인종의 의사들이 모여있어 특히 의사들의 정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민 교회 목회자는 그 지역의 문화를 해석하여 이민성도와의 적합한 대화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다중 문화란 “Multi-Culture”을 말하는 것이다. 다중문화란 다양한 문화 즉 북미주에 산재한 여러가지의 문화종류를 말하며 특히 다인종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California)

중요시하였다. 전부터 이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령주의자로서 이단으로 여겼고 교리는 위험사상으로 간주되어 오랜동안 박해를 받아 왔다. 그들은 불가전복, 불경(不敬), 세금체납, 징병거부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벌금·수감·외국추방 등의 벌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박해 받게 되자 차츰 로드아일랜드, 펜실베이니아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웨이커교는 사회개혁의 원동력 이 되어 노예제 반대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는 1955년 2월 미국인 웨이커교 신자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인터넷 야후 백과사전을 참고하라.

⁴⁰ 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한다. 이들은 재세례파가 보수화되면서 등장한 교파의 성격답게 자동차나 전기, 전화등의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종교적 이유로 외부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왔다.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여 군대에 가지 않고,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등, 정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도움도 받지 않으며,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다. 이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재세례파의 교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미시교 교인들은 펜실베이니아 독일어로 불리는 독일어 방언을 쓴다. 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검은색 계통의 옷만을 입으며, 대다수의 교인들이 전통적 방식의 농축산업에 종사한다. 어린이들도 자신들이 설립한 마을내 학교에서만 교육을 시키며, 종교는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신앙에 따라 종교와 과학은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읽고 쓰는 법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만 배울 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등교육까지만 교육을 마친다. 아미시교인들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을 귀하게 여긴다. 2)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3) 거의 모든 아미시교 성인 신자들은 농장 소유주이거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간다. 4) 아미시 공동체에는 범죄, 폭력, 알코올 중독, 이혼, 약물 복용이 거의 없다. 5) 의료, 노인복지, 또는 8학년 이후의 교육에 절대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다. 6) 아미시교도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아미시교도의 삶을 떠나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휴식년을 갖는다. 7) 사업이나 가게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산다. 8) 모든 아이는 부모의 감독하에 직업교육을 도제식으로 받는다. 9) 아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10) 학교의 결정은 부모가 감독한다. 11) 학년제 수업을 거부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공립학교 교육에 반대한다. 12) 학교를 부모가 감독하고, 한해 수업기간이 8 개월이내이다. 2010년, 위키백과사전을 보라.

지역에는 150 여개국의 문화가 존재하는 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중적인 문화가 즐비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California)라면 이민사회 현장속에 몸담고 있는 이민목회자들이 다중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민성도들과 대화의 내용을 준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래리 사모바 (Larry A. Samovar)와 리처드 포터 (Richard E. Porter)는 이렇게 말한다.

문화적 요소는 역사, 종교, 가치, 관, 사회적 조건, 언어라고 말하며 그 문화가 학습되고, 세대를 거쳐 전수되며, 상징에 기초를 두고, 역동적이며 통합된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특히 미국문화가 가지는 지배적유형은 개인주의, 평등, 물질주의, 과학과 기술, 진보와 변화, 일과 여과, 경쟁심이다.⁴¹

사모바(Larry A. Samovar)와 포터(Richard E. Porter)는 문화적 요소는 단회적인 과정이 아닌 세대를 거쳐 전수된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의 유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이민목회자들의 열정과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중문화”를 연구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민목회자와 이민 교회 성도들과의 성숙한 대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다중문화에 대해 분석해보자.

첫째, 다중문화란 각 민족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이다. 북미주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족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문화에는 그 민족만이 소유한 독특성과 유일성이 있다. 독특성이란 문화의 독특한 면이며 유일성이란 독특한 문화속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인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독특성과 유일성이 그 민족의 문화를 대변하는 용어이므로 각각의 배경이 다른 이민자들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근한 예를 들면, 주후 3 세기경 로마(Rome)인들이 전해준 2월 14일의 “발렌타인 데이(Valentine)문화”가 미국사회에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민목회자들이 이러한 문화를 인지해야 이민성도들과의 대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다중문화란 각 민족의 전통이 담겨져 있는 문화이다. 타민족의 전통을 연구하면 그 전통속에 고유한 언어, 의상, 음식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언어란 민족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의상이란 민족의 품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외형적 수단이며 음식이란 민족의 맛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속에 감추어져 있는 언어, 의상, 음식이야 말로 그 민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타민족의 절기에 대해 소개한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서는 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명절인 로쉬 하샤나(Rosh Hashana), 유대인 신년명절), 혹은 욘 키퍼

⁴¹ Larry A. Samovar & Richard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Florence: Wandsworth Publishing, 2004), 112.

(Yom Kyper, 속죄일)같은 명절에는 일반 공립학교도 문을 닫을 정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 때가 되면 공립 학교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을 볼 때 이민목회자들이 심도있는 각 민족의 전통을 공부해야 이민성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타민족의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말속에 숨어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비언어적인 요소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몸짓, 태도, 감정 등이 표현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언어전달보다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큰 내용이 전달된다. 결국 이민목회자가 이민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의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인 면보다 오히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비언어적인 면을 관찰하면서 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인 저변문화를 말 하면서 주요 메시지 체계를 다음 열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a) 상호작용(Interaction) (b) 연합(Association) (c) 실재(Subsistence)
- (d) 양성(Bisexuality) (e) 영역(Territoriality) (f) 임시성(Temporality)
- (g) 학습(Learning) (h) 연기(Play) (i) 방어(Defense)
- (j) 활용(Exploitation)⁴²

홀(Edward T. Hall)은 이들 10 개중 9 개가 비언어적이라고 하면서 수신자는 비형식적인 메시지와 양식들을 익혀야 한다고 말하고 한 문화의 중요한 메시지 체계중 하나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그 메시지 체계의 비형식적 차원에 따라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의 의도는 형식이 아닌 모방을 통해 학습하는 비형식적 단계에서 교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 목회자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단서는 이민성도들의 이민생활 배경에 대해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이민 성도들과 원만한 대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⁴² Edward T. Hall,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1973), 94. 1914년에 태어난 에드워드 홀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뉴멕시코에서 보냈다. 1933-37년까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바호족, 호피족, 에스파냐계 미국인, 트루크 족 등과 더불어 현지 조사연구를 행했다. 1942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42-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에 참여 유럽, 필리핀 등 해외에서 활동했으며 1952-56년까지 홀은 워싱턴 정신의학교(The Washinton school of psychiatry)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 프로젝트를 지도하였다. 이후 덴버대학 인류학과 주임교수, 베닝턴 칼리지 교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일리노이 공과대학 프록세미스(Proxemic Theory and interethnic encounters) 리서치센터 소장,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인류학협회’와 ‘응용 인류학회’의 특별회원이었으며 ‘국립과학아카데미 건축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에드워드 홀은 인류학의 영역에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끌어들이는 인류학자이다. 홀은 시간과 공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문화적 기제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침묵의 언어*”(2,000년, 한길사)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다양한 방식, 이를테면 학교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거친 경합이나 강자와 약자의 쪼고 쪼이는 사회적 서열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은 모든 인간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동물이 자신의 보급자리를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는 공간개념이, 20년전에 일어난 부정한 일 때문에 이웃을 살해한 데에는 시간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홀의 책인 “*생명의 춤-시간의 또 다른 차원*”(2000, 한길사)에서는 시간이라는 벽 속에 고립된 인간 그리고 문화를 다루는데 문화에 따라 어떻게 시간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규정되고 이용되며 패턴화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리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서로 결합되고 시간이라는 감춰진 벽에 의해 서로 고립되는가의 문제를 언급한다.

셋째, 다중문화란 각 민족의 정신이 배어있는 문화이다.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역사를 거쳐야 한다. 그 역사를 반복하는 과정속에 민족의 정신세계가 발전하게 되어 그 민족의 정신체계가 수립된다.⁴³ 민족의 정신체계란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지탱해나가는 구심점이 되며 미래의 국가를 세우는데 머릿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민족의 정신체계를 알면 민족의 상태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지난 5,000 여년동안 샤머니즘 (Shamanism), 불교, 유교의 역사적인 반복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세계속에 뿌리를 깊이 내렸으나 불과 조선천주교의 역사를 포함하여 약 225 여년의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인의 정신체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민목회자들이 다중 문화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전통 그리고 정신을 연구하여 이민 성도들과의 실제적인 대화에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하나님나라의 현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3.3 이민성도들의 심리적인 부분-대화의 유연성 요소

원만한 대화를 하기위해 이민성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심리적인 면이란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체득한 심리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직업관이다. 미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중에 자신이 원하는 사업이나 직장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원해서 그 사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좁아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이나 직장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이민사회이다. 직업에서의 심리적인 고충이 있다.

둘째, 인간관이다.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현상은 미국에 와서 새롭게 사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에서부터 친구로, 직장동료로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지를 제외하면 대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다. 새로 만났기 때문에 마음을 흔쾌히 주고받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인 견제현상이 적지 않다.

셋째, 가정관이다. 이민 생활 10년 정도된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대간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조부모님은 원색적인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를 어김없이 적용한다. 부모님은 주로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문화생활은 편리한대로 선택하여 즐긴다. 필요할 때마다

⁴³ ‘민족의 정신체계’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총신대학교 박용규는 ‘민경배의 민족사상’을 이렇게 언급한다. 박용규의 책, *한국 기독교회사 I*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29-30, 32, 35-6.를 보라. “민경배는 지금 까지 ‘밖으로 부터’ 조명했던 서구의 역사 해석방법론인 백낙준박사의 선교사관을 극복하고 한 민족의 주 체성을 강조하여 ‘안으로부터’의 민족사관을 내세운 분으로 민경배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을 주체로 하여 한국교회사를 서술하려고 한 것이다. 즉, 한국 기독교의 역사해석에 있어 한 민족의 책임의식과 사명 감을 도출하는 ‘민족’을 역사해석의 축으로 삼았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선택하여 생활한다. 반면에 2 세는 대부분이 영어로 구사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있다. 김영일 교수는 ‘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화는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동화란 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종족 집단들이 함께 살아갈 때, 소수종족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다는 그 사회의 다수 종족 집단의 문화와 삶의 패턴을 닮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동화의 이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이다. 미국 사회는 세계 여러 종족 집단들이 모여든 이민의 생산품이다. 미국의 역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종족집단의 이민의 물결로 엮어진 것이며, 미국이 발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이민이다. 이들 종족집단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들 고유의 전통, 문화, 종교, 언어 등도 함께 수반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와 문화는 여러 종족집단들의 문화와 전통, 습관이 어우러진 “비빔밥”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회와 문화는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원적인 요소가 있다. 동화이론의 두 가지는 1. 앵글로 일치 이론 (Anglo-Conformity) 2.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이다.⁴⁴

이렇게 동화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심리적인 갈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민 교회 목회자가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의 다름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괴리현상이 생겨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나타나는

⁴⁴ ‘동화(Assimilation)와 문화적 다원주의’의 이론을 협성대학교 사회와 윤리교수인 김영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1). 앵글로 일치 이론 (Anglo-Conformity)-역사의 기록으로 본다면,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아마도 영국 사람들, 즉 앵글로색슨(Anglo-Saxon)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 청교도들이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념은 자유, 사랑, 민 주주의, 준법정신, 개신교의 신앙 등이었다. 이들은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발전시켰고, 이들의 후손들은 미국의 다수종족, 즉 미국의 주인 노릇을 하여왔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소수종족 집단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면, 그들의 문화권에 흡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압력숙 동화” 즉 “pressure-cooking assimilation”이라고도 부른다. 이 용어 “Anglo-Conformity”는 스투와트 콜 (Stewart Cole)과 밀드레드 콜(Mildred Cole)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미국에서 영국계통의 사람들은 지배 계층으로서 WASP, 즉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인”(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는 가치관이 큰 주축들과 기둥이 되어 왔다. 앵글로 일치 이론을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A + B + C = A$ 인데, 여기에서 A는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인을 의미하며, B와 C는 다른 소수 이민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소수인종의 사람들은 다수인종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2). 용광로 (Melting Pot) 이론-미국은 한때 “용광로”라고 일컬어진 적이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이라는 사회, 즉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 새로운 정체성이 미국 사람으로의 동화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본래 인종적인 관습과 문화 등은 녹아져 사라지고 “미국 인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용광로 이론이다. 이 용어는 쟁윌(Israel Zangwill)에 의해서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뉴욕시에서 장기간 올렸던 연극의 이름이었다. 용광로적인 동화는 완전 총체적인 동화를 의미하는데, 공식을 이용하면 $A + B + C = D$ 이다. 여기에서 D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서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심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2.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 미국으로의 완전 동화이론의 반격으로서 전개된 이론이 문화적 다원주의이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소수인종 집단이 미국에서 아무리 살아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따라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한 사람은 칼렌(Kallen)인데, 그는 앵글로 일치 이론이나 용광로 이론은 민주적 사회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고유의 문화를 유산으로 지켜야 된다면, 미국에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뉴만(Newman)과 베리(Berry)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문화적 다원주의를 제정하는데, 이 이론은 $A + B + C = A' + B' + C'$ 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신들의 고유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다른 인종 그룹들과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교수는 “피아노 이론”을 제안한다. 피아노는 우선 검은 건반과 흰색 건반이 있으며, 각양 음, 도, 레, 미, 화, 솔, 라, 시의 음색이 있다. 또한 도미솔을 함께 누르거나 레화라를 함께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 진다. 훌륭한 음악이 이들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다. 자세한 것은 김영일, *다인종 사회와 문화적 다원주의 이론, 사회문제와 신학윤리*(서울: 열린 출판사, 2006), 제 4 부 14 장 을 참고하라.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아픔이 발생하고 상처가 생기며 쓰라린 흔적을 남기게 되므로 이민목회자가 이민교인들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U.C.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Berkley) 대학교의 로날드 타카키교수 (Ronald Takaki)는 다음과 같이 문화적인 무경험에 대해 말한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삼세대동안 한 동네에서 성장했다. 집주변에는 필리핀인, 푸에토리코인이 살았지만 나의 부모님은 아주 조금 그것도 너무나 작게 미국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해 말해 주었다. 또한 나는 미국 역사를 전공했는데 박사과정 코스웁중에 미국인 저자가 지은 저서만 공부했으며 타 인종 교수가 지은 책을 구경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미국역사 프로그램만 공부했지 미국에 사는 인종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못했다.⁴⁵

이 말의 의미는 미국에서 가르치는 교수라 할찌라도 직장, 인간관계, 각종 모임에서의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다는 것이다. 이민 교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민성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민자들은 직업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고충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견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이 크다. 그러므로 이민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이민자들의 심리적인 면을 깊게 고려하여 대화해야 한다.

3.4 이민성도의 상황적 유형-대화의 전문적 요소

이민 교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비춰진다. 그 내용이 다양한 이유는 이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상황적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상황적이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미국생활 30년된 이민자와 1년된 유학생이 공존하는 공간이 이민 교회이고 보면 겉으로는 대화를 하지만 문화의 경험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 서로간에 실제적인 대화가 힘든 곳이 교회현장이기도 하다. 30년의 이민생활속에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사고방식, 생활방식, 문화의 인식등이 차이가 나므로 누가 나서서 설명을 해주어도 이렇게 큰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현상을 문화공백(culture gap) 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이민 교회안에는 수많은 문화차이로 인해 대화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민목회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문화차이도 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적으로 이민성도들이 이민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문화의 높이만큼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민목회자들이 상황적인 관점을 연구하여 이민성도들과의 대화의 전문적능력을 길러야 한다. 상황화 에 대해 데이빗 J. 헤셀그레이브 (David J. Hesselgrave) 는 이렇게 정의한다.

⁴⁵ Robert Takaki, *From Different Shores, Perspective on Race and Ethnicity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7), 3.

상황화란 인간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역, 말씀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계시(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에 충실하면서 응답자들이 처한 문화적, 실존적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미를 지니는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시도이다. 상황화는 언어적인 동시에 비언어적이며 신학과 관련이 있다. 성경번역, 해석과 적용, 성육신적 삶, 전도, 기독교적 교훈, 교회개혁과 성장, 교회조직, 예배형식등 대위임령을 수행해나가는데 수반되는 그 모든 활동과 상황화는 관련이 있다.⁴⁶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가 제시한 상황화의 정의를 통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민목회자는 이민성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상황화된 여러가지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여 이민성도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결국 상황화의 내용은 복합문화적, 실존적, 언어적, 비언어적, 해석학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민목회자들이 이민성도들의 상황적 모습을 잘 알고 대처하는 대화의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적연유에서 이민목회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목양해야 하므로 대화를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대화의 의미는 상대의 문화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화의 내용을 주어야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민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에서 이민성도들을 안내해야 하므로 대화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찰스 크래프트 (Charles H. Kraft)는 교회현장속에서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경향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1. 예배 2. 조직 3. 신앙 4. 증인 5. 교육 6. 의식이다. 이러한 여섯가지의 경향들을 크래프트는 다시 세부분으로 나눈다. 1). 복합체 2). 특징들 3). 세부항목들이다. 첫째, 복합체들에는 공동예배, 개인예배, 지도력, 교리, 가치들, 개인적

⁴⁶ David J. Hesselgrav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146-7. 헤셀그레이브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와 미네소타 대학교(The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수학하여 학사(B.A.), 석사(M.A.) 및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미국 복음자유교단(Evangelical Free Church)의 파송을 받아 일본 선교사로서 9년간 교회개혁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하였으며, 모교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선교 대학원 원장과 교수로서 평생을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세계선교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침례회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인 이현모는 “상황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와 문화의 영역에서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서 보수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문화에 대한 편견을 대부분 거두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2년 쇼키 고에 의해서 제시된 '상황화' (contextualization)라는 개념이 선교와 문화의 영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보적 진영에서는 상황화 개념을 처음부터 적극 환영하여서 이전에 이미 제 시되어지던 토착신학운동이 좀 더 자유롭고 넓은 마당으로 나오면서 적극적인 상황화 신학들이 과감히 제시되어졌다. 상황(context)과 성경(text)간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카톨릭 신학자인 로버트 슈라이어의 *Constructing Local Theology* 와 같은 책들은 상황화 접근에 대한 새로운 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서 보수진영에서는 초기에 상당한 경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78년 버뮤다의 윌로우뱅크에 모인 보수진영의 학자들은 성경자체도 상황화되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상황화의 합법성을 받아들였다. 이때로부터 보수진영에서도 상황화와 상황화 신학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다. 8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미국의 보수측 신학교들은 여전히 상황화에 대하여 경계의 빛을 보였지만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헤셀그레이브라든지 폴 히버트와 같은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 계열의 학자들이 보수진영에서의 상황화론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카톨릭 신학자이기는 하지만 스티브 베번스가 저술한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와 같은 책이 나오면서 상황화의 접근방법이 좀더 체계화되어지기도 하였다”. 이현모, *21세기 초반 한국침례교회 선교에 대한 전략적 제언* (서울: 침례신학대학 출판부, 1999), 233-57을 보라.

증거, 공동증거, 공식적교육, 비공식적 교육, 소그룹의식, 대그룹의식 이 있고
둘째, 특징들을 더 세분화하여 공동과 개인이 하는, 설교, 기도, 예배 순서, 성경
봉독, 묵상, 규정등을 소개하며 셋째, 세부항목들에서는가사, 언어, 음악, 본문, 예
문, 목소리성조, 모임시간들, 지배체제이다.⁴⁷

크라프트(Charles H. Kraft)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조직, 신앙, 증인, 교육, 의식등의 행위들을 세분화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 혹은 전문적으로 대화하는 통로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이민목회자와 이민성도사이에 예배를 통한 영적인 대화나 교육을 통한 대화는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민 교회에서 이민목회자와 이민성도 간의 전문적인 대화를 위해 인식해야 하는 유형을 다음 여섯 가지로 분석한다.

(1) 올드 타이머 유형(Old Timer Type)

1968 - 1970 년의 한국사회는 현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다. 한국으로 부터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 보다 더 보수적인 요소를 지니게 된다. 즉 1968 년에서 1970 년에 이민 온 분들이라 교회관이 더 보수적이다. 그래서 대개가 보수적인 영성을 지니고 있다. 보수적이란 것은 교회에 대한 관점이 예배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범주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이민목회자의 보수적 성향이 대화를 잘 이끈다.

(2) 뉴 카머 유형(New Comer Type)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다. 처음부터 교회론과 신앙관을 훈련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문화에서는 목회경험이 풍부한 목회자가 대화를 잘한다.

(3) 유학생 유형(Student Type)

모인 구성원이 유학생이 대다수인 경우이다. 유학생은 유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성이 존재한다.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문제, 등록금문제, 결혼문제, 진로 문제 등으로 공동체내에 학생들이 공감하는 기류가 등장하므로 적어도 5 년이상 유학생 경험을 한 목회자가 대화를 잘한다.

(4) 스몰 비즈니스 유형(Small Business Type)

미주의 한인이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즉 한인교회의 평신도들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주로 한인사회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도시 주변에서 미국인과 한인들 사이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이민자들이므로 미국생활의 년수가 많은 목회자가 그들과 대화를 잘한다.

⁴⁷ Charles H. Kraft,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New York: Orbis Books, 1996), 271.

(5) 교수 유형(Professor Type)

미주에는 수천 명의 교수들⁴⁸이 있어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시골에도 대학이 있는 곳에는 한인교수들이 출석하여 평신도 지도력을 발휘한다.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에 관한 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기에 목회자의 성향이 미국 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한 지적인 면을 소유한 분이 대화를 잘한다.

(6) 전문인 유형(Professional Type)

전문인이란 의사, 변호사, 교사, 연구원, 사업가, 사무총장직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⁴⁹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고 경제적으로 탄탄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이민목회자가 된 분들이 안정된 대화를 한다.

4. 이민목회자의 효율적인 대화를 위한 제안

4.1 이민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운다.

이민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워 주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만일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이 없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만족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민성도는 자기자존감으로 살아간다. 이민성도들이 목회자와 회중의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 사역을 열심히 한다.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동기는 성도를 격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일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촉매제이다.

⁴⁸ “북미 한인대학교수협의회 (KAUPA, 2009)”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4 년제대학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조교수급 이상 교수직에 재직중인 한인학자의 수는 ‘2,80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내에서 박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한인의 수는 3 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전체의 10%에 달하는 2,800 명이 전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중이다. 한인교수들의 전공분야는 물리, 화학, 수학적 자연과학 계열과 경제, 재정, 회계등 상대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전자, 기계등 공학계열과 정치사회계열이 많았다.대학분포는 UC 계열 대학과 뉴욕 주립대(SUNY) 계열에 110 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테이트계열에도 약 50 명이 재직중이며 매릴랜드대, 아이오와대, 미네 소타대등에도 각각 10 여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주 한국일보 2009 년 2 월 5 일자*. 에 의하면, ‘캐나다 한인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박철범)가 최근 작성한 명단에 따르면 한인교수는 전국적으로 ‘156 명’ 으로 조사됐다. 이는 3 년 전의 87 명에 비해 약 70 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 명단에는 정년보장(tenure)교수 외에 계약직교수 와 명예교수 등도 포함됐다. 대학별로는 토론토대가 23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UBC) 20 명, 매길대 12 명, 요크대 10 명 순이었다. 주별로는 한인거주자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가 81 명으로 단연 높았다. 온타리오주에는 토론토대와 요크대 외에 워털루, 웨스턴 온타리오, 윈저 등의 대학에도 8~9 명이 강단에 서고 있으며 브락, 오타와대에도 각각 6 명이 재직한다. BC 주에는 29 명, 퀘벡주 에는 23 명이 대학에 근무한다. 전공별로는 공학, 의학 등을 포함한 자연계 전공자가 약 80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학 등 사회계도 50 명을 넘었으며 동양학 등 인문계는 10% 가 조금 넘는 분포를 보였다.

⁴⁹ 현재 북미주에 1.5 세, 2 세들이 세운 전문인 단체가 11 개가 있다. 한인 커뮤니티재단 (KACF), 한미연합회(KAC), 한인 전문인협회(KAPS), 한인 변호사협회 (KABA), 한인 전문인네트워크(KAPN), 한인 장학단체(YKAN), 152 차세대 모임, 코리안 프로페셔널그룹 (KPG), 미주 한인기업가협회(KASE), 코리안 아메리칸 상의회(KACC)등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0 년 1 월 13 일*을 보라.

이민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지도자다. 그러면 필자는 이민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 네 가지로 제안을 한다.

첫째, 격려의 말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 말은 사람의 태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말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격려하는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민 교회에서 강조해야 하고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민목회자들이 격려의 말로서 이민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일이다.

둘째, 대화적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민 교회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쉽지 않다. 교회에서 문화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사귀는 일이 단순하지 않기에 친구를 만나는 것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막연한 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자를 찾는 일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민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대화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속에서 맺어진 친구, 이러한 친구야말로 힘든 이민생활의 활력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민목회자들이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이민성도들 간의 관계를 대화적 관계로 인도해야 한다.

셋째, 수평적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이다. 그런데 교회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다. 목회자의 역할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다리역할을 하면 된다. 이말의 의미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지 말고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목양하면 된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가 바로 이러한 수평적 위치가 되면 이민성도의 자존감이 높아져 상호간에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일 것이다.

4.2 이민성도들을 화해시킨다.

이민목회자는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민성도들의 일터는 노동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 육체적인 힘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 이민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다. 한국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돈을 벌수가 없다. 이처럼 이민성도들의 몸이 고단하기에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도 난다. 그래서 이민성도들은 우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추스려야 이웃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민목회자가 교회의 성도들을 화해하게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이민 교회는 개방하는 공동체이다. 이민 교회가 발전하려면 대화가 막히지 않고 개방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욕구를 발산하게 된다. 가끔 이민목회자들중에 대화를

못하게 하고 대화를 통제하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민 교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들의 개방적인 사고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민 교회는 이민성도 상호간의 대화고리를 연결해주는 개방적인 교회라야 한다.

둘째, 이민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인간은 대접을 받으려는 습성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셨고 이웃을 섬기셨다. 그래서 이민목회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이민자들을 섬겨야 한다. 이민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심정을 가질 때 이민목회자들과 성도간에 진정한 대화가 있는 섬김의 교회가 된다.

셋째, 이민 교회는 품어주는 공동체이다. 이민 교회에는 여러 교단과 교파에서 신앙생활한 성도가 많이 있다.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오순절교단, 회중교회, 독립교단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러한 교단과 교파는 각각 자신들의 공동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교회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교단과 교파의 원리가 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이 세우고 모인 교회 즉 한국이나 지구촌에서 이민 온 이민 자들로 구성되어 교파의 색깔이 그리 분명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민목회자가 다양한 교파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품어줄 때에 이민 교회는 유익한 대화의 장이 되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북미주 한인교회의 사회적 이해속에서 목회자와 성도간의 효과적인 대화 문제를 논술하였다.

(1) 한인이민자들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민 교회가 가지는 다양한 신앙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이민 교회의 사회학적인 해석의 범위를 이민 교회의 성격 규명, 이민자의 유형과 그 목적으로 나누어 해석하면서 이민 교회안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효율적인 대화에 대해 논하였다.

(2) 이민 교회내에서 원만한 대화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 말하면서 (a) 한(Han)-대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요소, (b) 다문화-대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 (c) 이민성도의 심리적인 부분-대화의 유연성 요소, (d) 이민성도의 상황적 유형-대화의 전문적요소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3) 이민목회자의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실제적인 과제로 두가지로 제안했는데 (a) 이민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격려의 말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 주고

둘째, 대화적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며 셋째, 수평적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제안했으며 (b) 이민성도들을 화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이민 교회는 개방하는 공동체이고 둘째, 이민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며 셋째, 이민 교회는 품어주는 공동체로 전환하여야 목회자와 성도간의 유익한 대화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본 장의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이민목회자와 이민성도간의 대화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민 교회는 다문화속의 교회이므로 한국교회와 같이 혹은 외지의 선교현장과 같이 목양을 하면 안되는 특수한 현장이다. 이러한 다문화속의 한인교회는 언어, 교육, 문화, 질서, 구조등이 현저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민목회자는 이민문화를 배우고 연구하여 이민문화속에 배어 있는 언어와 문화의 코드(code)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성도들과의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강조하였다. ‘데오파루시아’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도래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마태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4:17)는 선포였음을 강조하였다.

누가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엔토스 휘몬/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눅 17:20-21)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성 이해는 이민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목회자와 성도간, 성도와 성도간의 소통이 되는 대화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는 진정한 현재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논찬]

오상철 박사의 “이민교회 안에서 본 하나님 나라”

장경순 교수

먼저 알파쿠루시스 대학교 한국어 학부 20 주년 기념 학술 포럼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포럼에 이민신학의 대가인 오상철 박사를 모시게 된 것은 본교로써는 무한한 영광일뿐 아니라 호주 한인 교계에도 큰 기쁨이 된다고 확신한다.

오상철 박사의 논문을 보면서 이번 포럼 주제인 “구속 그리고 이민”을 떠올려 볼 때 한마디로 이민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민자인 성도들과의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민 목회자가 이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갖게되는 대화는 그것은 그냥 한국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그것은 곧 ‘구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다시말해서 이민신학적 접근으로 이해 한다면 내세성이 결여되어있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 같은 현재성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민 신학은 하나님나라의 진정한 미래성과 영원성까지 다루어 줄 수있는 신학을 바탕으로하는 이민 목회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민자와의 대화의 결여는 신비주의나, 극단적인 보수주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하게 되는 이단적인 요소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민교회 성도들 목회자와 대화 그것은 곧 ‘구속’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미래적, 내세적,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라는 것이다. 오상철박사는 우리 한인 이민자가 갖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속에 배여있는 ‘한恨’(Han)을 말하면서 이것은 한국인이 갖고있는 독특한 민족적 배경, 역사속의 흡입된 삶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이것 역시 대화를 통해서 억압된 심리적 요소들을 풀어줄 수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대화’는 곧 ‘구속’이라는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이민자라는 어원적 해석을 찾아보면 이민자(immigrant),이방인 (alien),외국인 (foreigner), 비 본토인(non-native), 타국인(outlander), 주변인(outsider)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민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정착자라 할지라도 역시 주변인, 이방인, 타국인...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 그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분적 배경이 한국이며 미국은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환경일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이민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여전히 영연방 국가를 지향하는 호주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민자라는 차별적 의식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민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오박사는 교회 선택, 언어구사의 어려움, 미국 생활의 부적응, 인간관계 부조화, 원치않는 직업등을 들면서 이역시 이민자가 겪게 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편은 ‘대화’라고 말하고 있다. 언어에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이해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을 총체적으로 이민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분과 배경을 분류해 본다면 다양한 신분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자로서의 출발점이 다양하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런 다양함은 대화에 있어서 인식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능숙한 이민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恨’을 언급한다면 이민자에게 있어서 한은 미국사회나 호주 사회의 법과 구조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경험, 좌절을 더하는 것으로 울분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곧 이민자라는 것이다. 미국의 한인이민자는 1 세대에서 2,3 세대 4,5 세대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문화’(Culture)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 150 개국이 넘는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다문화(Multi-Culture)사회속에서 겪게 되는 문화 변용을 4 가지로 말하고 있다. 1)동화, 2)이중문화적, 3)분리, 4)주변적 변화 이러한 변용 현상은 더 큰 갈등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 역시 이민목회자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민자에 대한 세대별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이해로 받아들여 졌다.

호주 이민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문제로서 이민자들의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있겠다. 오박사께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지역에 따르는 문화적 정착을 이룬다고 말씀 하신 것처럼 호주 이민자 역시 어느 지역에 정착하고 사는 이민자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화적 정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만큼 지배적인 요소가 크다고 하겠다. 오박사는 논문을 통해서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민 목회자가 이민 성도들의 비언어적 요소까지 관찰 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비언어란 몸 짓, 태도, 감정등을 말하는데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 속에는 실제로 입으로 말하는 언어보다 더 많은 아픔과 한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심리적 이해와 내면 세계속에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한국인의 정신 세계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이민자의 상황과 전문적 요소에 다른 대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민교회의 특성상 이민온지 1 년된 유학생과 이민 생활 30 년이 넘은 이민자가 한교회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민 목회자가 갖는 ‘대화’는 상황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고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다. 올드 타이머 유형(old timer type)과, 뉴 카머 유형(new comer type), 유학생 유형(student type), 스몰 비즈니스 유형(small business type), 교수 유형(professor type), 전문인 유형(professional type), 이런 다양한 유형을 가진 성도들과 효율적인 대화를 갖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 각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려의 말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

이민교회 성도들과 화해를 통해서 갖게 해주는 대화를 유도하는 모든 진행을 이민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스킬이며, 그런 대화의 이끌음은 ‘구속’이란 것을 말해주고 잇는 것이라고 하겠다. ‘데오파루시아’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도래로 제시 하신 것처럼 이민교회 안에서의 이민 목회자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구속’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논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오상철 박사의 논문을 대하면서 이민 신학에 대한 또다른 이해와 이민 목회의 또다른 접근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Leadership of Small Group Leaders in Christian Communities

Ki Tae Song
Leadership, Counselling

Contents

1. Introduction
2. Biblical Foundation of Small Group and Leadership

- 2.1 Biblical Reflections on Small Group
 - 2.1.1 Old Testament
 - 2.1.2 New Testament
- 2.2 The Bible and Leadership
 - 2.2.1 Servant Leadership
 - 2.2.2 Steward Leadership
 - 2.2.3 Shepherd Leadership
 - 2.2.4 Mentor Leadership
- 3. Variety of Modern Applications and Practices
 - 3.1 Within Small Groups
 - 3.2 Small Group Leaders
- 4. Ethical Concerns
- 5. Evaluation of Effectiveness

Bibliography

Leadership of Small Group Leaders in Christian Communities

Ki Tae Song
Leadership, Counselling

1. Introduction

Jesus told u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also told us to teach these disciples to obey everything He has commanded us. The model of discipleship and leadership is something that is reflected from Jesus' own ministry and He had every intention to keep this model going, as he reassures us that, "to the very end of the age", He will be partnering with us. In his three years of ministry, His twelve disciples followed him, watching, learning and growing from Him. Our spiritual growth is a result of the discipleship and leadership that has been handed down since the great commission and such discipleship is what builds the church today.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discipleship of small group leaders in Christian communities. Small groups within Christian communities are one of the most effective avenues in which this God-given longing to belong and form relationships can be found. Small group leaders have the most-important role of nurturing these relationships through spiritual mentoring/ discipleship. Their key influence has a critical impact on the ultimate success or downfall of the members' spiritual relationships, not only amongst themselves but with God.

Jesus and his disciples are the first small group formed in the New Testament. They all have diverse backgrounds however by specifically training those, Jesus built them up to be the core members of the Early Church. In training his disciples he was always with them, praying, evangelising and setting standards as a role model for the disciples.⁵⁰

When visiting different cities, Jesus looked for a household he could minister to. By ministering to these households, Jesus nurtured small groups which developed into churches.⁵¹ These churches operated and expanded under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spreading the good news of Jesus.⁵² In this thesis, I am going to focus on small groups of the Early Church in the bible, and examine the leadership of church leaders within small group settings.

2. Biblical Foundation of Small Group and Leadership

2.1 Biblical Reflections on Small Group

2.1.1 Old Testament

Throughout history, most societies started in small groups. Before a church, village, nation etc. was formed, there societies consisted of couples or small families. Genesis and Exodus shows this clearly.

- 1) Garden of Eden

⁵⁰ Collinson Sylvia Wilkey, *Making Disciples; The Significance of Jesus' Educational Methods for Today's Church* (Carlisle: Paternoster, 2004), 29.

⁵¹ Roger W. Gehring, *House Church and Mission. The Importance of Household Structures in Early Christianity* (Peabody, MA: Hendrickson, 2004), 91.

⁵² Richard Horsley, *Sociology and the Jesus Movement* (New York, NY: Continuum, 1994), 65.

In Genesis 1.26 God says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ccentuating the essence of community within the Trinity through the use of collective pronouns. Therefore the Garden of Eden was an environment built heavily on community. a community within God, between humans and between God and human. And in this way, the first discipline/ mentoring and leadership were established- those are between God and man⁵³.

2) Adam and Eve

In Genesis 2.23, the man said “This at last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This is a cry, filled with man’s deep emotions of joy, satisfaction and confession. From th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pure and beautiful. Under God’s supreme plan, this is the first small group to be formed.⁵⁴ However due to sin, the godly nature of small groups was lost and as the leader of the household, Adam should have been there to protect Eve from the sin; instead of following Eve’s lead, he should have denied the fruit; and instead of shifting the blame to Eve, he should have repented on his knees.

From this, the importance of spiritual mentoring/ discipline and leadership is made clear, discipline and leadership are required in order maintain holiness. Adam should have disciple/ led Eve, one of the critical factors leading to the fall is the fact that Adam didn’t teach Eve the Word of God correctly and he didn’t disciple her at the time necessary.

3) Noah

In the increasing wickedness on the eart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 less in his generation (Gen 6.9). As the leader of his family, he led his family in building the ark, in doing God’s will, separating his family from the earth’s sin and ultimately leading to their salvation.⁵⁵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s emphasised after the flood. Genesis 9 illustrates Noah’s drunkenness and his cursing towards Ham. What results from his actions highlights the importance maintaining leadership and how the relationship needs to flow from a genuine, unprejudiced love⁵⁶ in the course of discipline.

4) Moses

In his divinely appointed leadership in freeing the Israelites from Egypt, Moses was caught up in a state of weariness and was burnt out being the only leader in the wilderness. In Exodus 18.21-22 His father-in-law proposes. “Moreover, look for able men from all the people, men who fear God, who are trustworthy and hate a bribe, and place such men over the people as chiefs of thousands, of hundreds, of fifties, and of tens. And let them judge the people at all times. Every great matter they shall bring to you, but any small matter they shall decide themselves. So it will be easier for you, and they will bear the burden with you.”

⁵³ John Mallison, *Mentoring to Develop Disciples & Leaders* (Lidcombe, NSW: Scripture Union, 1998), 28.

⁵⁴ David Atkinson, *BST- The Message of Genesis 1-11* (Downer Grover, Illinois: IVP, 1990), 71.

⁵⁵ *Ibid.* 133.

⁵⁶ *Ibid.* 154.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small groups within the larger community in order to be effective and efficient in God's work. With this advice, Moses becomes a spiritual mentor to Joshua, the two were always together and in this way Joshua was able to learn and spiritually grow by submitting under Moses. And through this discipleship, Moses' role of leading Israel was able to continue after his death through his disciple, Joshua.

2.1.2 New Testament⁵⁷

In this article, I am going to focus on small groups of the New Testament. Because the Early Church small groups and their leadership are very similar to current Christian community situations.

1) Acts

Acts provides many clues about small group of The Early Church. The Early Church described in the acts places great significance in the 'house gatherings' as it seemed to be an extension to how Christ ministered in homes as recorded in the four gospels. Acts starts with disciples gathered in an 'upper room' (Acts 1.13) and finishes with 'Paul's hired dwelling' (Acts 28.30) as if to say that without these houses (upper room and hired dwelling) church birth and expansion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1) Jerusalem (chap. 1-12)⁵⁸

In Acts, Luke records many churches who were gathering in their homes and houses. After Christ had ascended into the heavens, disciples came back from the Mount of Olives back in to the city of Jerusalem and were gathering in an upper room (1.13). Soon, the gathering grew that the whole house had to be used for the gathering. Afterwards, these house based gatherings in the Early Church seem to take a very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synagogue based assemblies. The Early Church records clearly separate assemblies at the synagogues and gatherings at homes. Assembly at the synagogue was a public gathering for all believers and gathering⁵⁹ at homes⁶⁰ seems to have evolved around table-fellowship (2.46). In the Early Church sharing a meal seems to be very significant and such table-fellowships were done at homes (2.46).

But as time passed, house gatherings matured in many ways. Even at home, they started to teach (5.42). In other words, even at house gatherings, they started to teach and preach. They were not just fellowships anymore. They were developing beyond teaching and maturing.

⁵⁷ Del Birkey, *House Church. A Model for Renewing the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8).

Birkey provides a concise summary of house churches in NT (40-65) and importance of historical and modern-day house churches (63-84). The organization of the book provided many insights for the research. Birkey examines house churches according to their locality but in this thesis, house churches will be examined according to their canonical appearance

⁵⁸ Byoung-Soo Cho, "Early House Churches as 'House Building' Churche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6, No. 1 (2008). Cho's view on the house churches was adopted.

⁵⁹ Usage of words as assembly and gathering is purely for distinction between fellowships held at two different premises. It is not academic category

⁶⁰ Wolfgang Simson,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Milton Keynes, Bucks, UK: Waynesboro, GA: Authentic Media, 2004) 40-1.

While recording the martyrdom of Stephen, Luke recorded briefly how Paul persecuted the church. Luke recorded how Saul ‘dragged off men and women and committed them to prison’ (8.3). Here, Luke is describing how Saul ‘entering the house’ of gathering is the very act of ‘ravaging the church.’ This is an important evidence that would support how the Early Church was formed with these house gatherings at the centre. The church being persecuted by Saul was indeed the church of Jerusalem (8.1).

The church in Jerusalem was made up of gatherings that took place in the houses, and it could be conjectured to say that these gatherings served similar purpose that of today’s small group. Saul’s act of ravaging these house gatherings was equivalent of ravaging the church in Jerusalem.⁶¹

An interesting incident regarding the small group is the conversion of Cornelius who was a centurion of the Roman Army. Even before conversion, Cornelius with all his household feared God. He invited Peter into his home (10.22, 30, 11.12) to listen to the gospel. Cornelius gathered together hi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10.24). Cornelius realised that the gospel was not just for himself but for his ‘entire household.’ (11.14). One can see that ‘entire household’ was stretched out to even to those who did not dwell in the house. It was an ‘extended family’ that was considered to be a church. They heard Peter’s preaching and accepted Christ, was baptised and formerly became Christians (10.48).

In Acts,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was indeed a place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in Jerusalem that in her decisive moments, this place was repeatedly mentioned. People gathered at this house fervently prayed for imprisoned Peter (12.12). This verse shows how the house of Mary was used in two ways.

First, it was used as a place for Christian gathering. Also it was house of great size as many had gathered to pray and fellowship. The ‘gateway’ and a ‘servant girl’ (12.13) supports this idea. And this was a house of prayer. Acts records, how this house became a place of secretive worship and prayer for the Early Christians as they faced fatal persecution for their faith.⁶²

Second, this house was one among many used as gatherings for the church in Jerusalem. Herod, in the hopes to destroy Jerusalem church, executed James (12.1), and arrested Peter (12.4). When the rest heard the news of Peter’s capture, the Jerusalem church started to pray (12.5). When Peter escaped from the prison with the help of an angel, he went to Mary’s house which would have been just one of many. It is believed that Christians numbered over three thousand, after the Pentecost (2.41). All of them could not have assembled under one roof, and when Peter asked his story of freedom to be told ‘to James and to the brother (12.17), it seems to imply that there were many other small group at different places.⁶³

⁶¹ Birkey, *House Church*, 40-1.

⁶² Sue Poorman Richards &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Nashville, TN: T. Nelson Publishers, 1999), 203.

⁶³ MacBride and Carlson, *How to Lead Small Groups*, 19; G.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 Grover, IL: IVP, 1994), 253.

(2) Mission to the Gentiles (chap. 13-28)

In Acts, Luke is even more so clear about the role of small group in the missions to the gentiles than about small group in Jerusalem. A great example is the story of Lydia. Lydia heard Paul's preaching in Philippi and accepted Christ. When she accepted Christ, 'her and her household' were baptised (16.15). It is not clear as to who was included in 'her household' but already one may say that her conversion meant a planting of another small group.⁶⁴ Later on, Lydia's house became a base camp for many apostles ministering to the city of Philippi. It was the headquarter of the Philippian Church and was a Mission centre. This is supported by the record saying when Paul and Silas was freed from their imprisonment, they went to Lydia to see other brothers and comfort them (16.40).

The fact that Paul viewed the act of ministering to the household as of great significance, can be seen in the conversation that he had with the jailor. Paul told him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16.31). He was not only preaching to the jailor but to the household (16.32). It goes to show that Paul was not only concerned with the individual conversion but was very much concerned with evangelising the whole family. Through this, Philippian Jailor and his household came to faith and was baptised (Acts 16.33, 34). It was another successful mission report for Paul through his ministry to the family.

Acts recorded many cases that a household and a family coming to Christ. When Paul was having a farewell gathering at Troas (20.7-12), the fact that a young man name Eutychus (v. 9) and youth (v. 12) attended implies his whole family attended. In other words, the gathering at Troas was like a united gathering of small group having Paul as the guest speaker. When Paul was route to Jerusalem, he visited Tyre (21.4-6). When he was leaving Tyre, disciples at Tyre 'with wives and children' (21.5) they farewelled Paul and his company. This is another testimony to how families at Tyre came to faith. Ultimately, it was through this proclamation of the gospel upon a family that planted 'family churches.' These 'family churches' (small group) were indeed the most basic and the centre piece of NT's view on the church.⁶⁵

Luke records how Paul valued the house gatherings as much as the assemblies at the synagogues. When Paul was preaching to the elders of the Ephesian church (20.18-35), he summarised his own ministry to be 'declaring' and 'teaching.' (20.20) Paul's unashamed declaration was indeed 'profitable' (20.20) and this declaring and teaching was done 'in public and from house to house.' (20.20) 'In public' would have been the greater gather, and 'from house to house' being at the house gatherings. One can easily come to a conclusion how Paul balanced in between these two modes of ministry.

2) The Pauline Epistles

⁶⁴ Birkey, *House Church*, 42.

⁶⁵ G.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 Grover, IL: IVP. 1994), 254.

Paul's letters, too, provide numerous evidences supporting the ministry of small group, almost comparable to Acts. Each epistle will be reviewed in their respective order in the canon.

(1) Romans

Romans 16 provides a vital clue to the ministry of small group in the Early Church. Romans 16 records stories of several house churches/ small groups.

1) It seems there are at least two local churches when Paul was writing this letter. First, there is church at Cenchreae. The Cenchreae Church seem to have a prominent servant (deaconess) who supported Paul and many others in their ministry. Phoebe was indeed a faithful ministry partner who served the church at Cenchreae (vv. 1-2). Another church would be the church at Corinth. Gaius' house became the gathering place for the church (v. 23).

Other than Paul's fellow worker Timothy, his kinsmen Lucius, Jason and Sosipater (v. 21), Tertius the scribe (v. 22), Eratus the city treasurer and brother Quartus (v. 23) seemed to form another community. Apart from these community of faith, Paul mentioned there are several more small group surrounding Rome (v. 4,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v. 16, all the churches of Christ). It can be said of such mentioning that Paul had all the local small group in his heart when he was writing the letter.

2) Paul uses the word 'to greet' 16 times in the chapter (vv.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He greets individuals, sometimes two and sometimes many at once. What is significant about this is that Paul seems to be greeting small group, even in Rome.

Supporting arguments for this would be the cases of following households.⁶⁶

First is the church gathering in the home of Prisca and Aquila (v. 5). They were native to Pontus but lived in Rome. When Claudius ordered all Jews to leave Rome, they lived in Corinth (Acts 18.2) then moved to Ephesus (Acts 18.18). They later returned to Rome. At Corinth, Paul met with the couple and settle down. Based at their home, he was able to do his 'urban ministry' in the city of Corinth. Paul with help with this couple was able to start up a small group in Corinth. Paul was able to support self through tent-making and also use the trade as a successful contact point to be fruitful in missions. This couple moved Ephesus with Paul and planted another small group (1Cor. 16.19). At Ephesus, they met with Apollos who later became a prominent leader of the church (Acts 18.26). When the couple finally reached Rome, they again started up a small group. It would almost seem that they were making way for Paul who had planned a visit to Rome. Prisca and Aquila seem very much committed to this church. They would even lay down their own lives, and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were grateful for them (v. 4). There is no doubt Prisca and Aquila was the most important mission base for Paul, and Prisca and Aquila did an excellent job at it.

Second, Paul greeted "the household of Aristobulus." (v. 10) He is said to be a family member of Herod. It is possible when he entered Rome with Christian slaves, Rome first had her dose of

⁶⁶ Birkey, *House Church*, 91-103.

Christianity. Herodion, mentioned in the next verse, is a Jew who had some affiliation with the house of Aristobulus (v. 11).

Third, Paul greeted “the household of Narcissus who are in the Lord.” It is saying that among the household of Narcissus, there were people of faith. When it says ‘household of ...,’ it is often referring to the members and people belonging to that name.

Fourth, Paul greeted Asyncritus, Phlegon, Hermes, Patrobas, Hermas and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with them (v. 14). Hermes and Hermas are names of mythological gods. It implies that they were either slaves or slaves who gained freedom. Many people of similar background belonged to small group.

Fifth, there was another church with Philologus, Julia, Nereus and his sister, and Olympas (v. 15). They were with other Lord’s people (v. 15). Nereo and his sister being part of this church testifies to this church having members from a family. Should Philologus and Julia be a couple, it furthers the point of this church being a gathering of families.

What is significant in Paul’s greeting is that there were apparent small group leaders in Rome. Second fact of importance is that these leaders formed the minimal unit of a church with their family at the centre. This is typical family church. Third, people visiting these family churches formed with them a small group. In the last two cases, it is quite certain that such family churches developed into small group. To Asyncritus, Phlegon, Hermes, Patrobas, and Hermas was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v. 14). To Philologus, Julia, Nereus and his sister, and Olympas was all the Lord’s people (v. 15). Brothers and sisters, Lord’s people are not just an indefinite few. They gathered at the houses of those who were clearly named to worship. They were visitors and guests of these small group. They, alongside with other leaders who were dear to Paul, had established small group at their homes. It shows how a family church has developed into a small group. Fourth, family churches and small group in Rome formed a great church in the region. This was the church in Rome (Rom. 1.7).

(2) Corinthians

Paul openly states how he baptised Crispus and Gaius (1Cor. 1.14). Crispus was a synagogue leader whose ‘entire household’ came to faith (Acts 18.8). This opens up the possibility of Crispus opening up his house for a gathering of small group. In other words, also in Corinth did many small group come together to form a church of Corinth. There were variety of gatherings. It supports the view how the local churches’ growth gave birth to small groups but numerous small group in a region gathered to form a larger church. It is then fair to say that small group preceded the birth of local churches. When small group had to decide on an issue of great significance or for the Holy Communion, it seems that

these churches will gather together. Such practice is recorded in the phrase, ‘the whole church comes together’ (1Cor. 14.23)⁶⁷

There is a clear evidence of small group in Corinth in the story of Stephanas. Paul baptised Stephanas and the household, which implies that another small group was planted (1Cor. 1.16). And Aquila and Priscilla’s house was also opened to a church (1Cor. 16.19).⁶⁸

(3) Galatians

Paul encourages doing good to ‘the family of believers’ (Gal. 6.10). This seems to be a special mentioning of encouragement to small group and family churches.

(4) Colossians

Paul in Colossians greets Christians not only in Colossae but in Laodicea and Hierapolis as well (Col. 4.13, 16). He specifically mentions the church gathering at Nympha’s house (Col. 4.15). Verse 15, seems to suggest that the Laodicean church was developed from the small group that met in the house of Nympha.⁶⁹

(5) Philemon

Considering that Philemon, a sister Apphia, and a soldier Archippus are one family, even in the letter to Philemon, we find evidences of small group. The church in Philemon’s house (v. 2) was a family church. The church added (vv. 5, 7) ‘the saints’ and grew into a small group. Since there is a link between Philemon and Colossians, the church in Colossae might have started from the family church of Philemon then, the small group, then into a local church.

(6) Thessalonians

Paul’s closing remark at the end of the letter to Thessalonians, ‘I put you under oath before the Lord to have this letter read to all the brothers’ (1Thess. 5.27) suggest there was a gathering of sort who were listening to this letter being read.

(7) Pastoral Epistles

Paul insisted that for someone to become a leader, ‘[managing] his own household well’ (1Tim. 3.4) is a crucial qualification. One may link this to managing a church gathering in one’s own household (1Tim. 3.12). And also when Paul was talking about aspiring to the office of overseer required well managing of house as ‘if some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household, how will he care for God’s

⁶⁷ John MacArthur, *The Body Dynamic* (Colorado Springs, CO: Chariot Victor, 1996) 89-90.

⁶⁸ Birkey, *House Church*, 43-4.

⁶⁹ *Ibid.*, 50-1.

Church?’ he would ask (1Tim. 3.5). He was convinced that a person who could not lead his own household could not lead ‘the household of God’ (1Tim. 3.15).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2Tim. 1.16; 4.19) is another family church. And the false teachers who were to be silenced (Tit. 1.11) were not only infiltrating a home and a family but a family church and a small group, upsetting them.

3) Johannine Epistles

In the three epistles, the church that John was part of (3John 1.6) and the church receiving (3John 1.9) the letter are mentioned. In the church receiving John’s letter were two leaders, Gaius – who supported John (3John 1.1), and Diotrephes – who opposed John (3John 1.9), seem to in position of leadership. In Gaius’ small group were ‘many friends’ including Demetrius (3John 1.15). With Diotrephes were his followers (3John 1.9). Interestingly, these two elders of the small group were at odds with one another regarding each other’s mission strategy.

As it is quite evident, family churches in the Early Church developed into small group. Family churches were the minimal unit of the Early Church. Family church is something that cannot be divided further. The Early Church in her local church form gained great influence through the foundation of having family churches. This is why many apostles went to great length to convert the whole household whenever they could. One may say that this led to the era of the Early Church being an era of small group.

Therefore from homes that developed into small groups then to churches,⁷⁰ the principle of small groups had an essential role in building the Early Church and having a global influence.⁷¹ Through this, the skill to teach, distribute and nurture amongst leaders arose naturally.⁷²

2.2 The Bible and Leadership

The Bible is rich with wisdom on leadership that it might as well be a manual for it. In this research, aforementioned four types of leadership will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very core of this thesis which is the leadership in small group. The mentioned leaderships are atypical of today’s society and rather is required of leaders in church. It is apparent as these leaderships are implied extensively in the Bible and yet in the secular theory of leadership, it is yet considered at their infant stage.

2.2.1 Servant Leadership

⁷⁰ Walter C. Wright, *Relational Leadership. A Biblical Model for Leadership Service* (Carlisle, Cumbria. Paternoster Press, 2000), 63-8

⁷¹ Floyd Filson,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House Church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58 (1939), 105–12.

⁷² Roger W. Gehring, *House Church and Mission: The Importance of Household Structures in Early Christianity* (Peabody, MA. Hendrickson, 2004) 201f, 210, 227.

The archetype of servant leadership can be found in Jesus (Matt. 20.26-28, 23.11; Mark 10.45). Should washing of disciples' feet be a climax in this demonstration of servant leadership, then crucifixion would be the grand finale to the saga.⁷³ Christ's life and teaching could be considered as the epitome of servant leadership.⁷⁴

Ken Blanchard by happenstance ran into the author of "Half Time," Bob Buford on a plane. Bob introduced Christ and Bill Hybels of Willow Creek to Ken. As Ken acquainted himself with Christ through Bob and Bill, he soon realised that Jesus was a true leader. And, with that discovery he wrote "Servant Leader Jesus."

What Blanchard had discovered is the servant leadership of Jesus Christ. He concluded that Jesus' leadership was all about serving. Blanchard had to change his perspective on leadership from vision casting and directing to a role playing. In other words, he started to ask whether a leader who casts visions and suggests directions or is one a leader who lives with the followers and equips them in process. Jesus was the latter. He believes that when everyone takes a page from Christ's leadership, an organisation or a corporation will thrive. He understood this to be the greatness of the servant leadership. With everything said, the servant leadership can be considered to be the very essence of what Christian leadership is.⁷⁵ When Christ interacted with people, he did not think about his winnings. On the contrary, he thought about their gain and profit.

That was Christ's service. As the servant leadership goes beyond any understanding, it bears the power to resolve conflicts and bring peace and harmony.⁷⁶

Examples of the servant leadership in the ecosystem of small group can be traced back to Mary, mother of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She is mentioned only once in the Bible (Acts 12.12). However, with this single mention, she gave sufficient evidence for her 'life of service.' Mary opened up her home to the rest and trained her sons to become leaders of the church. Her contribution is indeed of some significance if not more. She was also a sister of Barnabas, Paul's co-worker in Christ. As we can see, she committed her life and wealth to demonstrate a life of a servant leader.⁷⁷

Mary's home was also a place where Christ had visited.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her home was where Christ and His disciples had the last supper. Her service and faith, her servant leadership had provided a backdrop to the first ever Holy Communion.

Later on, this upper room was the very place of the miracle of the Pentecost, and became the historic origin of the Jerusalem church (Acts 2.2). For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Mary's home became a sanctuary and a place of worship. John who is also called Mark grew up in this environment

⁷³ J. D. Lundy, *Servant Leadership for Slow Learners* (Authentic Lifestyle, 2002), 45-6.

⁷⁴ Charles C. Manz, *The Leadership Wisdom of Jesus. Practical Lessons for Today*, 1st ed.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1998), 65.

⁷⁵ Gwang-Gun Kim, *Christian Leadership* (Seoul. Duranno Academy, 2010), 181.

⁷⁶ Alan E. Nelson, *Spirituality & Leadership. Harnessing the Wisdom, Guidance, and Power of the Soul*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2), 152-53.

⁷⁷ Sue Poorman Richards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Nashville, TN. T. Nelson Publishers, 1999), 206, 338-9.

where his home became the sacred ground of faith for the apostles and Christians of the Early Church. It is then only natural that he would then be influenced to become an influential leader in the church. Even slaves of that household became workers of the gospel. One can find a model of ‘servant leadership’ in her whom served many, out of sight. This may be the most idyllic model of leadership in small group.⁷⁸

Stephen A. Macchia claimed that the servant leadership is the essential leadership model for church that must be upheld.⁷⁹

2.2.2 Steward Leadership

Eliezer in Genesis is Abraham’s servant who bare a model of stewardship. He was favourite among many and was given the role of managing Abraham’s household. He was even assigned to an important task of choosing a wife for Abraham’s son, Isaac (Gen. 24.2-66).

Moses, too, was a steward of God’s house and he did so well (Num. 12.7).

These stewards of the Old Testament were foreshadowing of the true steward Jesus Christ. Jesus while living a life of a steward, he role-modelled the leadership of steward before His disciples (Luke 12.42-48). As mentioned before, the steward leadership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⁸⁰

First, a steward leader is a trustee. A leader who was given a special order by the Master, God. The Apostles of the New Testament were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1Cor. 4.1). And this mystery is none other than the Gospel. Paul, 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always had the pride of being called to this stewardship and considered him under obligation (Rom. 1.14). Should he not oblige, he knew that he would be in trouble (1Cor. 9.16).

Second, a steward leader is a protector of the Master’s wealth. Paul instructs Timothy to, “By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guard the good deposit entrusted to you” (2Tim. 1.14). The good deposit is the body of Christ and the Gospel. Pastors and small group leaders alike should keep to their ‘steward’ calling, keeping the church safe from assailing evil.

Third, a steward must be able to manage the Master’s wealth. Guarding the master’s wealth is being a half-hearted steward. Not only keep and guard, a steward should be equipped with wisdom and means to expand God’s riches. A steward then must be a manager. Growing (house) churches through propagation of the gospel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given to a steward leader.

Fourth, a steward should never forget there will be final accounting awaiting. When all is done, the Master will call upon all stewards to settle accounts. One who did not incur any profit will be thrown out and others who have will be welcomed (Matt. 25.14-30). A wise steward should be then faithful and also be mindful of fruits that he will bear. A leader must be effective.

⁷⁸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A Place Where Nobody Stands Alon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145.

⁷⁹ Stephen A. Macchia,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istic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9), 115-23.

⁸⁰ John R. W. Stott, *Calling Christian Leaders* (UK: Nottingham. IVP, 2013), 115-21. Both the servant leadership and the steward leadership is well summarised in the section.

Considering these aspects, small group leaders who have exercised such steward leadership in excellence were Apostle Paul and others leaders who built up The Early Church. Even before church took her form, they were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of the gospel.’ They guarded the gospel and spread it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nursed it to grow. They committed their lives and everything that they had. They were the superior leaders of small group.⁸¹

Macchia insisted that for a church to become healthy, ‘the steward leadership’ and ‘tolerance’ are necessary.⁸²

2.2.3 Shepherd Leadership

One can explain the Shepherd Leadership in terms of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Ps. 23.1) Here, shepherd is one who feeds and one who takes the flock out on to the pastures. LXX uses the word ‘ποιμαίνει’. It means to shepherd and minister. As it is obvious, there is a link back to the office of clergy.⁸³

Actually, in this half-a-verse, all the ministry that is required of a small group leader is implied. It implies that a leader must tend to each sheep and give it care and rest and provide for its need. When the flock is tired, when they are in despair, the shepherd must comfort and give them strength. This is done through leader leading the followers to a physically and mentally calming and secure place and then through instruction, rebuke, correction and training them in righteousness, giving them motivation and purpose in life. It also involves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an intimate relationship can be formed. One can compare the image of a shepherd leading a flock to a leader guiding a group of followers.⁸⁴

There are three permutation of a shepherd leading a flock. That is a shepherd leading at the front, in the midst and at the rear. In each case, there is a teaching moment on the topic of leadership.⁸⁵ First, when a shepherd leads his flock from the front, the flock follows in silence. The staff in the shepherd’s hand points to the direction, and it acts like a torch in the darkness. Second, when the shepherd is staying at the rear of the pack, he is letting the flock’s appetite take the lead. The shepherd then needs only to look out for a weak or an astray. Then the staff is a symbol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Third, when the shepherd is among the flock is in the midst of his flock, he is not a leader nor is he a manager. He is nothing but a companion. He is mingling among the flock and the staff in his hand symbolises the intent communicate.

⁸¹ John MacArthur, *The Body Dynamic*, 52-3.

⁸² Stephen A. Macchia,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10-3.

⁸³ Byung-Ho Sohn, *Pastoral Ministry Management Principle* (Seoul: Green, 1991), 21.

⁸⁴ Walter C. Wright, *Relational Leadership. A Biblical Model for Influence and Service* (Carlisle. Paternoster, 2000), 24.

⁸⁵ Calvin Miller, *Leadership. Thirteen Studies for Individuals or Groups, An Influencer Discussion Guide*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87), 101.

A small group leader must take all three positions when leading. Sometimes, a leader will be required to satisfy a member's need, listen to their cries and listen to their life's story. A leader is invited to take on the life beside each member and wrestle the life's issues with them.⁸⁶ The key component of the shepherd leadership is letting the followers know that the shepherd is with them.

Like the proverb's beseeching, "know well the condition of your flocks, and give attention to your herds." (Prov. 27.23) This is exactly what a leader should do. A leader must see to the hurt and wounded that they will be healed in the Good news of Christ and they will enjoy peace, joy and happiness in Christ.

As a small group leader exercising the shepherd leadership, the leader must be concerned with the spiritual growth of the group members. A leader must not purpose his own desire but aim for the maturity of others. Then the leader should encourage all to voice one voice, one heart, and one goal. As there are many parts of the body yet a single unit of body none the less (Rom. 12.4-5), the church must demonstrate unity. Third, a leader must guide the members to sincere worship. In the worship, the members will encounter God and be led to discern God's good, delightful and perfect will. The essence of the shepherd leadership is then leading the members to volunteer to live a life that is delightful and perfect in the eyes of God.⁸⁷

Paul and his co-workers were excellent in demonstrating the shepherd leadership. They led the flock in the Word. They taught most basic doctrines of Christianity and protected them from vicious attacks of Gnosticism. They who risked all to protect the rest were truly role-models of the shepherd leadership.⁸⁸

2.2.4 Mentor Leadership

Mentoring is not a word that you will find in the Bible. However, the concept and practice of mentoring can be the whole of the Bible. Mentoring was a life style that many characters lived out their lives.⁸⁹

In the Old Testament in the story of Jethro and Moses, one may find an example of administrative mentoring, in the story of Moses and Joshua, an example of leadership succession. In the story of Jonathan and David, it could be argued that mentoring can be done among peers. In other various relationship types as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 the story of Naomi and Ruth, in a relationship of apprenticeship in Elijah and Elisha, is another example.

Jesus in his ministry illustrated the mentor leadership. Christian faith is an imitative faith.⁹⁰ The life Christ has lived out on this earth is indeed something that all Christians should do their best to

⁸⁶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105.

⁸⁷ Rogers S. Nicholson, *Temporary Shepherds. A Congregational Handbook for Interim Ministry* (Bethesda, MD: Alban Institute, 1998), 88-93.

⁸⁸ Max E. Anders, *The Church. In 12 Lesson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Nashville, TN: T. Nelson, 1997), 79-81.

⁸⁹ Carson Pue, *Mentoring Leader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5) 13-5.

⁹⁰ Keith Anderson and Randy D. Reese, *Spiritual Mentoring. A Guide for Seeking and Giving Direction* (Downers Grove, IL: IVP, 1999), 19.

imitate. While he was with the disciples, He would often say, 'follow me.' It not only simplifies the Christian spirituality but becomes a biblical evidence for the mentor leadership.⁹¹

First, Christ gave a ministry pattern that is mentoring (Matt. 4.9-22).

Jesus always focused on an individual than on a crowd. Jesus' ministry started off one-on-one then to a small group. After He had accomplished all, while He was empowering the disciples, he met with them individually. During His three years of public life, Jesus mentored and nurtured the disciples. It is quite evident that Jesus' ministry scope started with an individual then to a small group.

Second, mentoring is about becoming true disciple of Jesus Christ (Luke 9.18-27, 14.25-35). Jesus carefully chose those to be disciples. Mentoring is not just ordinary decision making but it is about loyalty and commitment. There needs to be a mutual agreement between mentor and mentee for the mentoring ministry to flourish.

Third, mentoring is life-long equipping of disciples (Matt. 28.16-20).

After Jesus had nurtured disciples through mentoring, He finished up the ministry on earth by sending them out. Jesus trained them and then sent them forth into the world with a vision of the gospel reaching the ends of the earth (Matt. 28.18-20). With mentoring, one cannot expect certain result by the end of certain amount of time spent. Mentor needs to understand that it is a life-long haul that they are in together.⁹²

Fourth, mentoring is a ministry of comfort, encouragement, compliment and blessing (Acts 9.26-31, 11.22-28, 4.36).

As leader is at the centre of all ministries, same applies with the mentoring. When a church wishes to successfully start up a mentoring ministry, one of the foremost aspect that they must not compromise is who they select to be mentors. Mentors must be flawless in character, trustworthy and hospitable to all.

Fifth, mentoring is a ministry of reproduction (2Tim. 2.1-7). A model example of the mentor leadership in relation to small group is the mentoring relationship between Paul and Barnabas. This relationship later was expanded to other mentoring relationships like Barnabas and Mark, Paul and Timothy, Paul and Silas, and Paul, Aquila and Priscilla. Mentoring nears its completion when the mentee is able to mentor another. Their ministries were indeed house oriented that they could be easily called as leaders of small group.

Jesus chose disciples and gave them visions. He empowered them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To instruct, train and mature them in faith, Christ mentored them. By examining this case of Christ's ministry, all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entoring and the mentor leadership.⁹³

⁹¹ Jae-Suk Ryu, *Church Mentoring Success*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03), 76-81; Tony Dungy and Nathan Whitaker, *The Mentor Leader*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10). Dungy's book is a comprehensive book on the mentor leadership that reading through index would help get the concept.

⁹² Pue, *Mentoring*, 70-1.

⁹³ Darlene Zschech, *The Art of Mentoring. Embracing the Great Generational Transition* (Minneapolis, MI. Bethany House, 2011), 33-5.

There are other leadership types other than mentioned in this research. Power leadership, super leadership, transformative leadership, tyrant leadership, charismatic leadership, merciful leadership, relational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and extreme leaderships are just few to list.⁹⁴

In this research, what is considered most suitable for small group leaders are examined. Namely, the servant leadership, the steward leadership, the shepherd leadership and the mentor leadership. Biblical small group leaders do not necessarily prefer one to the other. There may be a combination of leadership styles that are demonstrated by a leader. This only testifies to his excellence as leader.

3. Variety of Modern Applications and Practices

3.1 Within Small Groups⁹⁵

1)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s “each other” appears over fifty times, this word is a key word in terms of community for example, loving each other, praying for each other, encouraging each other, greeting each other, serving each other, teaching each other, uplifting each other, bearing each other’s burdens, forgiving each other etc. Such activity from small groups develops the community and builds the church, this is seen through Ephesians 4.16. “from who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joint with which it is equipped, when each part is working properly, makes the body grow so that it builds itself up in love.”

Through this building of relationship, the essential factor is discipline is formed. A healthy, well-communicated relationship is key in discipleship⁹⁶

2) Small groups play a principal role in one’s spiritual growth. As stated in Hebrews 3.13, “But exhort one another every day,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that none of you may be hardened by the deceitfulness of sin.” It is important for Christians to protect one another and keep each other accountable from sin, and an essential way of doing this is through discipleship through small groups. Also, through Ecclesiastes 4.9-10,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ward for their toil. For if they fall, one will lift up his fellow. But woe to him who is alone when he falls and has not another to lift him up!”, small groups can be a place of uplifting in times of trouble, bearing each other’s burdens to conquer hardship. Through this spiritual growth, made possible through discipleship in small groups, the whole body of Christ is becomes greater and greater.

⁹⁴ J. Jackson and L. Bosse-Smith, *Leveraging Your Leadership Style* (Abingdon Press, 2011), 11-5.

⁹⁵ Rick Warren’s address to the families in Saddleback Church on why small groups are essential in our spiritual growth utilising the benefits of small groups combined with Bill Donoghue’s book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Korean Version, Seoul: DMI, 2004). 83-4.

⁹⁶ Jimmy Long (coordinator), *Small Group Leader’ Handbook. The Next Generation* (Downers Grove, IL: IVP, 1995), 133-5.

3) Proverbs 15.22 states “Without counsel plans fail, but with many advisers they succeed”, therefore in times of making important decisions, discipleship within the small group setting can provide advice, discernment and insight to help one to take a righteous path.

3.2 Small Group Leaders

In order to have the type of small group as mentioned above, the leader plays an essential role as the leader highly affects the small group’s quality and culture. During his ministry Paul the Apostle was a small group leader, although he made a living as a tent maker, not once did he build his identity on this, he was a leader that always referred to himself as a servant and missionary of God. He was a leader that disciplined each individual member of his small group and through small groups he fel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lanted several churches and expanded towards a revival.⁹⁷

Colossians 1.28-29 provides a model of Paul’s leadership and discipleship, “28 Him we proclaim, warning everyone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which we may present everyone mature in Christ. 29 For this I toil,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that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What different roles should today’s Church leaders in response to this?^{98 99}

- 1) Gatekeeper. Leaders should encourage that everyone contributes in the small groups discussions/activities and wisely ensure that no one becomes over-talkative for the sake of the other members.
- 2) Encourager. through affirmations, leaders should create an atmosphere of security and kindness.
- 3) Reflector. Leaders should be able to neatly summarise all the various ideas shared from discussions.
- 4) Listener. leaders should actively listen to the members and be able to respond in love.
- 5) Clarifier. Leaders should ask questions, draw out ideas, and explain things clearly.
- 6) Follower. Rather than making arbitrary decisions, through the sharing of opinions, leaders should follow the decisions made collectively by the group.
- 7) Standard setter. Leaders should constantly remind their members of the standards and rules to follow.
- 8) Consensus setter. In order to set a direction for the group, leader should be able to settle a consensus amongst the members.
- 9) Harmoniser. in times of conflict amongst members leader should be able to resolve conflict.

⁹⁷ F. F. Bruce, *NICNT-The Book of the ACT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301.

⁹⁸ This is the summary of an article from the *Korean Discipleship Journal* (Seoul DMI. 11/12. 1997), 67-8.

⁹⁹ Neal F. MacBride, M. Carlson.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0), 40-1.

- 10) Tension reducer. in times of tension, leaders should appropriately create an atmosphere of comfort and security.

Fulfilling all these roles would not always be possible through one church leader. Because of this, it is essential to disciple small group leaders who are able to specialise in certain areas of leadership so that there is a greater, more coherent growth of the Church. This corresponds with 2 Timothy 2.2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able to teach others.” Here, Timothy can be seen as a small group leader and the advice Paul gives to Timothy can be seen to have an ongoing effect in building the Church, as further small group leaders are to be raised up.¹⁰⁰

4. Ethical Concerns

- 1) As the leadership of small group leaders provides a very intimate atmosphere where personal issues are shared, there is a great concern in maintaining privacy. Breaking this trust can be very detrimental to the discipleship relationship as it can easily crumble everything that has been carefully built up.¹⁰¹ Therefore there is the ethical concern of privacy in the discipleship of small group leaders.¹⁰²
- 2) There may be times of financial difficulty on behalf of the mentee. In such times it is important that strict loans are not made within the discipleship relationship as it can lead to debt and conflict. Rather, the spiritual mentor should help through donations so there is no financial burden in the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the ethical concern of financial help in the discipleship of small group leaders.
- 3) As the discipleship relationship is an intimate relationship, there is also the ethical concern of sexual purity. This is an essential ethical issue and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discipleship should be between those of the same gender or in a group setting.

5. Evaluation of Effectiveness

¹⁰⁰ Mark Dover, *What is a Healthy Church?*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7), 107-8.

¹⁰¹ Carl F. George,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How lay leaders can establish dynamic and healthy cells, classes, or teams* (Mansfield, MA: Kingdom, 1997), 173-85.

¹⁰² Nathan W. Turner, *Leading Small Groups; Basic Skills for Church and Community Organizations*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96), 37-47.

In conclusion, there are various pros and cons on the discipleship of small group leaders in Christian communities.

Midst today's society of capitalism, privacy and social barriers, by reflecting the model of the Early Church, small groups and the devotion of small group leaders are able to soften and melt such barriers and provide a place of intimacy and a network where hearts can be shared.¹⁰³ They are also an effective means of evangelism for non-believers.¹⁰⁴ And in order for such small groups to continue and grow, small group leaders must be disciple.

By discipline small group leaders, small groups are able to help in the spiritual growth of its members as they provide an atmosphere of bible reading, mentoring, prayer and fellowship. This eventuates to the building of further leaders through small groups as members become more and more mature in their walk with God.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discipleship of small group leaders is don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enior pastor in order to maintain a coherent and united vision for the church. Such discipleship would create a greater synergy in the direction of the congregation and can more effectively build the Church.

And just as Jesus intentionally mentored His disciples for three years, in order to build the Church and see an effect, we must commit to our discipleship and leadership to a long-term basis.

Bibliography

1. Books

- Anders, Max E. *The Church: In 12 Lesson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Nashville, TN: T. Nelson, 1997.
- Anderson, Keith, and Randy D. Reese. *Spiritual Mentoring. A Guide for Seeking and Giving Direction.* Downers Grove, IL: IVP, 1999.
- Atkinson, David. *BST- The Message of Genesis 1-11.* Downer Grover, IL: IVP, 1990.
- Barker, Steve.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The Dynamics of Good Group Life.* Downers Grove, IL: IVP, 1985.
- Birkey, Del. *The House Church. A Model for Renewing the Church.* Scottdale, PA: Herald Press, 1988.
- Bruce, F. F. *NICNT- The Book of the ACT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 Collinson, Sylvia Wilkey. *Making Disciples; The Significance of Jesus' Educational Methods for Today's Church.* Carlisle: Paternoster, 2004.
- Dover, Mark. *What is a Healthy Church?*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7.
- Donahue, Bill & Robinson, Russ.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¹⁰³ Lyle E. Schaller, *The Small Membership Church. The Scenarios for Tomorrow*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44.

¹⁰⁴ *Ibid.* 78.

- Gehring, Roger W. *House Church and Mission. The Importance of Household Structures in Early Christianity*. Peabody, MA: Hendrickson, 2004.
- George, Carl F.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How lay leaders can establish dynamic and healthy cells, classes, or teams*. Mansfield, MA: Kingdom, 1997.
- Icenogle, G.W.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 Grover, IL: IVP, 1994.
- Jackson, J., and L. Bosse-Smith. *Leveraging Your Leadership Style*. Abingdon Press, 2011.
- Kim, Gwang-Gun. *Christian Leadership* [in Korean]. Seoul: Duranno Academy, 2010.
- Long Jimmy (coordinator). *Small Group Leader' Handbook. The Next Generation*. Downers Grove, IL: IVP, 1995.
- Lundy, J. D. *Servant Leadership for Slow Learners*. Authentic Lifestyle, 2002.
- MacArthur, John. *The Body Dynamic*. Colorado Springs, CO: Chariot Victor Pub, 1996.
- MacBride, N. F., and M. Carlson.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0.
- Macchia, Stephen A.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istic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9.
- Mallison, John. *Mentoring to Develop Disciples & Leaders*. Lidcombe, NSW: Scripture Union, 1998.
- Manz, Charles C. *The Leadership Wisdom of Jesus. Practical Lessons for Today*. 1st ed.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1998.
- McBride, Neal F.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3.
- Nelson, Alan E. *Spirituality & Leadership. Harnessing the Wisdom, Guidance, and Power of the Soul*.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2002.
- Nicholson, Rogers S. *Temporary Shepherds. A Congregational Handbook for Interim Ministry*. Bethesda, MD: Alban Institute, 1998.
- Pue, Carson. *Mentoring Leaders . Wisdom for Developing Character, Calling, and Competenc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5.
- Richards, Sue Poorman,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Nashville, TN: T. Nelson Publishers, 1999.
- Simson, Wolfgang.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Milton Keynes, Bucks, UK: Waynesboro, GA: Authentic Media, 2004.
- Sohn, Byung-Ho. *Pastoral Ministry Management Principle* [in Korean]. Seoul: Greein, 1991.
- Stark, David. Wieland, Betty Veldman. *Growing People through Small Groups*, Minneapolis, MI: Bethany House, 2004.
- Turner, Nathan W. *Leading Small Groups; Basic Skills for Church and Community Organizations*,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96.
- Ware, Corinne. *Connecting to God; Nurturing Spirituality through Small Groups*. An Alban Institute Publication. 1998.
- Westley, Dick. *Good Things Happen. Experiencing Community in Small Groups*. Mystic, CO: Twenty-Third Publications, 1992.

2. Journal & Articles

- Korean Discipleship Journal*, Seoul DMI. 11/12, 1997
- Cho, Byoung-Soo. "Early House Churches as 'House Building' Churches." [In Korean].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6, no. 1 (2008): 13-46.
- Collinson, David and Keith Grint. "Editorial. The Leadership Agenda." *Leadership* 1, no. 1 (February 1, 2005): 5-9.

아가서의 장르, 주제적 구조, 신학적-간본문적 해석

The Genre, Thematic Structure, and Theological-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Song of Songs

최영헌 교수
구약학

목차

1. 장르: 남녀 연애를 소재로 한 수수께끼-뮤지컬
2. 아가서의 주제적 구조
3. 아가서의 신학적-간본문적 (theological-intertextual) 해석
4. 결어

참고문헌

아가서의 장르, 주제적 구조, 신학적-간본문적 해석

Genre, Thematic Structure, and Theological-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Song of Songs

최영헌 교수
구약학

1. 장르: 남녀 연애를 소재로 한 수수께끼-뮤지컬

그 표제에 ‘노래 중의 노래 (히. 쉬르 핫쉬림)’ 곧 ‘최고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아가서는 구약 시편의 시들과 같이 시어체로 되어 있고, 시편들 중에 특히 45 편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아가서는 그저 하나의 노래 장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신랑과 신부 (혹은 연인) 외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도 있고, 신부의 오빠들의 말도 있고, 화자의 말도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물들은 행동하며 어떤 사건들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극적인 요소들이기에¹⁰⁵ 아가서를 일반적인 노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빨리 달리거나, 찾아 다니거나, 연 (가마)을 타고 가거나, 춤을 추는 대목들이 나옴으로 아주 동적인 전개를 보인다. 이런 동적인 것이 노래나 음악적인 것, 극적인 것과 함께 결합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를 ‘뮤지컬’이라 부른다. 나는 우선 아가서를 하나의 뮤지컬로 본다. 단, 이 뮤지컬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곤란은, 아가서 히브리 본문에는 어느 절이 누가 하는 말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작은 수수께끼’다.

한편, 이러한 작은 수수께끼 외에 ‘더 큰 수수께끼’가 있다. 그것은 아가서의 내용이다. 아가서의 내용을 훑어볼 때 우리가 가지는 일감은 이것이 ‘연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읽다보면 아가서는 단지 남녀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노래는 무엇인가 신학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듯하다. 즉, 아가서는 동식물 및 자연의 소재들을 빌어 남녀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들의 성품을 묘사한다. 그리고 연인 사이의 사랑의 행동/하나됨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전해준다. 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 같다. 이것들이 사실적인 묘사들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상징들과 은유들로 주어진 것들인지 모호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 아버지-아들의 관계성,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 맺으심 가운데서 일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암시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아가서에는 녹아 있다는 것이다.¹⁰⁶ 그러나 문제는 이 신학적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아가서는 읽어도 읽어도 풀기 어려운 하나의 ‘큰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¹⁰⁵ Michael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256ff. 반면 메릴 F. 영거는 “이 시에는 극본의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행동, 줄거리, 극적인 흐름이 없다”고 하였다. *구약개론* (Guide to the Old Testament), 엄성욱 옮김 (서울: 은성, 2000), 432.

¹⁰⁶ 참조.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2007), 121-62.

물론, 아가서의 내용 중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 구절도 있다.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예를 들어, 8:6-7 과 같은 ‘마살’¹⁰⁷을 보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떨시를 받으리라

이러한 지혜의 일반 유형인 마살¹⁰⁸이 아가서에는 있는데 우리가 아가서 전체로 눈을 돌려 보면 아가서는 지혜의 일반 유형이라기 보다는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지혜 유형 곧 보다 드문 지혜 유형인 ‘수수께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몇 절을 제외하고는 아가서는 대체로 풀리지 않는 암호처럼 다가온다는 것이다. 스바 여왕이 낸 난해한 문제 (수수께끼)들을 척척 풀어제졌던 솔로몬이 그것들 보다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낸 듯하다. 실로 이 지혜의 왕이 ‘노래들 중의 노래’ 곧 ‘최고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붙인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¹⁰⁹ 나는 아가서를 하나님께 지혜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연애를 소재로 작성한 수수께끼로 본다. 이것은 거의 오늘날의 뮤지컬 형태로 되어 있기에 필자는 그것의 장르를 ‘연애 뮤지컬-수수께끼’로 약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그야말로 ‘난해하기 짝이 없는’ 아가서에 대한 해석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필자는 유기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전체¹¹⁰를 이루고 있는 아가서의 주제들의 발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그 주제들을 통해 이 책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가를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 책의 메시지 이해와 직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¹⁰⁷ 필자는 마살을 ‘빗댄 지혜 말씀’ (a parabolic saying of wisdom)으로 정의하며 이를 지혜의 일반적 유형으로 본다. 최영현, “잠언 1 장 6 절 주해: 지혜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정의,” *신학과 상황* 2 (2015), 95-122.

¹⁰⁸ 참고. Barry G. Webb, *Five Festal Garments: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Song of Songs, Ruth, Lamentations, Ecclesiastes and Esther*,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series ed. D. A. Carson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2000), 29f. “Proverbs 5:15-19...The verbal links with the Song of Songs are striking; the words translated ‘drink’, ‘water’, ‘well’, ‘breasts’ and ‘love’ are all shared, and used in basically the same way. And the ‘loving doe’ and ‘graceful deer’ of this passage cannot help but call to mind the ‘gazelles’ and ‘does’ of the Song. Both deal with the delight of sexual intimacy which properly belongs within a covenanted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What is explicit in Proverbs is implicit in the Song, and what is enjoined by way of instruction in Proverbs is celebrated as an experienced reality in the Song. But the basic subject matter is the same, and it is noteworthy that Solomon, with whom both works are associated, is traditionally credited with composing both proverbs and songs (1 kgs. 4:32). Furthermore, we have observed how the Song moves into a typically didactic, wisdom style of discourse at its climax (8:6-7).”

¹⁰⁹ Ibid., 115. 수수께끼는 히브리어로 ‘히다’ (복수는 ‘히도트’). 아가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 ‘노래들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 의 한글의역이다.

¹¹⁰ 필자는 자료비평의 입장에 있지 않다.

다른 학자들의 아가서의 구조들에 대해서는 현창학 교수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¹¹¹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구조를 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구조 이해를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나는 여기서 그들의 견해들을 하나하나 평가하기 보다는 간단히 내가 보는 구조와 아가서의 신학적 의미를 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천차만별인 견해들을 논하는 것이 이 소논문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이해를 간단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아가서의 의미를 논할 때는 필자는 정경적 (간본문적)¹¹²-신학적인 시각을 가미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아가서가 많은 측면에서 신약의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의 내용들과 닮은 점들이 있는데,¹¹³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 신학적 사상이 아주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아가서의 주제적 구조

필자는 아가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각 단락은 주요 주제들을 지니고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서론 (1:2-8)에서 이러한 주요 주제들의 그룹이 나타나고 이들은 본론 부분에서 크게 확장을 이루고 (본론에는 두 개의 병행 단락, 1:9-3:11 과 4:1-8:7 이 있음) 마지막 결론 단락 (8:8-14)은 서론과 조응을 이루며 마무리한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서론

1:2-8 도입부 (기본 주제들을 선보임)

본론

A 완전 섹션 I 1:9-3:11 (아가서의 주요 주제들을 모두 포함)

A' 완전 섹션 II 4:1-8:7

¹¹¹ 현창학, “아가서 해석,” *신학정론* (2008), 83-124. 물론 도씨의 책도 참조하라: David A. Dorsey, *구약의 문학적 구조*, 유근상 옮김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3), 313, 각주 1.

¹¹² 우리가 정경으로 받은 신구약 66 권을 서로서로 참조하여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정경적’인데 나는 이를 ‘간본문적’ (inter-textual)이라는 용어와 교호적으로 사용한다. 즉, 역사비평을 그대로 수용한 차일즈의 정경적 접근과는 나의 정경적 해석 방법은 서로 다르다.

¹¹³ H. A. Ironside, *Addresses on the Song of Solomon*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6), 8f: “He [Our blessed Lord Jesus Christ] declared the Hebrew Bible to be the Word of the living God, and there are many figures from this little book in various parts of the New Testament; for instance, ‘the well of living water’ (John 4); ‘the veiled woman’ (1 Cor. 11); ‘the precious fruit’ (Jas. 5:7); ‘the spotless bride’ (Eph. 5:27); ‘unquenchable love’ (1 Cor. 13:8); ‘love strong as death’ (John 15:13); ‘ointment poured forth’ (John 12:3); ‘draw me’ (John 6:44); ‘the Shepherd leading His flock’ (John 10:4, 5, 27); and ‘the fruits of righteousness’ (Phil. 1:11). Who can fail to see in all these allusions to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의 주요 주제들을 모두 포함; 완전 섹션 I의 내용이 확장되고 발전됨)

a 불완전 섹션 I 4:1-6:3

a' 불완전 섹션 II 6:4-8:7

결론

8:8-14 종결부 (도입부와 *Inclusio* 를 이룸)

8:8-10 오빠들의 짓곳은 입담과 술람미의 응대

8:11-12 솔로몬의 포도원 관리 (해설자의 말)와 술람미의 자기 포도원에 대한 독백

8:13-14 코다(대단원): 도입부와 본론부를 압축, 함축적으로 요약

(솔로몬과 술람미의 애모의 부름)

그러면 어떤 주제들이 각 단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가. 먼저 서론에서 주요 주제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신랑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아름다움, 2)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연합의 암시,¹¹⁴ 3) 방해 (오빠들이 술람미를 노여워함-술람미가 괴롭힘 당함), 4) 포도원, 5) 만남에 대한 갈망 (찾아다님의 주제; 신부가 신랑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함, 신랑은 이 장소를 알려줌), 6) 양떼 (혹은, 양떼를 먹이는 장소). 기본적으로 이 주제들은 하나의 섹션을 이루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어서 보면, “아름다운 연인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방해 (괴롭힘)를 받으나, 서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 먹이는 곳’에서 만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도 갈망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스토리로 보면 이것이 기본 스토리라인인 것이다.¹¹⁵ 이것들을 도표로 만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 1) 신랑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아름다움	신랑의 ‘사랑’은 포도주 보다 맛고, 신랑의 기쁨은 향기롭고, 신랑의 ‘이름’은 향기롭고 같다고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신랑의 ‘사랑’과 ‘이름’은 그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암시한다. 즉,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들이 외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결국 인격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의 피부가 거론된다. 그녀의 피부는 검으나 아름답다고 묘사된다. 그녀의 피부가 검게 된 것은 그녀가 오빠들에게 모종의 시달림 (고난)을 당한 결과였다. 여기서 신부의 인격적 고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임이 암시된다.
주제 2)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연합의 암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4 절, 개역개정) 라는 말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연합을 짐작할 수 있다.

¹¹⁴ 아가서에는 연인간의 직접적 성적 결합은 암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Carr는 말한다. 서로에 대한 갈망은 강조되어 있으나 성적으로 하나된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David M. Carr, *The Erotic Word: Sexuality, Spirituality, and the Bible* (Oxford; 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15ff.

¹¹⁵ Cf. Ibid., 115. “[...] The rest of the book is unified by versions of this refrain (3:5; 5:8; 8:4), and many other parts of the Song parallel each other in wording and imagery. Also, the characters seem to stay the same, as we hear again of a female lover, a male lover, and the “daughters of Jerusalem.” Nevertheless, there is no clear plot or logical sequence. All attempts to create a specific drama from the Song of Songs have failed to gain consensus. Some of this may be caused by the author’s use of older love poems, some of which may be alluded to in Hosea and Deuteronomy. But the fractured sequence also keeps the audience from viewing the Song as a completely separate drama of love happening apart from them. This is not just two lovers acting out their own love story. Rather this book is an often illogical sequence of vignettes that offer multiple opportunities for readers to imagine themselves in the Song’s poetic world(s).” (필자의 밑줄)

주제 3) 방해/ 술람미의 괴롭힘 당함	위에서 말한 오빠들의 훼방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6 절) 즉,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오빠들은 여동생에게 화를 내고 그녀로 포도원을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피부는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포도원’ (피부)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피부가 검어진다고 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의 진면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 4) 포도원: 신랑과 신부의 관심	포도원은 비록 이 서론 단락에서 신부가 지키지 못한 어떤 것이었지만 (그녀의 피부인 것 같음), 그래서 그녀의 탄식의 이유가 되었지만, 이후에 포도원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2:15 처럼 신랑과 신부외에 타자 [여우]에게는 허용할 수 없는 사랑의 영역이든지, 7:12 처럼 실제 사랑의 장소든지) 그 포도원은 지켜야 할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맨마지막에 8:12 에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히브리 본문으로는 8:12 상반절)에 보이는 포도원은, 이 구절이 신부의 말이라면, 신부에게 속한 ‘신랑 자신’에 대한 은유로 보인다. 즉, 서론에는 방해꾼들 때문에 신부는 자기 피부 (포도원)를 건사할 수 없었지만 결론에는 신부는 자기 신랑 (포도원)과 온전히 연합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5) 만남에 대한 갈망	신부는 신랑에게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7 절)하면서 신랑의 친구의 양떼 곁을 너울을 쓰고 열정거리지 않도록 (유목민의 창녀처럼 오해 받지 않도록) 그가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한다. 신랑은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대답한다. 연인 사이에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여기에 보인다.
주제 6) 신랑과 신부의 관심: 양떼	신랑의 거하는 곳은 양떼를 먹이는 곳이다. 따라서 신부가 그가 있는 장소를 몰라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다 보면 신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신랑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다 (2:16, 6:2, 3)

이렇게 서론에서 나타났던 주요 주제들은 본문에서 다시 변화를 띠며 반복을 나타낸다. 본문은 두 개의 완전 단락들로 나누어진다. 곧 1:9-3:11 과 4:1-8:7 이다. 이 중에 후자는 두 개의 불완전 단락들 즉, 4:1-6:3 과 6:4-8:7 로 이뤄진 듯하다. 이 두 단락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둘을 합하여야 비로소 1:9-3:11 에 나타났던 주제들과의 온전한 조응 (주제들의 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1-6:3 에는 “포도나무 싹이 났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어미집”이라는 표현이 없고, 6:4-8:7 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있으나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결여되어 있다. 물론 전후자의 강조점도 다른데, 전자는 술람미의 향기나 그녀의 고난을 강조하고 (5:7) 솔로몬의 아름다움도 아울러 강조하며 (5:10-16), 반면에 후자는 신부가 춤을 추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 불완전 단락들을 합하면 주제들에 있어 1:9-3:11 의 주제들과 온전한 병행을 이룬다고 필자는 본다.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본론의 두 단락 간에 조응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라.

주제	본론 A 1:9-3:11 (완전단락) 두 개의 기본 유닛으로 구성 (1:9-2:7; 2:8-3:5)	본론 A' 6:4-8:7 (완전단락) 두 개의 불완전 단락으로 구성 (4:1-6:3; 6:4-8:7)
----	---	--

주제 1 과 2	술람미의 미, 솔로몬의 미, 사과나무 그늘, 그의 열매 달다, 사랑의 연합 암시 (1:9-2:6), 후렴(2:7)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2:16), 사랑의 연합;후렴(3:5)	술람미의 미, 같이 가자고 함, 술람미의 미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함) 특히 향기, 과일들 석류 (4:1-8) 솔로몬이 자기 동산(술람미)에 들어와서 포도주 등 마심, 사랑의 연합 암시, 친구들까지 초청 (4:9-5:1), 솔로몬의 미 (5:9-16), 변형된 후렴(5:8),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의 것(6:3)	술람미의 미 (6:4-10), 춤추는 술람미의 미(6:12-7:9), 나는 내 애인의 것 그가 나를 사모함, 시골로 가자함, 포도원 석류꽃에 관심, 거기서 내 사랑을 드리겠다(7:10-13) 오빠 같았다면, 내 어머니의 집, 향기로운 포도주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다, 사랑의 연합 암시(8:1-3), 후렴(8:4)
주제 3 과 5	언덕을 넘어 옴(2:8-15), 찾음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 (3:1-4), 돌아오라고 함 (2:17)	만남, 찾음, 고난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 (5:2-7), 찾음 (6:1-2)	
주제 4	새싹이 돋는 포도나무들 (2:8-15)		포도나무, 석류꽃 관심(6:11)
주제 6	양떼를 먹이는 솔로몬 (2:16)	그가 동산에서 양떼를 먹임, (6:1-3)	
추가주제 1	술람미의 어머니 집(사랑의 장소) 그녀를 임신한 곳 (3:4)		사과나무 아래 (사랑의 장소)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 해산의 진통을 겪은 곳 (8:5b)
추가주제 2	솔로몬의 가마(3:6-11)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 (8:5a)
추가주제 3	결혼식 날 솔로몬의 어머니가 씌운 면류관 (3:11)		인(옥새 ¹¹⁶)같이 품으라고 함, 사랑의 힘 (8:6-7)

위의 도표에서, 1:9-3:11 은 두 개의 후렴구 (2:7; 3:5)를 가지고 있어서 언뜻 보면 완전한 두 개의 섹션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후렴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면 각 단락은 일부 특정 주제들을 갖춘 문학 단위 (a literary unit)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아가서의 각 병행 단락에 나타나는 주요 주제들을 모두 갖춘 하나의 단락이 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유닛들 1:9-2:7 과 2:8-3:5 를 합함으로 아가서에 보이는 주요 주제들을 모두 가진 하나의 완전한 섹션을 갖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유닛’이란 불완전 단락 보다는 그 주제들의 수에 있어 더 적은 텍스트의 한 기본 단위로 본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위의 도표에서 4:1-8:7 이 하나의 완전한 단락을 이루는데 이 단락의 끝부분이 첫 완전 단락인 1:9-3:11 의 끝부분의 내용과 병행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끝에는 모두 술람미/솔로몬의 ‘어머니의 집’과 ‘광야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첫 완전 단락의 끝은 술람미의 어머니의 집이 나오고 그 어머니의 임신에 대한 언급 다음에 솔로몬의 가마가 광야에서 올라온다는 내용과 그의 결혼식 날에 솔로몬이 쓴 면류관 (면류관은 술람미를 시사하는 것 같음)이 나오는데 비하여, 둘째 완전 단락의

¹¹⁶ ‘옥새’라는 번역은 *쉬운성경* (서울: 아가페, 2002), 964 를 참조하라. 아가서의 번역은 최종태 교수의 것이다.

끝에는 솔람미의 어머니의 집에 대한 내용 (8:2),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 (솔람미)에 대한 내용,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고 해산의 진통을 겪은 사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가 언급 (8:5)되고 솔람미가 솔로몬에게 자기를 옥새(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언급 (8:6, 여기서 옥새는 솔로몬의 면류관과 동일한 의미론적 지반 위에 있는 물품으로 생각됨)이 나온다. 둘다 비슷한 주제들 곧 영광의 왕권을 시사 (솔로몬과 솔람미의 왕권 암시)하는 면류관과 옥새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본론의 두 병행단락인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사이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띈다. “솔람미 어머니의 임신”은 “솔로몬 어머니의 임신”으로 바뀌어 나오고, “솔람미 어머니의 집의 방 (사랑의 연합의 장소)”은 “사과 나무 아래 (사실, 2:3 에서 벌써 이 장소가 사랑의 장소로 암시되며 언급되었음)”로 바뀌며, “광야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은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로 변경되며, 또 이 내용들의 순서 (특히, ‘솔람미 어머니의 집 곧 솔람미 어머니가 임신한 곳→광야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의 가마’의 순서는 둘째 완전 섹션에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솔로몬의 어머니가 잉태하고 해산의 진통을 겪은 장소’로 도치됨)도 다소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두 단락의 끝마무리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본론은 8:8-14 로 대단원을 맞이한다. 우선, 8:8-10 은 솔람미와 오빠들과의 대화이며 8:11-12 는 8:7 까지의 사랑의 노래 이후에 나오는 현실적 내레이션 (지금까지는 마치 어떤 비현실적인 꿈 속의 사랑을 노래하다가 이제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줌; 다시 말해 해설)이다. 마지막 8:13-14 는 다시 앞의 비현실적인 시의 전체 내용으로 돌아가 솔로몬과 솔람미 각각 한 마디씩의 말로 서로를 향한 애모의 정을 표현하며 앞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 아가서의 몸체에 해당하는 노래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의 8:8-14 는 다분히 도입부와의 호응 (*Inclusio*)으로 이 책 전체를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되도록 의도한 내용이다.

마지막 단락도 신랑 (8:14)과 신부 (10 절)의 아름다움, 신부의 괴롭힘 혹은 놀림 당함에 대한 암시 (9 절), 연합의 장소¹¹⁷로서의 동산들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이고 정관사가 붙음; *the gardens*, 13 절), 신부의 신랑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 (14 절) 등의 주요 주제들이 보인다.

3. 아가서의 신학적-간본문적 (theological-intertextual) 해석

¹¹⁷ 연합 (성적 연합은 암시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의 방’ (1:4), ‘침상/집’ (1:12, 16), ‘잔칫집’ (2:4), ‘내 어머니의 집’ (3:4), ‘그 동산’ (4:16, 5:1), ‘자기 동산’ (6:2), ‘내 어머니의 집’ (8:2, 참. 3:4) 등을 참고.

그러면 각 단락의 이러한 주요 주제들은 어떤 언어의 옷을 입고 있는가. 첫째로는, 아가서의 주제들은 풍부한 은유와 직유와 상징으로 표현된다. 은유의 예는 2:1 에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보다”, 직유의 예는 1:3 에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1:5 에 “내가…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구나”, 상징의 예는 2:15 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의 예가 있다. 여기서 ‘작은 여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문맥이 남녀의 사랑이므로 여기서 포도원은 사랑의 연합의 영역(올타리)을 뜻하겠고, 작은 여우는 그 올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사랑을 훼방하고 파괴하는 존재를 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존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는 독자마다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상징법 (symbolism)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는, 주제들은 어떤 표상들을 통해 제시되는데, 어떤 하나의 표상이 다양한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7 에 ‘노루와 들사슴’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 동물들의 잘 놀라는 특성, 곧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황급히 도망치는 특성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7 바로 전에는 신랑이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신부를 안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사랑의 내밀한 연합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어서 7 절에는 이들이 바라기 전에는 어떤 방해요인을 제공하지 말라는 뜻으로,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는 표현을 시인이 사용하고 있다. 노루와 사슴이 놀라지 않을 만큼 조용히 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치 신혼여행을 간 부부가 호텔방 문고리에 “KEEP CALM AND DON’T DISTURB.” 팻말을 걸어놓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한편 2:17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의 ‘노루와 어린 사슴’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이는 빨리 달리는 특징이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깊이 연모함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이 크기 때문에 ‘노루와 사슴처럼 달려서’ 속히 상대방이 와 주었으면 바란다. 또한 한 가지 더한다면 이 동물들은 가만히 서서 응시하는 특징이 있다. 2:9 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¹¹⁸

¹¹⁸ 노루와 들사슴에 대해서 Carr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feminine gender of the Hebrew *love* (“until *she* is ready”) is important because the gazelles and wild does mentioned here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goddess figures in ancient Near Eastern art. This is demonstrated in a number of images that the scholar Othmar Keel has linked with this text, such as the Syrian cylinder seal in figure 9.3, on which copulating gazelles and a nursing doe stand alongside a goddess figure while she offers fruit to a royal figure; another Syrian cylinder seal in figure 9.4, on which a running gazelle is to the right of a disrobing goddess figure; and the goddess figure from pre-Israelite Canaan in figure 9.5, where a goddess breast feeds humans while gazelles feed around her pubic area. This does not mean that the book’s audience worshiped a goddess, though we now know that figures like Asherah and Ishtar were prominent in the worship of ancient Israel up to a remarkably late point. Perhaps the author of the Song of Songs merely assumed the audience would know of these associations between a largely abandoned goddess figure and these wild animals. In either case,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gazelles and wild does with the female-gendered love of the refrain might be paraphrased as follows: “I make you swear, by the signs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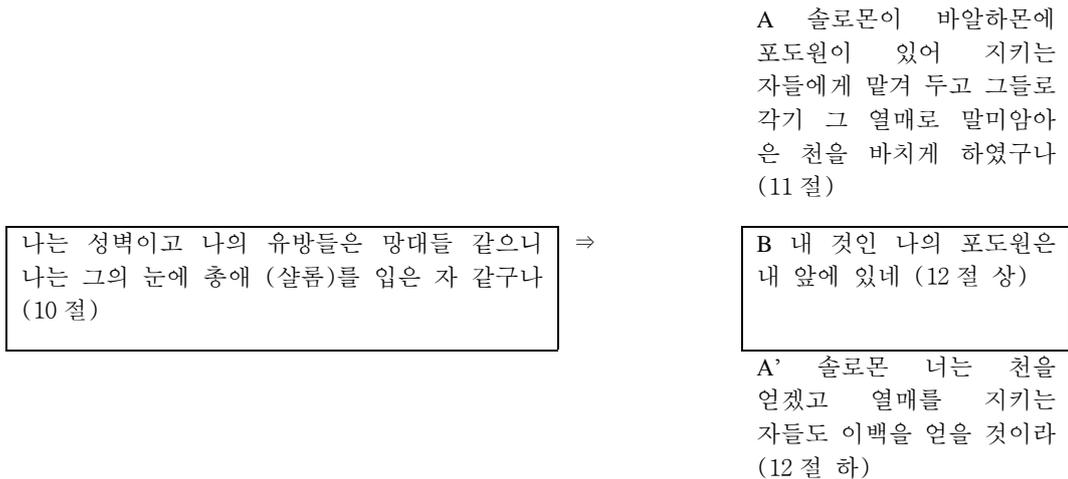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포도원’도 다양한 은유로 사용된다. 1:6 에 술람미는 오빠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여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아 피부가 햇볕에 쪼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 6 절 후반절에서 술람미는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탄식한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술람미가 자기의 처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나 필자는 지나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술람미가 오빠들 역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포도원을 지키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 포도원 (자기의 아름다운 하얀 피부)은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것으로 필자는 문맥을 고려해서 판단한다.¹¹⁹ 즉 여기서 자기 포도원은 자기 피부 혹은 자기 피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은유다. 한편, 7:12 의 포도원은 ‘연인의 만남의 장소’의 의미도 담고 있고, ‘자기 연인에게 주려고 하는 술람미 자신의 육체와 사랑의 마음 전부’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포도원이 연애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것은, 11 절에서 술람미가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고 말하고 있고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 포도원이 술람미의 육체와 마음 전부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라는 표현 때문이다. 포도원의 각양 귀한 열매들 곧 술람미라는 여인의 몸과 영혼 전체에 있는 귀한 것들이 곧 술람미의 연인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이 포도원을 물리적 만남의 장소 혹은 물리적 포도원의 포도들로 보는 데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8:12 의 표현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는 원문을 직역하면 “내 것인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네”인데 여기서 ‘나의 포도원’은 누구를 빗대고 있을까. 10 절을 직역하면, “나는 성벽이고 나의 유방들은 망대들 같으니 나는 그의 눈에 총애 (살롬)를 입은 자 같구나”인데 이러한 술람미의 말 다음에 바로 11-12 절의 중심에 놓인 구절 “내 것인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네”를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1-12 절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과 하에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조각인들을 두어서 포도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을

goddess, not to awaken or arouse love, until she is ready.” *The Erotic Word*, 113-15. 그의 이와 같은 해석은 참진리를 계시하는 구약을 마귀적-정욕적 모방인 고대 근동의 종교-문학 (신화)-예술 체계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필자의 밑줄;145 쪽도 보라). 자유주의적 비교종교학은 거의 이 노선을 따라가는데 이들은 참된 것의 카피 (근동의 다신론적 세계관 속의 신화들)가 마치 참된 것 (성경 계시)보다 앞선 것처럼 보는 어리석음을 늘 범한다. Carr 가 비록 성을 터부시하는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그 해석의 일면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건전한 성의 정당성을 되찾아 주기는 하지만 왜 참된 기독교가 그렇게 (성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해 조심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침묵한다. 그는 신-인 동일지평에서 신-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육적 사랑을 뒤섞어 버린다. 필자는 술람미 여자의 어떤 특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사할 수 있다고 보나 이 존재를 여자인간-여신으로 보는 견해는 절대로 배척한다.

¹¹⁹ “It furthers the brothers’ hostility in their act of placing their sister in the vineyard, where they know she will lose her fair complexion under the angry sun [...] Thus the female’s own body has not been cared for as would be appropriate for someone seeking love. She has not devoted herself to her physical appearance because her domestic tasks have not permitted it. Worse than that, they have actively contributed to a skin condition other than what she might have wanted.” Richard S. Hess, *Song of Song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ed. Tremper Longma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57.

10 대 2 로 분배하였다는 사실적인 내용 (필자는 이것을 상상 속의 솔로몬-술람미의 연애 뮤지컬에서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하는 현실적 이야기로 봄)이 해설자의 목소리 (나레이션)로 나타나고 중(가운데) 부분 “내 것인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네”은 여전히 상상 속의 이야기로 보인다. 11-12 절의 내용은 ABA’ 구조로 보인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읽기가 가능하다면, 의미는 다음 2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1 차적으로, “성벽에 망대들이 갖추어 있듯이 나는 아름다운 성년 여자로 이제 그 남자에게 사랑 (총애)을 받는 여자가 되었고…완전히 나의 것이 된 그 남자 (나의 포도원)는 내 앞에 있습니다.” 2) 2 차적으로는 12 절 상의 대화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시각인데, 술람미: “나는 성벽에 망대들이 갖추어 있듯이 아름다운 성년 여자로 이제 그 남자에게 사랑 (총애)을 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나의 소유인 내 포도원 (나의 여자)이 내 앞에 있구나!” 여기서 술람미는 아름다운 육체 (혹은 인격)와 유방들 (혹은 능력; 히브리어로 ‘좌다이’)을 갖춘, 신랑에게 평강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존재이며, 솔로몬은 그녀를 보며, 나의 것, 나의 포도원이라고 자신이 그녀에게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 표상 ‘포도원’은 이와 같이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한 표상이 신랑에 대해서도 신부에 대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1:13 “몰약” (myrrh)은 신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도 했고, 같은 단어가 4:14 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고벨화” (1:14; 4:13 camphor)나 “어여쁘다” (1:16; 4:7 fair)도 그렇다.

셋째는 아가서의 각 단락의 주제들이 물리적인 것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람의 인격적인 것, 나아가서는 신적인 (영적인) 것을 또한 시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 에는 솔로몬의 기쁨이 향기롭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서 솔로몬의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다”고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녀들 (알라못, virgins)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다. 즉, 여기서 솔로몬의 ‘이름’은 그의 인격의 어떠함을 보이는 표현이다. 또 예를 들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4:7-15 를 보라. 여기서도 그녀의 외모와 인격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너는 순전히 어여빠서 아무 흠이 없구나” (완전성),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매력),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사랑),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은혜로운 말),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감화력),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순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생명) 등이다. 여기서 완전성이나 사랑, 은혜의 말씀, 생명 등은 사실 이미 사람의 인격적 특성을 지나 신적 특성 (혹은, 영적 특성)까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 특성들 외에도 술람미가 나타내는 신적 특성들이 있으니 그것은 ‘유일성’, ‘완전성’, 그리고 ‘용사 (전사)’ 이미지다. 아 6:9 은 술람미의 완전성과 유일성을 보여준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녀를 칭찬하는구나” (6:9)¹²⁰ 그리고 이어지는 6:10 은 술람미가 지닌 용사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준다: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6:10) 술람미의 이런 특성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특성들을 떠올리게 된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불못에 던지시는 용사이시다. 특히, 6:10-7:9 에는 용사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술람미가 암미나디브¹²¹ (혹은 내 백성 귀인)의 병거들 (복수)에¹²²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아 군무 (軍舞)를 추는 모습이 보인다 (필자는 7:1 이하의 술람미의 춤을 군무로 봄). 여인들 중에 전쟁시에 사용되는 병거들(전차들)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술람미가 병거에 이토록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이하다! 먼저 술람미 여자는 독백을 한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낳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¹²⁰ 요한복음의 ‘모노게네스’와 비교. 요 1:14, 18 등.

¹²¹ 아 6:12 의 히브리 원문 (Westminster Leningrad Codex)은 : לֹא יָדָעְתִּי נִפְשִׁי שְׂמֵתִי מִרַבּוֹת עַמִּי-נְדָבִי : 이다. LXX 은 οὐκ ἔγνων ἢ ψυχὴ μου ἔθετό με ἄρματα Ἀμιναδαβ 로 번역하는데, LXX 의 번역을 위한 히브리저본이 암미나답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암미나디브를 LXX 번역자가 잘못 읽었는지 둘 중의 하나다. 7:1 의 히브리원문의 나디브 (귀인)를 LXX 가 고유명사 나다브 (혹은 나답 Ναδαβ)로 번역한 것도 참조할 사항이다.

¹²²쉬운성경 (최종태교수)은 6:12 를 “나도 몰래, 그가 어느새 내 백성의 귀한 병거에 나를 태우네.”로 번역 (필자의 강조). NASB 는 “내 귀한 백성의 수레들에”, 필자는 “내 백성 귀인의 병거들에”라고 번역, 즉 나디브를 내 백성과 동격으로 보고,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본다.

후원으로 내려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백성 귀인의 병거들에게로 이끌리었네.” 술람미가 병거들에 이르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춤을 추라고 재촉한다: “돌고 돌아라, 술람미 여자야, 빙빙 돌아라,¹²³ 우리로 춤추는 너를 보게 해다오”. 그러자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정녕 마하나임 (겹으로 친 진영, 혹은 두 패로 된 군대 포지션)의 원무 (메홀라; 圓舞¹²⁴)를 보는 것처럼 춤추는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참조. 러시아 군인들의 Cossac Dance¹²⁵)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춤추는 술람미 여자를 보며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하는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듯 술람미는 이 시에서 여자 목동 (참. 야 1:8)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는 목자일 뿐 아니라 왕인 것 같이 술람미는 여자 목동일 뿐 아니라 그녀는 이 시에서 ‘귀인 (나디브)의 딸 (7:1)’이라는 것이다. 술람미가 암미나디브 곧 내 백성 귀인 (여기서 귀인은 나디브)의 병거에 이끌렸으니 (6:12) 이 병거가 귀인의 병거라면 최고의 소재와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되고 더불어 술람미는 귀인 (나디브)의 딸이니 그 병거에 걸맞는 신분이 아닐 수 없다. “귀인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로구나. 그 여인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의 눈에 비친 술람미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며 그녀의 자태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인의 자태이면서, 또한 놀랍게도 그녀는 용사의 자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목과 코가 망대 (군사 혹은 전쟁 이미지)에 비유되고 있다.¹²⁶ 술람미가 이렇게 귀족이며 용사인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당신을 이와 같이 언급하신다는 것이다. 눅 19:12-27 에서 예수님은 므나 비유를 통해 당신이 귀족(12 절. 헬라어로, ἄνθρωπος τις εὐγενής; NASB a nobleman)이시며 또한 용사(심판주로서 대적자들을 죽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다. 27 절은 πλὴν τοὺς ἐχθρούς μου τούτους τοὺς μὴ θελήσαντάς με βασιλεῦσαι ἐπ’ αὐτοὺς ἀγάγετε ὧδε καὶ κατασφάζετε αὐτοὺς ἔμπροσθέν μου (But the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reign over them, bring them here and slay in my presence.)이다. 특기할 사항은, 예수님은 왕국 (12 절 개역개정은 ‘왕위’;

¹²³ 이것은 필자의 사역이다. 한글 개역개정을 비롯해 많은 번역들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로 번역하였는데 필자는 술람미 여자가 추는 춤은 군사들이 빙빙 돌면서 추는 춤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Roland E. Murphy, *The Song of Songs: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He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80 에서도 “Turn, turn, O Shulammitte; turn, turn, that we may gaze upon you!”와 같이 번역한다. 머피도 필자와 비슷하게 이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한다: שׁוּבִי (“turn”) can mean: “[do it] again” or “return.” It is hardly the word that would serve as an invitation to dance. Rather, the woman is asked to face the speaker(s).

¹²⁴ 히브리어로 ‘메홀라’는 round dance.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eds.,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85), 512-3. 출 15:20, 32:19; 삿 11:34, 21:21; 삼상 21:12, 29:5 등. 이를 ‘whirl dance’로 번역하는 사람은 Mayer I. Gruber, “Ten Dance-Derived Expressions in the Hebrew Bible,” *Bib* 62 (1981), 341-45; cited in Roland E. Murphy,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1990), 181.

¹²⁵ <https://www.youtube.com/watch?v=gqEtg34dSUo> 이 영상 자료를 볼 때 러시아 군인들은 두 진영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으로 나누어 무용을 과시하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 고대 이스라엘의 군무도 이러한 원무 형태를 취하되 아주 씩씩하고 날랜 동작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¹²⁶ 4:4 에도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1:9 에도 신부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빗대어 언급되었다.

헬라어로, βασιλεία)을 받아서 그 왕국을 다스리실 분, 곧 다시 오실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왕이심에 대한 언급도 여기서 물론 참조할 사항이다 (요 1:49; 18:37; 19:19).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왕이듯 솔람미도 왕 (귀인)이요, 이것을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가 왕이듯 아들도 왕 (요 17:2)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솔람미는 그녀를 위해 표현되는 언어들을 통해서 볼 때 물리적 (육체적) 특성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신적 (영적) 특성들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특성들 중에 완전성, 사랑, 은혜의 말씀, 생명, 유일성 그리고 전사 (용사) 이미지 등은 그녀가 가진 신적 특성들 (divine attributes)임에 틀림 없다.

한편, 솔로몬은 어떤가. 솔로몬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들을 분석해 보아도 이 세 가지 특성들, 곧 물리적, 사람의 인격적, 신적 특성들이 다 나타난다. 솔로몬은 우선 육체적 특성들이 있다 (5:10-16). 그의 피부 (희고도 붉어), 머리 (정금), 머리털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풀언덕), 입술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몸 (아로새긴 상아에 사파이어들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형상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 (심히 다니), 전신 (사랑스럽구나) 등에 대한 묘사가 5:9-16 에 보인다. 이러한 묘사들은 신체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황금은 신성을, 상아는 거룩과 순결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격적, 신적 특성들이 보이는데, 솔로몬은 우선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난다” (5:10) 이는 그의 탁월성 혹은 유일성을 시사한다. 3:6-11 에 보면 가마 (연)를 타고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이 보인다. 그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인격적 아름다움), “연기기둥처럼”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나게 함) “거친 들에서 온다.” 솔로몬의 연은 이스라엘 용사 중 60 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솔로몬에게 용사 이미지를 부여한다. 솔로몬은 “왕”으로 소개되고 (9, 11 절),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왕관을 씌웠다 (11 절).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를 깔았다 (성전에 좌정하신 여호와와 비교됨).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호와와 비교됨¹²⁷)

정리하면 아가서의 작중인물인 왕 솔로몬은 왕이신 여호와의 은유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에 보이는 여호와, 광야, 성막, 성막 재료, 성막 건조를 위한

¹²⁷ 예루살렘의 딸들 혹은 시온의 딸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의미하며 (참고. 사 3:7), 제유법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애 2:1)을,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구속 받은 이스라엘 곧 교회 (사 4:4)를 뜻한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 신자와 이방 신자로 구성된다.

이스라엘의 헌신, 구름기둥, 60 만 이스라엘 진 (군사적 편제) 등의 주제들이 차례로 솔로몬 왕, 광야, 가마, 가마의 재료,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연기기둥, 용사 60 명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변용(變容)되어 있다. 술람미처럼 솔로몬에게도 아름다운 인격(사랑,¹²⁸ 순수¹²⁹)과 더불어 신적 특성들이 있으니 곧 은혜로운 말씀,¹³⁰ 탁월성 (혹은 유일성), 용사 이미지, (성막 안에 계신) 왕=하나님 등의 특성들이 보이는 것이다. 술람미의 장식물이 금과 은이듯 (예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녀의 머리카락이 자주색이듯 (7:5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주색은 히브리어로 아르가만, 솔로몬의 가마는 금과 은으로 되었고, 가마의 자리에는 자색 깔개가 있었다 (여기서도 자색은 히브리어로 아르가만, 영어로 purple) . 구약에서는 금이 신성을 은이 구속을 자색이 왕권을 의미함은 잘 알려져 있다. 요 19:2 에 군인들이 예수님께 입힌 옷도 자줏빛 옷이었다 (헬. πορφουρον; 히. 신약 Habrit Hakhadasha/Haderekh (HHH)에 자줏빛은 아르가만).

솔로몬과 술람미의 특성들이 이렇게 유사하게 묘사된 것은 흥미롭다. ‘포도주’, ‘기름’, ‘향’이 두 사람의 인격적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똑같이 사용되었다.¹³¹ 포도주는 사랑의 기쁨을, 기름은 성령을, 향은 선한 감화력을 시사할 것이다. 솔로몬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5:12), 술람미의 눈도 비둘기 같다 (1:15; 4:1).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술람미’라는 이름도 그렇게 생각된다. 이 두 이름들은 서로 발음만 다르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어떤 동일한 것을 발음만 다르게 하는 말놀이 wordplay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필자는 솔로몬과 술람미가 같은 인격적 특성들을 지닌 다른 존재들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은 지나친 비약일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심사도 동일하다. 그들은 ‘양떼’나 ‘포도원’ (포도나무)에 관심이 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있는 곳을 술람미에게 알려줄 때 ‘양떼’를 언급한다. 1:8 에서 솔로몬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라고 말한다. 술람미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염소 새끼를 먹이다 보면 솔로몬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술람미는 여자 목동의 특성을 지니는데 7:1 은 귀인(나디브)의 딸로 나오는 것과 함께 볼 때 아가서에서 술람미는 ‘여자 목동-귀인’으로 소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이성은 솔로몬에게서도 발견된다! 1) 2:8-17 을 보면 노루와 사슴처럼 산을 달리는 솔로몬이 술람미의 집 창으로

¹²⁸ 5:16 중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¹²⁹ 5:11 상 “그 머리는 순금 같고”; 5:15 상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순금에서 ‘순’은 히브리어로 ‘파즈’ 곧 영어로는 fine 의 뜻이다)

¹³⁰ 5:13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5:16 상 “입은 심히 달콤하니”

¹³¹ 솔로몬에 대한 묘사는 1:2-4,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술람미에 대한 묘사는 4:10,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들여다보면서 술람미에게 “함께 가자”고 재촉한다. 이 재촉에 이어서 포도원의 여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 16 절에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말한다. 솔로몬이 양떼를 먹인다는 내용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상하다!¹³² 그리고 이러한 목자로서의 솔로몬 그림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내용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더욱 특이한데, ‘솔로몬=목자’ 주제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연합’ 주제의 연결은 뒤에서 한번 더 나타난다. 2) 즉, 술람미는 솔로몬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5:2-7) 결국 그를 발견하는데 그곳은 솔로몬의 동산이었다. 솔로몬은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2-3) 결론적으로, 술람미가 ‘여자 목동-귀인’의 이중성을 지닌 것처럼 솔로몬도 ‘목자-왕’의 이중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고 이 둘은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 (oneness)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되어 있다.

이제 ‘솔로몬-술람미-양떼’를 요한복음의 아버지-아들-교회’와 비교해 보자.¹³³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주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나온다. 요한복음에는 아들이 선한 목자로 나오며 그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물론 그 양들은 아버지 것이기도 하다 (요 17:10 상,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운데). 또 아들의 양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요 10:29). 따라서 아버지도 목자시요 아들도 목자시요 양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가서에서는 술람미가 말하기를 자기는 솔로몬에게 속하였고 솔로몬은 또한 자기에게 속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솔로몬은 [양떼]를 먹인다는 언급이 나온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아들의 기도가 나온다 (요 17:21, 22, 23). 또 위에서 보았듯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필자의 강조)라는 양들에 대한 언급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이 이어져

¹³² 이로 말미암아 3 인극설이 생기는 것이다. 즉, 주인공이 솔로몬, 목자, 술람미, 이렇게 3 사람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본다. 긴스버그는 이 주장이 자코비 (Jacobi, 1771)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Christian D. Ginsberg, *The Song of Songs and Qoheleth* (1857; reprint, with prolegomenon by Sheldon H. Blank, New York: KTAV, 1970), 87-8. 만약 3 인극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아가서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4 인극설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 뿐 아니라 솔로몬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자 목동인 술람미 뿐 아니라 ‘귀인 여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아가서는 4 인 주인공을 가진 씨나리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오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아가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왕-목자로, 술람미를 귀인-목동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각각 신분적인 특성 (왕/귀인)과 양떼에 대한 관심사 (목자/여목동)에 있어 동일하다고 필자는 본다. 최근의 3 주인공 해석은, C. 해슬 벌러, *시가서 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oetic Books: Revised and Expanded)*, 임용섭 옮김 (서울: 은성, 2010), 358ff.

¹³³ 비교. Andrew R. Evans, “Allusion to the Song of Songs in John’s Gospel and Revelation,” *Foundations* (2013). 에반스는 솔로몬-술람미를 예수님-교회로 본다. 그는 아가서와 요한복음 뿐 아니라 아가서와 요한계시록 내용 간에 텍스트의 관련성 (intertextuality)을 찾는다.

있다 (요 10:29-30). 따라서, 이런 평행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솔로몬 (목자)-술람미 (여자 목동)-양떼// 아버지 (목자)-아들 (목자)-교회.

아가서 외에 우리는 구약 다른 책들 속에서 솔로몬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얻는다. 우리가 그런 외적 정보들과는 독립적으로 아가서 자체가 묘사하는 솔로몬과 술람미를 보면, 이 둘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 관계에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한 둘다 신적 특성들을 구비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 보면, 아버지와 아들도 완전한 사랑의 연합 관계에 있으시고 또한 둘이 하나로 계신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심사는 양떼들 (혹은 포도원)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사도 양떼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뿐 아니라 아직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 10:16). 요한복음에는 포도원과 양떼의 이미지가 짙게 묘사되었고,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런 평행 관계도 성립한다: 솔로몬-술람미 사랑의 연합 관계 및 양떼에 대한 관심//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으로 하나이심 및 교회에 대한 관심.

여기에 하나 더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이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1:2); 술람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4:10)라는 기술이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1:12 에 “왕이 그의 상 (NLT, ESV 에서는 couch)에 [앉았을 때/ 혹은 누웠을 때] 나의 나드(nard 혹은 spikenard)가 향기를 발하였네”처럼 나드 기름의 향기가 오직 술람미에게서 발하여지는데 이 나드 (נָרְד)는 4:13, 14 절에도 술람미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보면, 이 나드는 12:3, 5 에 보이는데 한 근에 300 데나리온 짜리의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 마리아는 이 순전한 나드 *nárdos πιστικός* 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12:3). 한편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또 아들이 보내시는 분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5:16)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Westcott and Hort / [NA27 variants]) 이상 언급한 모든 내용을 삼위일체와 교회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아가서와 요한복음 간에는 다음의 병행 관계가 나타난다.

아가서

솔로몬 (기름이 향기로움. 1:2)

술람미 (기름이 향기로움. 4:10, 특히 술람미의 나드가 향기를 발함. 1:12; 참고. 4:14.

요한복음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심. 15:16)

아들 (아들이 성령을 보내심. 15:16, 예수님께 나드가 부어짐 및 그 향기가 가득함. 12:3, 5; 참고. 예수님의 장사에 몰약과 침향 myrr and

술람미에게서 나는 것들 중에 *물약과 침향들* myrr and aloes 이 있음: מֵר וְאַהֲלוֹת

aloe 을 섞은 것을 가져갔음 *σμόρνα καὶ ἀλόη* 19:39)

솔로몬은 술람미의 향품, 물약, 꿀, 포도주, 우유 등을 먹고, 또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함 (5:1)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 (16:13-14)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 의, 평강, 지혜, 거룩 등을 맛보게 하심.

한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솔로몬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술람미에게는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술람미가, 도입부와 결론부에서는 각각 오빠에게 괴롭힘과 시달림을 받고, 본론의 1 과 2 (본론 A 와 A')에서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에게 수난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본론 1 (본론 A)에는 3:3 에 솔로몬을 찾아다니던 술람미는 이 순찰자들을 만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묻는 대목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들로부터 수난 받는 대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병행단락인 본론 2(본론 A')에서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다니다가 그들에게 수난을 당한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겂옷을 가졌도다” (5:7) 솔로몬과 술람미 모두 신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고난 (핍박)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는 술람미 하나 뿐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19:1), (아마도 예루살렘 성안을 순찰하며 성벽을 파수하는 직임을 맡았었을)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 (19:3). 그들은 예수님의 (겂)옷을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위해서는 제비를 뽑았다 (19:23, 24).¹³⁴ 요한복음처럼 ‘유월절’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없다. 또한 오직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침례자) 요한은 두 번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36). 이로 보건대 술람미의 고난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수난을 연결시켜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두 사람 중에 고난 받는 사람은 술람미 혼자이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어머니의 잉태/해산’이나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어머니의 잉태/해산’ 주제는 3:4 와 8:5 에 보이는데 특히 8:5 는 어머니가 아기 솔로몬을 낳을 때 고생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잉태의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으신 성부와 성자에게 대입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장소인 ‘어머니의 집’은 곧 ‘잉태와 해산’의 장소인데 이는 하나님의 만유를 향한 지혜 (호크마)와 모략 (에차)이 아버지와 아들의 ‘심사숙고적’ 협의 (deep thoughts in the Father-Son’s counsel)에서 나와 ‘섭리 (providence)의 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임을 알리는 표현 같다는 것이다.

¹³⁴ See Susan Smith, “The Bride Stripped Bare: A Rare Type of the Disrobing of Christ,” *Gesta* 34 (1995), 126-46.

환언하면, 완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 계신 성부와 성자의 계획들과 그 실행들은 산모의 진통 (travail)과 같은 과정을 통과함으로 비로소 성취될 것 같다는 것이다.

‘광야’ 모티프도 이런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솔로몬의 가마도 광야를 통과하고, 술람미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광야에서 올라온다. 이 주제는 위에서 말한 술람미 (아들 예수님을 시사)의 수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수난 받음)과는 구분되는 것들로 보이는 반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왕이신 아버지-아들의 통치의 완성이 험한 과정을 통과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이 다 지나면 마지막에는 혼인날의 면류관이나 인 (옥새) 같은 영광의 통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들과 겸하여 필자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아가서가 저술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나의 추측은 이렇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었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기면서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이 있는 궁궐을 떠나 전원의 양떼들, 온갖 향기를 풍기는 식물들, 언덕을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들, 풀을 뜯어 먹는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혼자 남아 햇볕에 얼굴이 그을면서도 포도원을 지키는 시골 처녀를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자신과 술람미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연애 뮤지컬-수수께끼’ 형식으로 하나의 오묘한 신학시 (神學詩)를 지은 듯하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으나 ‘왕-목자-전사의 이미지를 가진 솔로몬’ 및 그와 똑같은 이미지를 가진 ‘술람미’를 등장시킨 작품을 저술한 듯싶다. 그 안에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마찰 (8:6-7)과 자기의 현실적인 정보 (8:11, 12 하)도 담았을 것이다. 그는 많은 여인들을 옆에 두고 사랑했으나 평생토록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지고한 사랑의 연합을 소망하며 이 글을 썼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솔로몬에게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과 하나이심 (연합), 하나님이심 (유일성, 완전성, 용사, 순수, 거룩, 생명, 사랑 등의 특성들을 지니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솔로몬과 술람미의 지고한 사랑 (연모의 갈망)과 그들의 양떼와 포도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묘사토록 하신 것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이해하도록 하되, 솔로몬과 술람미는 그 작품 속에서 신적인 사랑을 지시하지만, 작중인물들인 솔로몬과 술람미는 여전히 피조된 인간들이며, 그들의 사랑이 아무리 지고하다고 해도 또, 그들의 육체적 사랑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포함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면,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피조물의 수준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혈육이 아니라 영이신 측면을 우리는 언제든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셉의 삶의 어떤 특성들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지만 요셉을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셉은

아무리 의로와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연약한 죄인이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의를 지니신 하나님이니 예표론의 지평에서 요셉은 그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인간적인 견지에서 ‘남편과 아내’ (예. 호 2:16)로, 또 예수님과 교회를 인간적인 이해의 수준을 고려하여 ‘신랑과 신부/ 어린양과 그의 아내’ (계 21:2, 9)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인간적, 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 이런 이해에서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며, 신인합일의 신학이나 신인합일의 영성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처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과 연합을 성부와 성자간의 사랑과 연합으로 볼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신적 차원의 사랑과 연합으로 이해해야지 인간적-성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결어

필자는 아가서의 장르에 대해 간단히 상고한 후 이 책의 주제들을 조사하였다. 필자는 아가서를 공통된 주요 주제들 (6 가지로 봄)을 가진 네 개의 병행단락으로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아가서의 해석¹³⁵을 시도하였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역사상 나타나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수수께끼-뮤지컬’ 장르로 저술한 작품의 *작중 인물들*임을 필자는 추정한다. 이런 추정의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왕일 뿐이어야 할 솔로몬이 아가서에는 동시에 목자로 묘사되어 있으며, 시골의 여자 목동일 뿐이어야 할 술람미가 이상하게도 귀인의 딸로도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귀족인 술람미라면 그녀가 들판에서 햇볕에 얼굴이 그을러 가면서 포도원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것은 아가서가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작품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아가서가 기본적으로 작품 (하나의 수수께끼)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솔로몬과 술람미는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술람미는 고난을 받는 점에서 솔로몬과 다르지만, 둘은 결국 같은 속성들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즉, 나는 이 둘이 실존 인물들의 투사일 수는

¹³⁵ 이 논문에서 필자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안이다. 아가서 자체의 내용과 신약 특히 요한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인 것이다. 필자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회가 솔로몬과 술람미를 각각 예수님과 교회로 보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술람미가 가진 유일성, 완전성, 생명성 같은 신적 성품 (divine nature)을 곧장 교회에 대입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긴다 (아직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천상 교회도 그 자체가 생명의 수여자는 아님; 교회는 왕의 통치에 참여하나 왕은 아님; 비록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나 나드 향을 부음 받은 분은 예수님이시 교회는 아님). 또한, 솔로몬이 예수님이요 술람미가 교회라면 왜 솔로몬이 아닌 술람미가 수난을 받는가. 솔로몬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지시한다면 솔로몬의 수난 받음이 아가서에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

있으나 이들이 고도의 신학을 전달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작품화된 인물들이라고 본다 (세 인물 이론은 큰 오해).

아가서는 왕과 귀인의 고귀한 지위를 가진 솔로몬과 솔람미의 지극히 순수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갈망과 연합, 솔람미의 고난, 목자들인 그들의 양떼에 대한 관심, 광야를 통과하여 영광으로 나아감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솔로몬과 솔람미에게는 육체적 특성들 외에 인간의 인격적,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신적 특성들이 가미되었으며 신적 특성들로 보건대 아가서 텍스트 속의 솔로몬과 솔람미는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를 각각 지시하는 것 같다 (한편, 시 45 편의 왕과 여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예시).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을 끝이끝대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특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로 대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해석은 옛날의 나이브한 알레고리 해석으로 돌아가는 꼴이 될 것이다.

‘왕-목자’ 주제는 구약의 미가, 에스겔, 시편, 스가랴 등에 보이고 신약에는 마태복음에도 보이는 것이나 필자는 특히 아가서의 많은 내용들을 요한복음과 관련시켜 보았다.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과 동등하심, 그리고 왕-목자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관심, 아들의 고난 받으심,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성령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음으로 교회의 파라클레토스로 계심, 용사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세상에 대한 심판과 영광 받으심 등을 드러내는데 필자는 이것들을 아가서에 예시된 신학사상의 구체화요 성취로 본다. 한편, 이러한 해석적 시도에 있어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랑이 선하고 거룩하기는 해도,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직접 대입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HS

ESV

Greek New Testament. Westcott and Hort. NA 27 variants.

HHH (Habrit Hakhadasha/Haderekh)

LXX

NASB

NLT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2007): 121-162.

벌릭, C. 해슬. *시가서 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oetic Books: Revised and Expanded)*.

임용섭 옮김. 서울: 은성, 2010.

영거, 메릴 F. *구약개론 (Guide to the Old Testament)*. 엄성옥 옮김. 서울: 은성, 2000.

최영현. “잠언 1장 6절 주해: 지혜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정의.” *신학과 상황* 2 (2015): 95-122.

최종태. “아가서.” (한글 번역) in *쉬운성경*. 서울: 아가페, 2002.

현창학. “아가서 해석.” *신학정론* (2008): 83-124.

Carr, David M. *The Erotic Word: Sexuality, Spirituality, and the Bible*. Oxford; 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orsey, David A. *구약의 문학적 구조*. 유근상 옮김.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3.

- Evans, Andrew R. "Allusion to the Song of Songs in John's Gospel and Revelation." *Foundations* (2013).
- Fox, Michael V.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Ginsberg, Christian D. *The Song of Songs and Qoheleth*. 1857; reprint, with prolegomenon by Sheldon H. Blank, New York: KTAV, 1970.
- Hess, Richard S. *Song of Song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ed. Tremper Longma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https://www.youtube.com/watch?v=gqEtq34dSUo>
- Ironside, H. A. *Addresses on the Song of Solomon*.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6.
-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eds.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85.
- Murphy, Roland E. *The Song of Songs: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Hemen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Smith, Susan. "The Bride Stripped Bare: A Rare Type of the Disrobing of Christ." *Gesta* 34 (1995): 126-46.
- Webb, Barry G. Five Festal Garments: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Song of Songs, Ruth, Lamentations, Ecclesiastes and Esther.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Series ed. D. A. Carson.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2000.

전도서의 구조와 메시지

임바울 교수
구약학, 기독교영성

목차

1. 서론

2. 기존 학자들의 구조 분석 견해

2.1 라이트(A.G. Wright)의 견해

2.2 콘스태이블(Thomas L. Constable)의 견해

2.3 김윤아의 견해

2.4 최영헌의 견해

2.5 권오윤의 견해

3. 필자의 구조 분석에 대한 견해

4. 결론

참고문헌

전도서의 구조와 메시지

임바울 교수
구약학, 기독교영성

1. 서론

히브리어 קהלל 코헬렛의 어근인 קהל은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헬렛은 모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맥상으로 코헬렛이 모으는 것은 격언이거나, 지혜를 구하는 회중이 될 수 있다. 개역성경에서는 코헬렛을 전도자로 번역하여 이 책의 제목은 전도서로 붙여졌다.¹³⁶ 또한 코헬렛은 ‘카할’(집합시키다, 소집하다)에서 유래한 말로 “회중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이거나 “지혜를 수집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자”¹³⁷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명칭 그대로 지혜가 담긴 잠언의 수집물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가르쳐주는 설교집이다. 더욱이 성경에서 지혜문학에 속하는 전도서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생에 대한 신학적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성경 내에서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숙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책이다. 전도서는 학자의 수만큼, 또한 역사에 존재하는 해석의 시대 수만큼 많은 수의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도서처럼 시대와 시대 사이에,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책이 없을 것이다.¹³⁸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도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학자들의 다양한 구조 분석에 대한

¹³⁶ 위키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전도서>

¹³⁷ 윌리엄 P. 브라운, *현대성서주석 전도서*, 채은아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61-2.

¹³⁸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수원시: 합신대학교 출판부, 2012), 140-1.

견해와 메시지를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다룬 기존 연구 중에 가장 잘된 구조 분석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메시지를 수정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전도서의 전체 메시지뿐만 아니라 세부 단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학자들의 구조 분석 견해

본문의 구조는 저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작업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일치되는 견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1 라이트(A.G. Wright)의 견해

라이트는 구조를 정하는 수단으로서 반복과 상용어구 그리고 수비학적(數秘學的) 요소를 사용했다. 수비학적인 양식을 기준으로 전도서를 구조 분석한 라이트의 독창적인 주장은 돋보이는 연구로 인정받았다. 라이트는 전도서 구조의 핵심은 1 장 12 절-11 장 6 절의 축어적 반복을 이루는 세 가지 연속적인 양식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라이트는 핵심 구절을 기초로 전도서를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내용을 세분한다.¹³⁹

1. 여느 학자들처럼 표제와 서언(1:1-11), 그리고 결언(12:9-14)을 인지함

2. 핵심 구절을 기초해서 책을 두 개의 주요부로 나눔

A. 전반부 (1:12-6:9):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짐

서론: 1:12-15, 1:16-18 의 두 개 서론

1) 2:1-11

2) 2:12-17

3) 2:18-26

4) 3:1-4:6

5) 4:7-16

6) 4:17-6:9

각 부분은 “헛되다” 그리고/또는 “바람을 잡는다” 로 끝남

B. 후반부 (6:10-11:6):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

1) 6:10-8:17

서론: 6:10-12

¹³⁹ Ibid., 160-4.

(1) 7:1-14

(2) 7:15-24

(3) 7:25-29

(4) 8:1-17

“파악할 수 없다” / “누가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구로 구분되는 4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락인 8:17 에는 “파악할 수 없다”가 세 번 반복된다.

2) 9:1-11:6

(1) 9:1-12

(2) 9:13-10:15

(3) 10:16-11:2

(4) 11:3-6

“알지 못한다”라는 구로 구분되는 4 개 단락으로 이루어짐. 마지막 단락인 11:5-6 에는 “알지 못한다”가 세 번 반복됨

3. 최종적으로 젊음과 노년에 대한 시(11:7-12:8)가 나온 후, 결언(12:9-14)이 이어짐.

구조 분석의 기준을 반복되는 어구 형식에 비중을 둔 라이트의 견해는 전체 내용의 주제적인 연관성과 주제적 발전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흡족하지 못하다. 라이트가 핵심구절을 중심으로 찾은 구조는 대체로 잘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지 못한다”라는 핵심구절은 그가 제시한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출현 횟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그보다 앞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라이트의 구조 마지막 단락(9:1-11:6)에서는 문단을 나누는 역할을 맡았던 구절이 그 밖의 부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은 문단을 구분하는 핵심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헛되다’와 ‘바람을 잡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핵심구절은 첫 번째 단락 내에서도 문단 중간에 여러 번 나타나고 나머지 단락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헛되다’와 ‘바람을 잡는다’의 구절을 문단 구분에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라이트의 구조 분석은 일정한 구절의 반복이라는 형태 중심의 구조 분석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면은 있지만, 엄밀한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위적 분석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¹⁴⁰

이튼(M.A. Eaton)은 라이트가 제시한 핵심구절에 의해 분할한 단락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회의론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¹⁴¹ C.L. Seow 도 이러한 라이트의 구조 분석은 자세하지 않으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구조를 찾기 위해 수비학적 양식을 입증하거나 수학적 정확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¹⁴²

2.2 콘스태이블(Thomas L. Constable)의 견해

¹⁴⁰ Ibid., 163.

¹⁴¹ M. A. Eaton, *Ecclesiastes* (Downer Grove: Inter-Varsity Press, 1983), 49.

¹⁴² C.L. Seow, *Ecclesiastes*,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46-7.

콘스태이블 박사는 그의 전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를 나누고, 그 구조에 대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다.¹⁴³

- I. The introductory affirmation 1:1-11
 - A. Title and theme 1:1-2
 - 1. The title 1:1
 - 2. The theme 1:2
 - B. The futility of all human endeavor 1:3-11
- II. The futility of work 1:12—6:9
 - A. Personal observations 1:12—2:17
 - B. General observations 2:18—6:9
- III. The limitations of wisdom 6:10—11:6
- IV. The way of wisdom 11:7—12:14
 - A. Joyous and responsible living 11:7—12:7
 - B. The concluding summary 12:8-14

콘스태이블 박사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도서의 주제가 다양한 인간 노력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특이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전체적인 진술은 긍정적이다. 즉 솔로몬은 인간노력의 궁극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인생을 가장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서 12:13 은 잠언 1:7 과 3:5-6 의 구절(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과 매우 유사하다. 욕기와 잠언과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필수 전제 조건인 것이다. 전도서와 잠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도서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노력의 한계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솔로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였다. 왜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해 아래 모든 것이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전도서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궁극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전도서 1:2 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 그는 전도서 1:3-11 에서 자연으로부터 예를 들어 주제를 보충 설명한다. 다음에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통하여 그의 주제를 설명한다. 그는 먼저 이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들을 제시한다(1:12-2:17).

¹⁴³ Thomas L. Constable, *Notes on Ecclesiastes* (Sonic Light, 2013), 4-6: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관찰될 수 있는 사실들을 통하여 동일한 결론을 확인한다(2:18-6:9). 그리고 난 후 솔로몬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려주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6:10-11:6). 그는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의도는 꼭 실현된다는 실증적 증거들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들을 보충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가능한 인생을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1:3-11:6 에서 증명된 주제의 진정성에 이르는 솔로몬의 실질적 결론인 것이다. 죽음이 다가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인생을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다(11:7-8). 우리는 청년 시절을 즐겨야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11:9-10). 더욱이 노년이 다가옴으로 청년시절을 책임 있게 보내라는 것이다(12:1-7).

셋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12:13).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하면 무기력한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콘스테인블은 전도서의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3 김윤아의 견해

김윤아는 인간 노력의 한계 및 인생의 부조리와 이에 대한 해법과 지혜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전도서의 대안적 구조 분석을 하였다.¹⁴⁴

- 도입 (1:1)
- A. 인간의 노력의 한계(개인) (1:2-2:23)
- B. 인생 허무의 극복 (2:24-3:22)
- A'. 인생의 불평등(사회) (4:1-16)
- B'. 인생의 절대 목적 (5:1-5:7)
- A''. 인생의 부조리(우주) (5:8-6:12)
- B''. 인생을 사는 지혜 (7:1-11:8)
- 결언 (11:9-12:14)

김윤아는 1 장 1 절 도입 이후, 본문들을 여섯 개의 단락들로 구분하고 전도서를 크게 칠 중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A 와 A', A'' 는 인생 허무의 모습을 종합적이며 점진적으로 서술하고

¹⁴⁴ 김윤아, 구조로 읽어내는 전도서의 메시지: <http://www.koreatheology.or.kr/view.html?id=4111>

있으므로 주제적 연관성으로 묶을 수 있으며 B와 B', B'' 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묶을 수 있다. 인생의 진단에 해당하는 단락들인 A와 A', A'' 에서는 각각 주제적 발전을 엿볼 수 있다. A 단락이 개인의 체험에서 획득한 인생의 허무에 대한 진술이었다면, A' 단락에서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부조리로 확장되고, A'' 단락은 더 나아가 해 아래 세상 자체가 영원히 헛되다는 데까지 도달한다.

B와 B', B'' 에서도 역시 주제적 발전이 나타난다. B 단락에서 인간의 실상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면, B' 단락에서는 신앙 전반에 걸쳐 습관적이고 세속화 된 신앙인에게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고, B'' 단락에서는 하나님 밖에서의 세상에 얽매이면 모든 것이 덧없어지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허망함을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함을 암시해 준다.

최영헌의 견해

최영헌 교수는 지혜서 강의자료 주제별 전도서의 구조 이해와 영문 강의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¹⁴⁵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표현이 3:14, 5:7, 7:18, 8:12-13, 12:13 에 나타나는 데, 이는 잠언과 욱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 부분의 종결하는 구절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각 섹션(단락)의 종결 구절에 나타나는 5:7, 8:12-13, 12:13 의 주제는 ‘공의’(5:8, 12:14)나 ‘하나님의 명령’(8:11), ‘장수’(8:12-13) 등의 구절과 인접하여 있다. 또한 소 단락의 종결 구절에 나타나는 3:14, 7:18 의 주제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3:11, 7:13-14)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최영헌 교수는 전도서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먼저 나누고, 추가로 섹션 I의 소 단락은 3:15 과 섹션 II의 소 단락은 7:18 에서 다시 나눈다.

Section I (A 1:2-5:8)

1:2-11 전체 도입 부분 (1:2 모토)

1:12-5:8 The first statement of life (*5:7)

Section II (A' 5:9-8:13)

5:9-8:13 The second statement of life (*8:12, 13)

Section III (A'' 8:14-12:14)

8:14-12:7 The third statement of life

12:8-14 전체의 결론 (12:8 모토의 반복) (*12:13)

* 별표는 ‘하나님 경외’를 나타냄

¹⁴⁵ 최영헌, “주제별 전도서의 구조 이해,” *지혜서 강의자료* (2013. 10. 25); *영문강의자료*(2012. 3. 5), 26-8.

최영헌 교수는 각 단락의 필수적인 주제들에는 ‘지혜를 구하는 것의 헛됨’, ‘피할 수 없는 운명’, ‘기억되지 않음’, ‘때’, ‘해 아래 악함’, ‘죽음’, ‘장래의 일’, ‘어리석은 자’, ‘지혜 경구’, ‘왕’, ‘하나님을 경외’, ‘공의’ 등 12 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구조 분석에 있어서 전도서의 각 단락은 헛됨, 바람, 폐단 등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언어와 사상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사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즉 불합리한 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조되어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사상으로 마친다는 것이다.

또한 전도서의 구성에 있어서도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 A', A"으로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서 단순한 사상이 보다 복잡한 사상으로 진전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때’ 등 단순한 단어가 보다 복잡한 단어인 ‘하나님의 때’로, 그리고 보다 복잡한 사상인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등의 방법으로 진전된다는 것이다.

문헌 비평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전도서 12:9 이하를 후대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영헌의 구조분석에 의하면 전도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12:9 이하가 빠지면 A, A', A"에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의 발전과 분위기가 고조될 수 없어서 전도서가 의도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2.5 권오윤의 견해

긴스버그(Ginsberg), 카이저(Kaiser), 권오윤은 동일한 반복구인 “먹고 마시고”(2:24, 5:18, 8:15)에 의하여 전도서를 4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권오윤은 그의 박사 학위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¹⁴⁶

1:1 표제

1:2 헛되고 헛되도다: 모토

1:3- 11 도입 시

1:12- 2:26 첫 번째 단락, 후렴구: 먹고 마시고

3:1 - 5:18 두 번째 단락, 후렴구: 먹고 마시고

5:19- 8:15 세 번째 단락, 후렴구: 먹고 마시고

8:16-11:10 네 번째 단락

12:1- 7 결론 시

12:8 헛되고 헛되도다: 모토의 반복

12:9-14 결론

¹⁴⁶ 권오윤, “전도서 면밀한 읽기: 구조와 통일성,” *아세아연합신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46-7.

권오윤은 전도자는 이 구조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해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락을 통하여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서, 전도서는 구조적이거나 내용적으로 볼 때 논리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논술한다.

동일한 구절을 기준으로 전도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학자인 Kaiser도 전도서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구조를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처음의 세 부분이 각각 거의 동일한 용어” 즉,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반복구와 더불어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학자들(T. Longman, D. A. Garrett)도 있다. Longman은 전도자가 말하는 그 구절들이 오직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 국한되고 제한적인 기쁨(joy)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비록 낙을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도자는 결코 그런 것이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26에서 ‘허무’를 말하는 것을 보라고 한다.¹⁴⁷

3. 필자의 구조 분석에 대한 견해

필자는 기존학자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영현 교수의 구조 분석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영현 교수는 전도서의 각 단락이 인생의 헛됨과 불합리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과 사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서 단순한 사상이 복합적인 사상으로 진전된다는 것이다. 주제의 점진적 진전에 대해서는 콘스테인블, 김윤아, 권오윤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최교수는 또한 전도서 구성에 있어서도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 학자들의 구조분석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 최교수의 논문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필자도 “하나님 경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단락을 구분하기로 한다.

◆ 표제 (1:1)

단락 I (A 1:2-5:7)

A. 1:2-11 전체 도입 부분, (1:2 모토)

1:12-3:14 (*3:14)

¹⁴⁷ 권오현, “설교를 위한 전도서의 구조 연구,” *함동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15.

- B. 3:15-5:7 (*5:7)
- 단락 II (A' 5:8-8:13)
 - A. 5:8-7:18 (*7:18)
 - B. 7:19-8:13 (*8:12, 13)
- 단락 III (A" 8:14-12:13)
 - 8:14-12:13 (12:8 모토의 반복), (*12:13)
- ◆ 하나님의 심판 (12:14)
- [* 별표는 '하나님 경외'를 나타냄]

본고에서는 최영헌 교수의 구조 분석의 일부를 수정하여 구조의 단순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하나님 경외”가 나오는 각 구절에서 단락을 구분한다. 최영헌 교수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3:15, 5:8, 8:11-13 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3:15 과 5:8 은 오히려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점에 있어서 각 단락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영헌 교수의 견해와 일치할 것이다. 단락 III도 12:13 절로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각 단락의 결과인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명령의 순종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12:14).

콘스테인블 박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다. 인간 노력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전도서의 주제가 특이하게 보이지만, 전도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긍정적이다. 즉 전도자는 인간 노력의 궁극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인생을 가장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도서의 교훈은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전도서의 구조와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학자들의 다양한 구조 분석에 대한 견해와 메시지를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필자는 기존 학자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영헌 교수의 구조 분석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영헌 교수는 전도서의 각 단락이 인생의 헛됨과 불합리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과 사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서 단순한 사상이 복합적인 사상으로 진전된다는 것이다. 주제의 점진적 진전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최교수는 또한 전도서 구성에 있어서도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 학자들의

구조분석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 최교수의 논문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필자도 “하나님 경외”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최영현의 구조 분석의 일부를 수정하여 구조의 단순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하나님 경외”가 나오는 각 구절에서 단락을 구분한다. 최영현 교수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3:15, 5:8, 8:11-13 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3:15 과 5:8 은 오히려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점이 있어서 각 단락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영현 교수의 견해와 일치할 것이다. 단락 Ⅲ도 12:13 절로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각 단락의 결과인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명령의 순종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12:14).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 때문에 전도서의 주제가 특이하게 보이지만, 전도서의 전체적인 진술은 긍정적이다. 전도서의 교훈은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인생을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과제는 각 단락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각 단락간의 연결의 유기적 측면과 통일성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또한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제와 사상이 발전되고 복합적인 구조로 진전되는 것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권오윤. *전도서 면밀한 읽기: 구조와 통일성*. 아세아연합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년.
- 권오현. *설교를 위한 전도서의 구조 연구*. 합동신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년.
- 김윤아. *구조로 읽어내는 전도서의 메시지*: <http://www.koreatheology.or.kr/view.html?id=4111>.
- 브라운, 윌리엄 P. *현대성서주석 전도서*. 채은아 번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최영현. “주제별 전도서의 구조 이해.” *지혜서 강의자료*. (2013. 10. 25)
- _____. “영문자료” *지혜서 강의자료*. (2012. 3. 5.)
-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수원시: 합신대학교 출판부, 2012.
- Constable, Thomas L. *Notes on Ecclesiastes*. Sonic Light, 2013:
<http://www.soniclight.com/constable/notes/pdf/ecclesiastes.pdf>.
- Eaton, M. A. *Ecclesiastes*. Downer Grove: Inter-Varsity Press, 1983.
- Seow, C.L. *Ecclesiastes.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이상적인 설교패턴을 위한 계통적 분류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ethodologies for Patterns of Ideal Preaching

임세근 교수
설교학, 교회사

목차

1. 서론
2. 이상적인 설교패턴과 설교원리에 대한 고찰
 - 2.1 이상적인 설교의 패턴(Pattern)
 - 2.1.1 설교와 설교자
 - a) 설교자의 올바른 위치와 자세회복의 중요성
 - b)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자의 준비조건
 - 2.1.2 설교와 관계된 아이러니(Irony)
 - 2.1.3 설교의 키워드(Key Words)
 - a) 영력있는 설교의 배경
 - b) 설교의 전달체계와 효과
 - c) 설교의 강점과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 2.2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원리
 - 2.2.1 설교의 생명력과 약동의 원리
 - 2.2.2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 성경본문의 권위를 통한 회복의 원리
 - 2.2.3 이상적인 설교를 돕기 위한 찬양을 통한 예배의 원리
 - 2.3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문제점과 주의점
3. 설교의 제 형태와 이상적인 설교의 구조, 작성에 대한 연구
 - 3.1 일반적인 설교의 제 형태
 - 3.1.1 강해 설교
 - 3.1.2 제목 설교
 - 3.1.3 본문 설교
 - 3.2 새롭고 이상적인 설교의 형태(style)에 따른 구조, 작성
 - 3.2.1 집중형 설교 형태
 - 3.2.2 대화형 설교 형태
 - 3.2.3 혼합 질충형 설교 형태
4. 결론

참고문헌

이상적인 설교패턴을 위한 계통적 분류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ethodologies for Patterns of Ideal Preaching

임세근 교수
설교학, 교회사

1. 서론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설교학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고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타종교에서 다만 하나의 이야기거리와 유익한 교훈, 혹은 강습정도로 생각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란 설교자에게는 지대한 무게를 지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전달’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설교의 임무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는 언제나 성경중심의 성서적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적이 아닌 설교는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고 학문적으로 우수한 것일지라도 과연 그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설교는 성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되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이 교훈하는 영적인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⁴⁸ 또한 창의적 설교자는 언제나 다양한 기술의 진보와 더욱 새로워지는 원리, 그리고 새롭게 개선되어 가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또한 그에 의한 큰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우기 시대의 변천과 하루가 다르게 변모, 발전되어가는 디지털문명과 인터넷의 급속한 초고속화는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더욱 큰 양면적 부담을 안겨주는 현실이다. 그러기때문에 새롭게 연마하고 훈련해 가는 과정의 연속을 통하여 질높은 설교를 위한 헤안과 통찰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은 더욱 효과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¹⁴⁸ 後藤光三, *설교학*, 광철영 역 (서울: 제일출판사, 1969), 서언.

위해서 찬양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소고에서는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원리로서 약동의 원리, 회복의 원리 그리고 찬양을 통한 예배의 원리 등을 다루었다.

어떻게든 진정한 설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설교의 패턴과 원리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한 걸음씩 접근하며 좀더 나은 설교의 구조와 작성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설교학의 역사가운데 명성있는 학자들의 고견과 함께 최근 학자들의 쟁점을 일부 비교하여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필자는 오늘의 은혜롭고 이상적인 설교의 회복은 말씀중심의 신앙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본 소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새롭고 이상적인 설교패턴과 원리에 대한 고찰

2.1 이상적인 설교의 패턴(Pattern)

본 과제에 대한 내용을 풀어나가는 시점에서 먼저 필자의 생각과 입장을 잠깐 피력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이는 본 단락의 주제를 대할 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 우려하는 마음에서이다. ‘새롭고 이상적인 설교의 패턴’이라고 하여 현재까지 없었던 어떠한 신기한 설교패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본 소고의 앞 부분에 있는 「설교의 역사와 그 시대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상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수하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어왔는가? 어둠 속에 소용돌이치며 타락되어가는, 심지어 멸망의 위기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와 국가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이 역사를 아름답게 빛내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장구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각종 훌륭한 설교의 패턴과 형태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아이같아서 입을 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우둔한 필자와 같은 자가 어찌 새롭고 독특한 설교법을 운운할 수 있으리요? 이는 다만 “옛것을 더듬어 되새기며 현재 상태의 것을 더욱 새롭게 한다(온고지신)”는 옛 성현의 말과 같이 오늘의 이 시대를 돌아보며 더욱 희망적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온 발상인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쇠락해지고 강단에서 울려퍼지는 선포와 설교에 대하여 더욱 냉담히 등을 돌리는 현실적인 신자(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저들 앞에 권위있고 능력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 상처 입은 그 심령들을 싸매어 치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한편으로 필자 자신에게는 주마가편(走馬加鞭)하는 격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소고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2.1.1 설교와 설교자

a) 설교자의 올바른 위치와 자세 회복의 중요성

“목회자에게서 설교의 사명은 어떤 소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¹⁴⁹이라는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의 말이 너무 요원하게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이제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주위에서 들려오는 혼한 탄성이 되었듯이 설교의 위치가 하락의 길을 걷고 있고 노골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라이드(C. H. Reid)는 자신의 저서인 「설교의 위기」에서 틸레케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단일적인 수단(양식)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¹⁵⁰고 하였다.

참으로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바르게 정곡을 찌른 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진정한 설교자의 자세,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설교의 위치와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던 중, 우연히 로이드 존스의 저서인 「목사와 설교」를 통하여 필자의 고심하던 문제와 공감되는 부분을 발견하여 많은 도전과 도움을 받은바 있다. 여기에서 존스는 근래에 만연한 “평신도 설교”의 문제를 다루며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소위 진정한 설교자의 자격과 자세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행전 8 : 4-5 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일반 교인의 ‘선포’와 빌립(사도)의 ‘선포’에 대한 차이점”¹⁵¹을 설명하고 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행 8 : 4-5). 이를 영어 성경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Philip went down to a city in Samaria and proclaimed the Christ there.”

보통의 어느 성경을 보든지 모두 다 당시의 흩어진 성도들이나 빌립이나 양쪽 다 ‘설교했다’. 혹은 ‘선포, 선언했다’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한 면에 대하여 정확한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헬라 원어성경에 보면 양자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흩어진 성도들은 ‘유앙겔리조메노이’(εὐαγγελιζόμενοι)한 것으로 되어있고, 빌립은 ‘에케루센’(εκκερυσσεν)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앙겔리조메노이는 원형인

¹⁴⁹ D. M.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11.

¹⁵⁰ Clyde H. Reid,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7.

¹⁵¹ D. M. 로이드존스, *op. cit.*, 134-5.

‘유앙겔리조’ (εὐαγγελίζω)의 현재분사형으로서 그 뜻은 현재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에케루센’은 원형인 ‘케루소’(κηρυσσω)의 미완료 과거 능동형으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선포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흠어진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복음을 소문내어 퍼뜨리며 선포’하였고, 빌립은 ‘복음을 과거에서부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파하며 설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성경은 사도인 빌립의 설교자세와 위치와, 일반 성도들의 선포 자세에 분명한 차이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이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필자를 비롯한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자의 바른 위치와 자세를 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잃어버리고 있기에 목회자가 더욱 말씀의 강력한 선포를 외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좀더 은혜 스러운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설교자가 변화되지 못하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투혼하지 않는 한 강단의 변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정장복 교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며 열정이 식은 설교자와 감화를 잃어버린 청중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의 저서를 통해 탄식하며 역설하였다.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열정인데 이는 단순히 설교자가 지닌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의미한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힘과 감동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교자의 뜨거운 열정과 절박한 호소력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¹⁵²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의 저자인 김남준 목사도 이와 같은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설교자와 오로지 훈련으로만 만들어지는 설교자는 차이가 있다...그들은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설교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영적 변화에 생사를 건다.”¹⁵³ 이어서 그는 목회자의 변화된 모습이 설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설교가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있지만....그러나 정작 설교하는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설교자가 그리 많지 않다. 설교는 인격적이어야 하므로, ...설교는 설교자를 능가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의 인격이나 영적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설교한다면, 그는 즉시 설교가운데 설교자와 설교내용이 분리되어 따로 노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라고

¹⁵²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1), 302.

¹⁵³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26.

말한다.¹⁵⁴ 신령한 말씀을 체험하여 그것을 영혼속에 보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자로서, 그가 바로 설교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교가 각인되는 놀라운 의미를 깊게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인지된다는 것이다.¹⁵⁵

b)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자의 준비조건-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한 경건한 소명의 부르심.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 받았던 신앙의 위인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써 우리와 같이 인간의 연약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더러는 실수도 많은 인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철저하게 본연의 자기 자신이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됨을 볼 수 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열심과 동포애로서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노예생활하는 비참한 처지에서 구출시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의분 속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자신의 혈육을 의지해서 큰 일을 하려던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쫓김을 받아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숨어사는 도망자요, 범죄한 망명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까지 겸손한 모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의 발에서 신¹⁵⁶을 벗게 하신 다음에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더 T. 피어선은 “설교는 탄생되는 것이며, 만들어지는 것이며, 주어진 것”¹⁵⁷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설교자의 노력과 영적 훈련의 중요성과 함께 그 자격조건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사려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 이 같은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¹⁵⁴ Ibid., 41-2.

¹⁵⁵ Ibid., 323.

¹⁵⁶ 출애굽기 3:4-5 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다. 모세가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 신을 벗어야만 하였다. 여기서 신 벗은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벗으라는 것이고, 종이 되라는 뜻이며 자기를 온전히 벗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이다. 모세는 “자기”라는 신을 벗는데 40년이나 걸렸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고 바로 왕도 굴복케 하였으며, 홍해 바다도 가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¹⁵⁷ Arthur T. Pierson, *설교의 영적기술*, 피어선성서신학교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19.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밤낮 사십 일을 금식하며 지내셨다. 그렇게 사십일 동안 복음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의 칼날을 베풀고 계셨던 것이다. 그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¹⁵⁸

그러면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가 거느린 종들의 수가 아닌 자기가 섬겨온 사람들의 수가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는 기준이며, 지도권에 대한 참된 준비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겸손하게 섬긴 봉사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품에 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모본이셨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눅 22:27).

하나님 편에서 선포된 이 주요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하면 무엇보다 참된 위대성과 참된 지도권은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를 드림으로 성취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쓴잔을 마시며 고난의 뼈아픈 침례를 체험하는 것을 수반한다.

친첸돌프(Zinzendorf) 백작은 지위와 부에 대해 자신이 받았던 여러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와 야심을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였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노라. 그것은 바로 그 분, 오직 그 분뿐이다.”¹⁵⁹ 당시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의 창시자이며 지도자가 된 친첸돌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았는데 이는 훗날 복음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지도자의 정신을 깊이 이어받아 그를 높이 추앙하게 되었다.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었던 그들의 교회야말로 당시 지극히 제한된 선교활동 중에도 모국의 다른 어느 교회들보다 세 배 이상되는 전도자들을 배출하는 해외교회가 되었던 것이다.¹⁶⁰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먼저 철저히 훈련하게하시고 고난 속에 연단 시키신다.

2.1.2 설교와 관계된 아이러니(Irony)

생각해보면 설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아이러니도 많다. 그만큼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설교하는 방식에 따라 또는 설교를 받는 청중의 은혜받는 면의 강약에 따라 설교의 애환도 다양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필자의 나이 열 살 때쯤이었던 것 같다. 어린

¹⁵⁸ 김남준, *op. cit.*, 25.

¹⁵⁹ J.O. 샌더스, *영적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18-9.

¹⁶⁰ *Ibid.*, 18-9.

나이에 뭔지도 모르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집회를 참여하는 일이 수시로 있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한창 자라나는 삼 형제를 기르시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들어오시면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십여 리 떨어진 봉원산(지금의 연세대학교 뒤편에 있는 산)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서 밤새워 기도하며 다니시던 어머니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늘 옆에서 보고 느끼며 자라난 막내였기 때문일까? 모친께서 집회 참석하러 가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짐을 챙기며 부산히 준비하실 때, 누가 깨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눈비비고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던 필자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한국 서울의 서대문구청 근처에 소재해 있던 독립문에서 불과 300여 미터 언덕으로 올라가면 큼직한 암갈색 벽돌의 4층 높이로 우뚝 서 있었던 독립문 교회! 거의 50여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그 당시로서도 상당히 큰 교회였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교회의 담임으로 시무하셨던 ○○○목사(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이름은 밝히지 않음)께서 주강사로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셨었는데, 그 분의 인상과 설교말씀이 얼마나 독특하였는지 어린 나이에 새겨두었던 그 분의 이름 석자가 지금도 뇌리에 또렷하다. 그것은 그 분의 설교말씀이 어린 필자에게도 그만큼 감화를 주었기 때문이고, 코끝이 찡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것은 능력있는 설교말씀의 감화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파장되어 확장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엘머 타운스가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연구 집필한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서 평범한 교회들에 대하여 이처럼 꼬집어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가 판에 박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심지어 어떤 신자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척 보면 알 정도로 목사의 설교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들 한다.”¹⁶¹

예배가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현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설교자의 설교가 단지 침묵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교인들의 영혼속에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 기대없이 나와 앉아있는 목석같은 교인들이 침묵속에 예배시간이 어서 마치기만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⁶² 돌이켜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자세와 그 과정에 있어 열정적인 기도와 묵상, 심혈을 다하는 말씀연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이나 교인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¹⁶¹ 엘머 타운스,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48.

¹⁶² 김남준. *op. cit.*, 135.

2.1.3 설교의 키 워드(Key word)

a) 영력 있는 설교의 배경

a.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충만한 설교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목회자의 현재 처한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이 시간 아니 매일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가?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영력있는 설교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진정한 이유”¹⁶³ 라고 하면서 필립 얀시(Philip Yancey)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근본주의자 성장기」(Growing up Fundamentalist)라는 책에는 일본의 어느 선교사 훈련원 졸업생들의 동창회 이야기가 나온다. 한 동창생이 말한다. ‘한 두 명만 빼고 우리는 다 믿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은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¹⁶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목회자의 삶이나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요긴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자가 영력있는 메시지로서 저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뿌리이기도 한 것이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마 27 : 55),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가슴을 치고 우는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한 무명의 흑인 노예가 흑인 연가를 지은 것이 우리말 찬송가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136 장)”라는 제목으로 나와있다. 그 수많은 억조창생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대신 저주받고 죽는 그 현장—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 없는 영접 하(下)의 존재가 되어 죽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는 모두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처형의 공범자 아닌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구속의 은총이 빠진 설교가 어떻게 영권있는 능력의 메시지로서 메마른 심령을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저자인 필립 얀시(Philip Yancey)는 은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요즘 같은 세속적인 풍조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여전히 은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영어의 몇 가지 용례에는 이 단어의 신학적 기원이 짙게 암시돼 있다. 신민들은 왕을 ‘폐하’(Your grace)라고 부른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학생들은 일부 과목 면제혜택을 받을(receive a grace)수 있다. 1년 분 잡지

¹⁶³ 필립 얀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17.

¹⁶⁴ Ibid.

를 구독하면 구독이 끝난 후에도 몇 권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연장 구독을 노리고 무료(*gratis*)보내 주는 덤이다. 신용카드, 렌트카 업소, 대출 기관도 다 고객에게 별도의 지불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주고 있다. 반대말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신문에 공산주의의 타락(*fall from grace*)기사가 실렸다. 이는 지미 스웨거트, 리처드 닉슨, O.J. 심슨을 두고 했던 표현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배은망덕’(*ingrate*)하다고 하고 심하게는 ‘불한당’(*disgrace*)이라고 욕한다. 정말 비열한 사람은 장점(*saving grace*)이라곤 전혀 없다.¹⁶⁵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중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순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회심하는줄 알면서도 그를 용서하신 것이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실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하면 된다. 하나님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나 맞아주신다. 실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첫걸음을 떼셨다. 의사, 변호사, 결혼상담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개 스스로 고가의 꼬리표를 단 채, 고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의 주의를 끌기위한 흥미로운 이야기나 신학적 진리를 담은 문학적 그릇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그분의 지상생활의 축소판이다. 그분은 안전한 울을 떠나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나선 목자였다. 그분은 잔치에 온 세리, 잡배, 창녀도 언제나 환영하셨다. 그분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 오셨다. 자기를 배반한 자—특히 가장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대할 때도 그분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다.¹⁶⁶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다.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모든 전체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심령이 강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사는 심령만이 그 은혜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뛰놀 수가 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설교내용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충만 된 것이 될 때에 영력있는 설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b.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설교

딤후 3:16 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기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없이 기록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벰후 1:21 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¹⁶⁵ Philip Yancey, op. cit., 12-4.

¹⁶⁶ Ibid., 61-62.

말씀을 준비하거나, 준비된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을 증거 할 때 영력있는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함으로, 우리가 “중재와 호소의 최후법적”¹⁶⁷인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b) 설교의 전달체계와 효과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과, 그 결과적인 효과에 관한 만족도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교자의 바탕과 목회훈련의 전반적인 기초가 잘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교의 전문가들도 강조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소명 받은 목회자의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목회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는 어느 정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중생했다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설교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그것을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거기에 서 있는 근본 이유는 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이다.”¹⁶⁸

다시 말해서 로이드 존스의 이 말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비 조건들과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각계에서 모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므로 다양한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할 목회자가 기본적인 교육적 차원에서도 일반 정규대학 이상의 학문을 터득하고 또한 사회적인 경험도 충분히 있을 때 저들을 십분 이해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실례로서 생각하는 법이나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법을 전수해 주는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 것처럼 좋은 이유는, 거기에는 훌륭한 일반적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지식과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은 설교자가 되는 전문적인 훈련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¹⁶⁹ 이 방면에 부족한 사람은 참설교자가 될 수 없다.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과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The whole Counsel of God), 및 전반적인 체계(scheme)와 주요계획 등의 중요성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것에 대한 지식, 즉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¹⁷⁰

¹⁶⁷ 아더 T. 피어선, *op. cit.*, 104.

¹⁶⁸ D. M. 로이드존스, *op. cit.*, 150.

¹⁶⁹ *Ibid.*, 151-2.

¹⁷⁰ *Ibid.*

진정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준비된 설교가 되어야 하고, 청중들에게 그 설교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올바른 설교의 체계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본래 말씀하시며 교훈하려고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성취시켜 드리는 참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c) 설교의 강점과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a. 설교의 강점

여기서 설교의 강점이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회심을 일으키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설교의 강력한 힘(power)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안일하게 잠자고 있던 신자들이나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이탈하는 잘못된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대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설교를 통하여 죄의식을 심어주고 무딘 심령이 충격을 받게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설교의 한 방편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강력한 설교의 위력을 나타내었던 설교자중의 한 인물로서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말씀의 화염이 점차로 확산되어갈 무렵 엔필드(Enfield)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목사가 에드워즈에게 자기 교구가 너무 완고함을 호소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이에 그 두 사람은 1741년 7월 특별집회를 가지기로 약속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전역에 새로운 큰 파문을 일으킬 폭탄적인 강력한 설교가 선포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 깊은 잠에 빠져있던 퓨리탄의 후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회개를 하게 되었고 미국 교회에 새 분기점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에드워즈의 입을 통해 선포되던 현장은 공포와 회개의 함성과 후회의 눈물로 뒤덮인 곳이 되었다. 설교가 진행될 수 없도록 회중들은 회개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¹⁷¹

이러한 에드워즈의 설교의 강점은 당시의 설교가 대부분 논리에 치우치고 설교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던 강단의 일반적 흐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데에 있다. 에드워즈가 철저하게 적용하고있던 기본적인 신학의 입장은 퓨리탄 신학이라 불리우는 ‘계약신학’(the covenant theology)이었다. 그는 개인의 구원을 가지게 된 신앙이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와 함께 그 신앙관계를 통해 신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¹⁷¹ Perry Miller, *Jonathan Edwards* (Toronto: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1949) 145-6.

명령하고 지켜보아온 계시의 하나님은 바로 계약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바로 계약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⁷² 그리고 그의 설교주제는 단순한 개인의 회개로 제한되지 않고 당시의 사회적 퇴폐현상을 비롯하여 인디언들에 대한 착취와 같은 행위에까지 엄격하게 지적하는 폭넓은 것이었다.¹⁷³

이처럼 설교자의 설교가 때로는 죄에 대해 엄격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강점 있는 설교가 될 때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계기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b. 설교의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전 단락에서 죄성의 간악함을 피력하며 죄에 대해 엄히 꾸짖어 책망하는 ‘설교의 강점’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필자는 본 단락에서 앞과 상동(相同)되어야 할 것 같은 주제지만 오히려 그와는 대칭되는 내용으로 설교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설교의 영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은 이제 그와는 반대되는 것임을 찾게 된 것이다. 바울은 성경에서 제시하기를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같은 엄격함과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양육해야함을 나타내 보여주었다(살전 2: 7-8, 11).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면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계셨기에 오늘의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고 주신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및 관용함이 잘 나타나고 포함되어 있는 설교와 일치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될 때 강박하고 거스리는 심령들을 어루만져서 녹아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 버클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버클랜드 침례교회야말로 이러한 요소들을 소유하며 성도들의 삶을 행복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그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된 한 인물이 직접 신앙간증을 위해 기록하여 발표한 것의 한 부분이다. “저는 버클랜드 사람들, 특히 리더들의 삶에서 뭔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즉각 발견하였 습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과 솔직성 때문에 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던 목사님들과는 달랐습니다...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듯한 열정적인 것이었습니다...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는 자유가 있었으며, 그들의 꾸밈없는 삶에는 인간을 매료시키는 힘과 기쁨이 있었습니다...그들의 삶과 집이 항상 열린 상태였기때문에 저는 그들의 삶이 메시지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¹⁷⁴

¹⁷² Conrad Cherry,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6), 107.

¹⁷³ Wilson H. Kimnach, "Jonathan Edwards, Early Sermon," in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 vol. 55 (1977), 260.

¹⁷⁴ 이남하, *평범한 사람들의 별난 교회* (서울: 나침반사, 1996), 34.

필립 얀시(Philp Yancey)도 진정한 용서를 위한 화해와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과 똑같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어서 그는 “용서만이 비 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¹⁷⁵고 말한다.

예수님의 명쾌한 비유 중에 ‘빛진 중’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온다. 현실적으로 종이 그런 고백의 빛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예수님의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해준다. 그것은 일가족과 전 재산을 다 몰수해도 조금도 줄지않을 빛이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돌연 종의 빛을 다 탕감해주고 처벌하지않고 놓아보냈다. 일순간 전개가 바뀐다. 방금 막 용서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기껏해야 몇 천 원 빛진 친구를 붙잡고 못살게 군다. “빛을 갚아!”(마 18:28). 그는 뉘달하다 못해 친구를 옥에 가둔다. 욕심많은 이 종은 한 마디로 배은망덕한 자(ingrate)이다.

루이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루이스 자신도 성(聖) 마가 축일에 사도신경 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대목을 반복하다 순간의 계시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리고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진리가 마음속에 어찌나 선명히 다가오던지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자백과 사죄를 하고도) 그것을 전심으로 믿지 못했음을 새삼 깨달았다.”¹⁷⁶ 풍성한 사랑과 관용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설교자의 설교야말로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2.2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원리

2.2.1 설교의 생명력과 약동의 원리

생명있는 믿음은 생명력있는 말씀과 그를 통한 설교에서 나온다. 마태 17:20 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상태의 것이요 또한 생명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생명있는 믿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처럼 생명 있는 믿음은, 생명

¹⁷⁵ 필립 얀시, op. cit., 111.

¹⁷⁶ Ibid., 71-2.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의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로빈슨은 그의 저서인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오늘의 설교와 교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바 있다. 교회를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믿음과 회개, 그리고 새생명을 공급해준다…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은 교회자체의 생명력과 설교를 통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¹⁷⁷

기독교의 설교 역사상 가장 생명력있게 약동하는 설교의 선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기독교 설교의 실질적 초석이며 출발의 뿌리는 예수께서 시작하고 사도들의 계승한 설교의 형태와 내용에서 더욱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다”¹⁷⁸는 말은 옳은 근거가 있는 표현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출발과 그 초점이었으며,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밝힌 것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공언하셨다는 점¹⁷⁹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설교의 메시지는 권능이요 생명이 약동하는 말씀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설교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으로 인한 영적체험을 기초로 하는 것이야말로 설교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사역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남의 말처럼 지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경험으로 받아들인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자신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성경의 진리를 전달해줌으로서 대변하게 된다.¹⁸⁰

경험이 자람에 따라 증거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설교자는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인상을 주며 어떤 다른 것보다 더욱 확신을 주는 이와 같은 요소를 필요로 한다.¹⁸¹ 결국 새롭고 이상적인 설교 원리의 중요한 요소는 이처럼 설교자의 입을 통해 반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약동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2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 성경본문의 권위를 통한 말씀회복의 원리

어떤 이유로 오늘의 설교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인간의 목소리만 우렁차다고 하는 탄성의 외침이 커지는 것일까? 수없이 많은 설교소리가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한주간에도 여러번씩 시간에 맞추어 빠짐없이 들려지는 예배가 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에 형식적 예배로서 흡족해(?)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신령한 감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¹⁸²

¹⁷⁷ 해돈 로빈슨,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전의우 외 5 인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6), 68-9.

¹⁷⁸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37.

¹⁷⁹ *Ibid.*, 38.

¹⁸⁰ *Ibid.*, 137-138.

¹⁸¹ A. T. Pierson, *op. cit.*, 84-5.

¹⁸² *Ibid.*, 134.

설교를 생명처럼 알고 살아온 설교자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찾는 무수한 젊은이들이 임종단계에 들어서 있는 설교의 현실¹⁸³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성서는 설교자에 있어 생명의 양식만이 아니라, 빛이며 지도서이다. 특히 설교자는 성서 자체가 말하는 설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설교의 자세와 정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성서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성서에서 설교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어떠한 것은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성서에서의 설교의 자세에서 역사상의 교회가 어떻게 설교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였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설교는 성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서에서 성취된 그 은혜를 성서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예언자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전달자였던 것처럼 설교자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반즈가 “설교자는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을 대한다.”¹⁸⁴ 고 말한 것은 옳게 본 것이다. 설교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 이상적이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길 뿐이다. 실제로 한국 강단의 현실을 보더라도 성경에 입각한 설교보다는 사람의 감정으로 흥겹게하는 기복신앙과 인간 위주의 설교가 지금까지 흥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청교도적인 신앙심에 입각한 말씀위주의 설교가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병든 심령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살아있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청교도운동의 근본정신은 바로 성경운동이었고 청교도들에게 있어 성경은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성경에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서 4:1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므로 그 말씀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이나 가르침에 그치지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다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 장 3 절에는 능력의 말씀이라 했고, 로마서 1 장 16 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¹⁸³ Helmut Thielicke, *The Trouble with the Church*, trans. John W. Dobestein (New York: Harper & Row, 1965), 1-2.

¹⁸⁴ 後藤光三, op. cit., 24-5.

말씀에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또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 또 말씀 속에 말씀을 실현시키는 운동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만능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있는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어느 면으로 베어도 베어지고 어느 곳이나 찢러 찢갤 수 있다. 혼은 이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 깊은 곳(마음과 뜻)까지 찢러 찢개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심판하신다. 영은 영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깊은 곳까지 다 해부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같은 옛사람의 깊은 곳까지 찢러 찢개서 죄와 부패성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찢러 찢개어 드러내고 책망하고 베어내고 제거시키는 역사를 하고 심판하는 역사를 한다. 감찰은 살피고 검사하고 심판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영혼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부패한 부분을 제거시키고 수술하여 병을 고쳐주고, 또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도 건강이 된다(잠 3 : 8, 18, 4 : 22).

설교의 힘은 본문과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청중들이 본문해석과 함께 문장의 의미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¹⁸⁵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근거한 것이기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롭고 이상적인 설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의 요소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 본문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2.2.3 이상적인 설교를 돕기 위한 찬양을 통한 경배의 원리

이미 현대교회의 예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한부분으로 장식된 교회음악이나 예배음악의 특성을 살려서 설교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더욱 은혜 스럽고 이상적인 설교를 위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앤더슨(Robert C. Anderson)은 「목회학」에서 다음과 같이 음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음악은 다른 예술이 미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찬양케 하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다....음악은 모든 새로운 종교적 부흥 운동이나 각성운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교회가 음악적으로 가장 생명력이 넘치던 때를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의 웨슬레 시대,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 북미의 19 세기 후반 부흥시대 등이다. 동생 찰스 웨슬레의 음악이 없었다면 요한 웨슬레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의심할 여지없이 찰스가 쓴 찬송가는 대중의 마음에 파고들어 그들의 저항 감을 무산시킴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설교자의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했던 것이다.¹⁸⁶

¹⁸⁵ 해돈 로빈슨, op. cit., 318.

¹⁸⁶ Robert C. Anderson, 목회학, 이용원 역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2000), 375.

하나님께서 음악을 인간에게 주셨다¹⁸⁷는 사실과 함께 설교자의 설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은 아름다움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악을 통하여 음악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또다른 ‘아름다움’을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⁸⁸

그러므로 지글러는 “종교적 예배에서 음악은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¹⁸⁹고 하면서 음악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했고, 부르베이커(V. R. Brubaker)는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토록 지시하시고 격려하셨다.”¹⁹⁰고 강조하였다. 그런가 하면 백동섭씨는 「새 예배학」에서 “음악은 예배의 한 조력자로서 이바지한다”¹⁹¹고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거니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고귀함과 아름다운 목적에 부응하여 설교자의 설교를 더욱 힘있게하고 감화력있는 설교내용이 되게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찬양예배의 효과를 잘 반영하는 것은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좋은 방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2.3 이상적인 설교를 위한 문제점과 주의점

2.3.1 설교의 문제점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변하고 인간의 삶과 가치관이 급변하는 오늘의 시대에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신앙생활한지 오래된 신자들까지 설교에 대하여 좋지않은 감정과 기피증을 보이는 것은 진정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로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교회 내적인 특수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의 설교위기의 문제는 교회와 설교자 자체의 문제성이라는 지적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헉스트라(Hoekstra)는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이미 설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¹⁹²고 말했다. 티리케(H. Thielicke)는 “매우 분주하고 사무적이 되어버린 교회일과 중의 하나로서의 오늘날의 설교는 그 위치에 있어 변두리로 밀려났다”¹⁹³고 그의 저서인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외적인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정보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혁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했었으나, 40여년이 흐른 지금

¹⁸⁷ 지원용, *루터의 사상*(서울: 권콜디아사, 1961), 230.

¹⁸⁸ 전희준, 이택희, *예배음악의 이론*(서울: 교회음악사, 1984), 69.

¹⁸⁹ 프랜클린 M. 지글러, *예배학원론*, 정진환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3), 121.

¹⁹⁰ V. R. Brubaker, “예배에 있어서의 교회음악.” *교회음악* 통권 7 호(서울: 교회음악사, 1976), 12.

¹⁹¹ 백동섭, *새 예배학*(서울: 중앙문화사, 1983), 212.

¹⁹² 정성구, *실천신학개론*(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0), 126.

¹⁹³ Helmut Thielicke,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심일섭 역(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8.

은 10%에 불과한데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추세이다. 도시화의 집중은 주택난이나 교통난, 공해난, 범죄난 등을 가중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대자연을 통한 낭만적인 여유도 없고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성서적으로 볼 때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고모라의 멸망은 도시화로 인한 결과적 모델이며, 현실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도 도시화 현상은 너무나 크고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목회자들은 사회의 다변화 현상에 따른 도시교회 목회만을 선호하게 되지만, 교회성장에 대한 부담과 함께 유동교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숫적인 교인감소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첨단 기술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가치관은 점점 떨어지고, 공장에서는 사람보다 자동화시설, 로봇, 컴퓨터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로 사람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향락주의, 황금만능주의 등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의 영향이 그들에게 미치기 어렵게 된다.¹⁹⁴

학문과 연관된 문화의 칼집에 들어 있을 때나,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된 칼집을 자랑하려고 흔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령의 검이 살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때는 설교가 칼집에서 꺼내어져 번뜩일 때인 것이다. 현대설교의 무력함은 인간의 무리한 시도때문인데, 이는 설교에 말의 지혜인 기지를 가미하여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꾸미려고 하기 때문이다.¹⁹⁵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대각성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설교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와 진리가 핵심이 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메시지의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그럼으로서 ‘육체에 의해 더럽혀진 옷’을 진리에 덧입히는 모양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이유는 개선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⁹⁶ 이러한 설교에 대한 문제점은 결코 안이하게 간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

2.3.2 설교의 주의점

이것은 정확히 말해 설교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과 더 긴밀한 관련성을 내포하는 문제이다. 즉 설교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와 설교자가 주의할 일들에 관한 것으로, 설교는 바로 설교자의 신앙과 인격에 따라 그 내용이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도 개인적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정서적 필요를 가지고 살게 되고, 목회사역을 통해 때때로 자신에게 직면하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들에 매여 그러한 개인적인 중요성의 필요를 외면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목회자가 정력을

¹⁹⁴ 주성호, *21 세기를 위한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8-19.

¹⁹⁵ 아더 T. 피어선, *op. cit.*, 128-9.

¹⁹⁶ *Ibid.*, 130-1.

다 소진하고 목회사역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자신의 생동감과 신선함을 점차 잃어버리기 때문이다.¹⁹⁷ 더 나아가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또 한편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르나, 능동적으로 목회에 종사하는 사람도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많은 자기 훈련을 요하는 일임을 발견할지 모른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흔히 자기 자아(ego)에 끌려 넘어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는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가지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 갖가지 변명거리와 압력이 방해하여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바쳐서 그를 섬겨도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피상적인 목회로는 도달할 수 없는 원리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는 목회자의 설교와도 모두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들인 것이다.¹⁹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 웅변이나 사상가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말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을 금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근거를 둔 주제만을 선택하도록 강조했다... 진정한 설교자의 설교스타일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전달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¹⁹⁹

바울은 설교자가 인간의 말과 지혜를 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함을 고린도전서 2:1-2 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설교의 제 형태와 이상적인 설교의 구조. 작성에 대한 연구

3.1 일반적인 설교의 제 형태

설교의 종류와 형태를 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지면의 관계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편적 구성 내용에 의한 분류법으로서의 강해설교, 제목설교 및 본문설교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¹⁹⁷ 로버트 C. 앤더슨, *목회학*, 이용원 역 (서울: 소망사, 2000), 42-43.

¹⁹⁸ *Ibid.*, 47-8.

¹⁹⁹ 아더 T. 피어선, *op. cit.*, 130-3.

3.1.1 강해 설교

일반으로 강해설교(Expository Sermon)를 본문설교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강해설교와 본문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것이다. 강해설교는 본문설교보다 더 길고 많은 성서구절을 기초로 하며, 또한 거의 전부가 주해로서 구성된다.

곽안련 박사는 강해설교가 어렵다고 하여 이 설교 방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강해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설교자는 자기가 이 강해설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²⁰⁰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가 하면 브라가(James Braga)는 그의 「설교준비」에서 강해설교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의 한 형태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강해설교는 다른 형태의 설교보다도 회중을 성서로 가르치는 일에 훨씬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성서의 말씀을 주해함으로써 목회자는 설교의 주요기능인 성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해석하는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²⁰¹고 하였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인 로빈슨(H. W. Robinson)은 “신적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형태가 강해설교”²⁰²라고 하면서, “강해설교란 본문을 성서의 앞뒤 문맥에 비추어 역사적, 문법적으로 성령의 인도아래서 연구한 결과를 먼저 설교자의 삶에 적용한 후에 청중에게 적용하는 성서적인 진리의 접근방법”²⁰³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과거 한국에서 1981년 이후 거의 20여 년을 계속해서 강해설교 세미나를 인도하여 한국 강단에 큰 영향을 주었던 데니스 라인(Denis J. V. Lane)의 말도 의미있는 해석이다.

청중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서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회중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이 강해설교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기울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강해설교의 본질이다.²⁰⁴

3.1.2 제목 설교

현대에 미국에서 제목설교의 아성을 쌓은 것으로 평가되는 브로더스(J. A. Broadus)는 “제목설교는 설교본문에서 제목을 정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제목과 부합되며 또한 그 제목을 논증할 수 있는 대지들을 찾아 설교를 구성하고 그 위에 살을 붙여 만드는

²⁰⁰ 곽안련, *설교학*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25), 202.

²⁰¹ James Braga,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61.

²⁰² H. W. Robinson, op. cit., 15.

²⁰³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 : Baker Book House, 1980), 20.

²⁰⁴ 주성호, op. cit., 163.

설교이다.”²⁰⁵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설교작성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형태이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비효과적인 설교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제목설교인데, 이는 독창성이 배제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목설교는 주제를 전개시키는 대지가 특정한 본문과 연관없이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제목설교자들이 청중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의 아픔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나 시사이야기, 혹은 문학이나 예술, 그리고 스포츠분야의 이야기로 설교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²⁰⁶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교자의 수고와 노력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본문의 사용을 극소화시켜 줌으로서 제목이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는 분야로 취급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제목설교이다.

3.1.3 본문 설교

제목설교가 주제로 시작하여 본문은 무시된 가운데 제목을 위주하는 설교라고 하면, 본문설교(Textual Sermon)는 본문에서 시작되고 본문이 바로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본문설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브라가(J. Braga)는, “본문설교는 그 대지들이 적은 분량의 성구로서 구성되어있는 본문으로부터 이끌어 나오는 설교이다. 각 대지는 메시지의 다른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어야 하고 설교의 주제는 본문 안에서 나와야 한다.”²⁰⁷고 하였다.

본문설교가 지니고 있는 제한은 메시지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본문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설교는 청중들이 본문의 핵심에 쉽게 접근하도록 본문에 함축된 메시지의 발골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본문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깨우치도록 본문의 상황(context)을 비롯한 중심단어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석의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특색이 있다.²⁰⁸

3.2 새롭고 이상적인 설교의 형태(style)에 따른 구조. 작성

설교자에 있어 은혜롭고 좋은 설교를 위한 소원과 열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중 앞에 전달하기까지 생각과 뜻대로 순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실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등광삼 같은 학자도 그의 「설교학」에서 설교자의 끊임없는 훈련을 강조하면서 “설교자는 설교를 위하여 고심해야 한다. 매번 이러한 준비와 고심을 쌓아 나가는

²⁰⁵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 (New York and Sanfrancisco: Harper & Row, 1979), 58-9.

²⁰⁶ 계지형,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70.

²⁰⁷ James Braga, *op. cit.*, 35.

²⁰⁸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158-9.

동안에 그 내용의 충실과 함께 간명하고 힘있는 훌륭한 설교의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²⁰⁹이라고 하였다.

필자도 목회일선에서 비록 미약하고 부족한 경험을 쌓으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오는 중에 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런 마음가짐으로 좀더 향상될 수 있는 설교형태가 무엇인지를 찾으며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바를 감히 미력하지만 아래와 같이 기술해 나가려고 한다. 참고로 아래에 기록하는 세 가지 형태의 설교구조들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된 설교를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한 설교형태들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3.2.1 집중형 설교형태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제목설교와 비슷한 구조로서 진행되어 나가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설교자는 일단 본문을 정한다음, 수시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을 정하고 대지를 작성하며 말씀을 연구해 나감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설교자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설교의 내용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에 설교의 제목과 전체의 대지들을 일사분란하게 같은 말씀의 맥으로서 포함시켜서 설교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일들은 단연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설교형태이다.

로이드 존스는 좋은 설교를 구성하는 데에는 설교자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서 임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설교준비와 영적인 일에는 휴일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듯이 설교자는 설교준비에 휴일이 없이 평소의 생활 속에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설교와 병행하여 기도는 설교자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회사를 통해 위대했던 설교자들의 생애의 두드러진 특징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²¹⁰

집중형 설교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설교자가 설교의 본문을 일단 정한 다음에는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과 대지를 작성하게 된다. 물론 본문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정독하는 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 안에서 기초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아더 피어선은 성서를 숙고하는 일에 수반되는 기도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서도 명상의 과정 속에서 숙고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진가가 밝혀지기 위해서 여러

²⁰⁹ 後藤光三, *op. cit.*, 323.

²¹⁰ D. M. 로이드존스, *op. cit.*, 220.

관점으로부터 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설교자들은 성령에 따라 성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존 맥나일 목사의 말처럼 ‘진정한 설교자는 그가 비전을 볼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서를 명상’하는 것”²¹¹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형 설교의 준비 과정에 대하여 앞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 기도와 함께 성경말씀 자체로서 기초와 골격을 이루어 작성해 나가야 함은 재언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성서의 중심적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근거한 영혼구원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설교의 메시지가 그 목적과 내용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사이드(P. T. Forsyth)와 존 낙스(J. Knox)의 말처럼, “성서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²¹²이며, “설교메시지의 재원이 결코 시대적인 사건, 문학, 철학, 정치, 이데올로기 등이 될 수는 없고,오직 설교의 메시지는 성서에만 그 원천을 두어야 하는 것”²¹³이다.

칼빈(John Calvin)도 성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보고’(A Depository of Doctrine) 라고 말하면서, 모든 설교자가 성서의 충실한 제자(disciple)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가 근본적으로 성서의 말씀 안에서 출발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 ²¹⁴이라고 강조했다.

성서는 진리와 빛과 능력의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원천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바로 성서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외면하여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회중들의 기대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생활에 적합한 성경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다.²¹⁵

집중형 설교에서는 설교자가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제목을 잡고 또한 그 제목과 연관하여 통하는 대지와 소지를 구성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대지와 소지들은 제목에서 부여하는 의미와 상통하는 내용들이 되어서 청중에게 전달되며, 청중은 그 설교내용을 통하여 매우 다양하게 말씀을 경청하며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설교형태이다.

3.2.2 대화형 설교형태

²¹¹ 아더 T. 피어선, op. cit., 155-6.

²¹² P. T. Forsyth, op. cit., 3.

²¹³ John Knox, *The Integrity of Preach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57), 3.

²¹⁴ Joh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I . 6 : 4 & IV. 2 : 4.

²¹⁵ Lloyd M. Perry, *A Manual for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ch : Baker Book House, 1965), 7.

대화형 설교형태는 본문설교와 비슷한 구조로서 구성되어지나 이것 역시 설교자의 설교준비 과정과, 설교자와 청중간에 대화형식으로 설교가 진행된다는 것이 다르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설교자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영력과 영성을 동반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형태가 대화형 설교형태이다.

우리는 성경에서나 교회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손꼽는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절인, 죄인, 고아, 과부 외에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아무런 거리감이 없이 친근하게 접근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심령 속 깊이 굳어지고 닫혀져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변화되게 하셨다.

이처럼 대화형의 설교는 평상시의 말보다 더욱 청중의 마음깊이 말씀이 착상되게 하며 더욱 오랜 기억이 남게하여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도록하는 이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독창적이며 신선한 것은, 길가에 피어난 한송이 꽃이나 한 포기의 풀도 그분의 입에 오르면 신선한 예화와 훌륭한 설교재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짧은 말에 진리를 내포하였고 그분의 예화용법과 용어는 살아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웠다.²¹⁶

이야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 필요는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이다.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 이야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요점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사건들로부터 직접 언급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이야기체의 설교인 것이다.²¹⁷

대화형 설교형태는 설교자가 설교의 본문을 택하고 제목과 대지를 정함에 있어, 그 중심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수반하여 준비하는 것은 집중형 설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연구나 기도, 묵상도 중요시하나, 그에 못지 않게 설교자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이나 영력과 관계된 영성적인 면을 강화시켜서 준비하고 또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성과 관계된 영력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믿음과 마음으로 병들고 방황하는 심령을 치유해주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영적 능력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화형 설교형태는 성경본문에서부터 설교의 제목과 대.소지를 구성하는 과정까지에 그 본문내용과 의미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 설교의 특징이라고 할

²¹⁶ 後藤光三, *op. cit.*, 39-40.

²¹⁷ 하던 W. 로빈슨, *op. cit.*, 118.

것이다. 또한 앞서도 언급한 것 같이 설교자가 청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설교자와 청중간에 이야기식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전달됨으로 청중에게 깊은 의미를 기억하며 남기게 한다는 것이 대화형 설교형태의 특색이기도 하다.

3.2.3 혼합 절충형 설교형태

혼합절충형 설교는 집중형 설교와 대화형 설교의 장점들을 응용하고 절충한 설교형태를 말한다. 즉 설교를 준비하며 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설교자는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서 성경본문을 선택하며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구상하며 준비하게 된다. 이때 앞에 언급한 두 가지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전적으로 힘입어 나가야 하되, 청중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들을 종합 고려하여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심적인 고통과 불안 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말씀을 작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영성을 통한 말씀의 준비와 아울러 청중에게 선포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과 영력을 가지고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의 모범적이고 인격적인 삶이 진정한 사랑과 이해심으로서 청중들의 심령에 와닿을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때때로 중요한 핵심사항들에 대해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되 부담과 격의가 없이 대화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청중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도출해 내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자세와 반응이다. 오늘날 설교의 위기는 경청하는 진지한 파트너가 없는 설교의 현상이다. 청중도 들려지기만 바라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 참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교류야말로 생동감있는 말씀의 흐름과 만남의 초속이 된다.²¹⁸ 그와 함께 결과적으로 청중들이 설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납득이 됨으로써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저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교자가 도와주는 역할까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혼합 절충형 설교형태를 잘 응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집중형 설교나 대화형 설교보다 월등히 나은 가장 이상적인 설교패턴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설교형태는 준비과정에서도 본문선정에서부터 제목 및 각 대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든 설교의 요소들을 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설교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²¹⁸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340.

설교자와 청중 쌍방 간에 영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하나되는 결과를 이루어 그 선포를 통한 영향력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이상적인 설교패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혼합절충형 설교형태는 청중에게 이야기를 단순하게 전하려하기 보다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들려주는 설교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더욱 생생해질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²¹⁹ 장점이 있다.

즉 설교자는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 성경본문과 제목을 선정하고 또한 대.소지를 설정하되, 본문에 대한 폭넓은 성경연구와 아울러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학적, 언어적, 주해적인 절차로서 설교를 준비하며 또한 청중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설교자가 청중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청중으로 하여금 설교자의 인격적인 삶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그의 사랑과 인내, 관용이 포함되어 감지되게끔 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설교자의 평소의 삶과 생활자체가 그만큼 모범적이고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과 과정에서 필히 주의해야 할 점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설교자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능력있는 설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가 바로 영적능력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설교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드러내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설교를 위한 주요 말씀들이 권위를 가지고 울려 퍼진다. 이러한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임된 메시지에 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사상이나 그의 경건한 종교적 명상과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목적을 밝혀 주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에 있다. 설교자의 메시지는 또한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을 표명한 후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 이라고 덧붙였다. 죄로 눈이 먼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극히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가 신실하게 선포될 때 은혜의 기적에 의한 주권적인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생기게 하여 눈먼 자들이 보게되고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전 1:18 이하, 엡 2:1 이하). 설교의 신성한 능력은 항상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위해 남아있다.

²¹⁹ 이홍찬, *개혁주의 설교학: 성경신학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파주: 한국 학술정보(주), 2007), 245-6.

그 밖의 신약성경의 설교는 하나님의 강제라는 의미로 특징지어진다. 믿을만한 기독교 설교자는 복음을 개인적인 선택권이나 우선권으로만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도 복음을 선포한다(눅 4:43, 행 4:20). 여기에서 한가지 더 상고할 것이 있다. 설교자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하여서는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인격적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중들의 무거운 짐들을 지기 위해 자신의 양어깨 위에 그의 청중들을 짊어지는 자가 참된 설교자이다. 이는 마치 자신들의 어깨 위에 있는 마노 위에와 가슴에 붙인 가슴받이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같은 맥락이다. 진실한 설교자는 청중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에 그들을 품어야 한다. 이럴 때 설교자는 인간법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고, 또한 그가 얻게될 것은 청중 개개인과의 접촉에 의한 더 깊은 일치감이다.²²⁰

우리는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지도자 자격에 대한 성경적인 본보기 중 하나를 느헤미야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때때로 그의 방법은 다소 강경하게 보였으나, 그는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극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았다. 그의 인격과 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가 채택했던 방법들은 그 인격의 특성 때문에 매우 효과적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샌더스는 “느헤미야는 행정에서는 정력적이었고, 위기에 처해서는 초연했으며, 위협을 겁내지 않았으며, 결단하는데 용감하였고, 조직에서 완전무결하였으며, 지도자의 자리에는 사욕이 없었고, 반대 앞에서는 인내했으며, 위협에 직면해서 굴하지 아니하였고, 술책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인격적인 지도자였다.”²²¹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혼합절충형 설교형태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충고와 함께 앞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이론에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설교자의 인격과 그의 신앙적인 삶속에 적용해 나갈 때에 진정 이상적인 설교패턴이 될 것을 필자는 확신하는 바이다.

4. 결론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것은 설교자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요, 인생에게 주신

²²⁰ 아더 T. 피어선, *op. cit.*, 162.

²²¹ J. O. 샌더스, *op. cit.*, 231-3.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수단임에 틀림없다.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의 두 가지 특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로서 인정되어야만 하고, 그럼으로 이것은 신적인 특성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인간의 작용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계시로서 인정되어야만 하고, 그러므로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해석의 원리는 성경의 이 두 가지 국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성경은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전달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저자의 사고 속에 나타내어진 성령님의 생각을 경건하게 숙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중심해서 전체가 통일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딤후 2:15). 설교자는 필요한 은사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을 실제의 삶과 관련시켜 올바르게 전해야겠다는 끊임없는 열정(desire)을 가져야 한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즉 자기 노력의 열매를 거두려는 절실한 욕망없이 목회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설교단으로부터 은혜롭고 의미 있는 말씀이 넘쳐흐르려면 먼저 설교학의 원리들과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이 하나로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도우셨던 성령께서 설교를 행하는동안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도우시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롭고 능력있는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의 인격과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아성찰은 실로 소중한 것이다.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채 크리스찬으로 행세를 하면서 남긴 슬한 부작용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어느 신학대학 학장의 지적대로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교와는 달리 개신교의 성직자는 처자와 함께 살면서 아무런 구별된 표시도 없이 일상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도적 성결이나 덕행의 수행이 더욱 어려운 삶의 주인들이다. 그러기에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보다는 자신이 목사라는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냐는 자아성찰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반드시 자기가 하고있는 일에 붙잡힘을 당하고 끌려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는 그 문제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한다. 그는 스스로 그것으로 너무 감동되고 감격한 나머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갖기를 갈망해야 한다. 설교자는 회중들을 걱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을 돕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힘과 열심과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진실한 설교자는 설교사역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대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생명과 은혜를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목마른 열정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분 앞에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인하여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목메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과 제도가 주는 위로를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의 입을 만져 주시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설교자인 것이다.

설교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칠 때 그의 설교는 풍성해질 것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그의 삶 속에 충만할 때, 그 설교는 신적인 확신에 넘치는 설교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로빈슨, 해돈.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전의우 외 5인 역.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06.
- 백동섭. *새 예배학*. 서울: 중앙문화사, 1983.
- 샌더스, J.O. *영적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안시, 필립.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 이홍찬. *개혁주의 설교학: 성경신학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전희준, 이택희 공저. *예배음악의 이론*. 서울: 교회음악사, 1984.
-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80.
-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_____.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 존스, D. M. 로이드.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주성호. *21 세기를 위한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지글러, 프랜클린 M.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3.
-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권콜디아사, 1961.
- 타운스, 엘머.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後藤光三. *설교학*. 광철영 역. 서울: 제일출판사, 1969.
- Anderson, Robert C. *목회학*. 이용원 역.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2000.
- Braga, James.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Brubaker, V. R. "예배에 있어서의 교회음악." *교회음악*. 통권 7호. 서울: 교회음악사, 1976.
- Pierson, Arthur T. *설교의 영적 기술*. 피어선 성서신학교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 Reid, Clyde H.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Thielicke, Helmut.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심일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 New York and Sanfrancisco: Harper & Row, 197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 Cherry, Conrad.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6.
- Forsyth, P. T.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New York: George H. Doran Co., 1907.
- Kimnach, Wilson H. "Jonathan Edwards, Early Sermon." in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 (Fall), 1977.
- Knox, John. *The Integrity of Preach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57.
- Miller, Perry. *Jonathan Edwards*. Toronto: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1949.
- Perry, Lloyd M. *A Manual for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65.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 Thielicke, Helmut. *The Trouble with the Church*. trans. John W. Dobestein. New York: Harper & Row, 1965.

호주이민 1 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이민 신학

장경순 교수

이민신학, 기독교윤리학

목차

1. 들어가는 말: 새 가치관과 이민신학
2. 유교적 가치관
 - 2.1 긍정적 입장
 - 2.2 가문의식
 - 2.3 정(情)으로 본 가치관
 - 2.4 명분
 - 2.5 권위주의적 가치관
 - 2.6 결론
3. 보수지향적 신학적 가치관
 - 3.1 보수적 가치관
 - 3.2 보수지향적 기독교 가치관
 - 3.3 보수지향적 한국 교회
 - 3.4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논쟁
 - 3.5 결론

호주이민 1 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이민 신학

장경순 교수
이민신학, 기독교윤리학

1. 들어가는 말: 새 가치관과 이민신학

호주 한인사회가 호주에 형성된지 40 년을 넘기면서 1 세대에서 2 세대, 3 세대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모든 면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민신학적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동안의 한인교회는 1 세대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2 세대를 위한 교회가 함께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공존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2 세대들만을 위한 교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에 대학내에서 동아리 성경공부같은 시작에서 지금은 대학내에 기독교 서클로 등록되어진 단체로서 다문화적 형성을 이루어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1 세대의 신앙적 간섭이나, 문화적 강요를 받지않는 호주 속에서 모든 이들과 공감해 갈 수있는 교회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며,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볼 때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라 할 수 있겠지만, 2 세대의 문화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 발 맞추어 1 세대의 이민교회 역시 함께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이민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한인 커뮤니티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내면에는 가치관의 수용과 함께 이민교회의 변화 역시 요구받고 있는 과제라 하겠다. 2 세대가 주도하는 이민교회가 새 교회 모델로 나와야 할 것이다. 기성 교회의 구조와 형태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닌 포스트모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모델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들을 논문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어 나가면서 이민 신학을 선도하는 2 세대의 역할과 수용에 대해서 1 세대 목회자이면서 이민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1 세대

목회자들의 이민 신학 사상에 대해서 정리 하면서 2 세대가 어떻게 그 신학적 토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민 신학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대해서 논문에 담아 나아갈 것이다.

2. 유교적인 가치관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치는 인간 행동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인의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조직문화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여겨지며, 하나의 집단 공동체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忠) 과 효(孝)²²²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사회가 가족,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 등의 여러 수준의 집합체 가운데서 가족을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²³

이러한 유교적 문화가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것인데 이민 와서 타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한국인만의 독특한 문화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문화적 행동이 때로는 사회 가치 체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불이익을 보게도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소속된 사회에서 정당화되고 당연시되는 행동 원리를 따름으로써 성장과 생존을 보장받게도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민 1 세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호주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간의 갈등의 구조로만 인식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2.1 긍정적 입장

1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1 세대 생각과 행동은 구식이고, 2 세대의 행동과, 문화 체계가

²²² 충효(忠孝)는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 가지의 강년과 5 가지의 인륜을 말하는 것 중하나다. 이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오륜은 오상(五常) 또는 오전(五典)이라고도 한다. 이는 《맹자》에 나오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5 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道)는 친애(親愛)에 있으며,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人倫)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한다.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 출판사, 1999), 21.

²²³ 신수진, 최준식,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집문당, 2002), 20.

신선한 것이거나 옳은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나 돌이켜 본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1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성찰해 본다면,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에 있어서 애국심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효도, 인화단결, 충성, 검소, 적응성, 협동, 진취성, 건강, 숭선수범 등의 가치들을 1 세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집합주의적 가치 항목으로서 서로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²²⁴ 유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연결성이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가 이민 1 세대의 행동에 녹아져 있으며, 이런 것이 행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세대의 유교적 가치관은 호주 이민정착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서구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인화단결과 같은 협동심과 강한 책임감이 오늘의 한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초기 1 세대 이민자들은 힘든 노동을 바탕으로 가족을 이끌었어야 했다. 이렇게 힘든 이민 초창기의 생활에 있어서 한국인이 갖고있는 노동의 역동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본다면,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에 지배적인 가치체계로서 영향을 미쳐온 것은 ‘유교’에 초점을 두고 한국인의 유교적 가치 성향이 오늘의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 왔다고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의 특징은 다른 어떤 타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성향이라 하겠다.²²⁵ 이러한 면은 45 년이 넘는 오늘의 호주 이민 역사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본다.

유교 문화에 있어서 가족은 모든 사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그가 어떠한 신분의 가족에서 태어났느냐에 의해 귀속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²²⁶

2.2 가문의식

유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가족 안에서 한사람이 높은 지위나 명예로운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와 조상은 물론 그의 가까운 친족들의 지위가 함께 상승하게 되는 반면에, 친족 내의 한 개인이 중죄를 범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는 연대 책임을 지는 등 가족 및 친족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민 1 세대에게서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은 여전히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들은 몸으로 강당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2 세대인 자녀 세대를 통해서

²²⁴ Ibid., 22

²²⁵ Ibid., 22

²²⁶ Ibid., 23

대리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하면서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세대가 1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문 의식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 의식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였다. 유교적 가문 의식²²⁷은 2 세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이런 영향력은 타민족에 비해서 탈선율에 있어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바른 성장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유교적 가치관의 또 하나의 긍정적 영향은 교육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가족의 구성을 운명 공동체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1 세대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강한 책임감과 집착을 보여왔다. 자신들이 이민 1 세대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호주 주류 사회로의 진출에 있어서 2 세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높은 교육률에 있어서 기대는 대리적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신분 상승을 통한 만족을 기대하는 것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여기서 1 세대와 2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1 세대 자신이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가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1 세대는 2 세대가 측정하고 체감하는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2 세대는 서구 문화의 교육과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온 세대로서 직업 그 자체를 하나의 calling 으로 받아들이지만, 유교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1 세대는 가문 자체가 calling 이기 때문에 경제구조적 사회정서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가치관이라 하겠다.

유교는 정신적인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재물은 수단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이 없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재물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유교는 일반 사람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食(식)과 재물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교 경전인 맹자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일정불변의 생업이 없더라도 일정불변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야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못하게 된다.
정말이지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하고, 고집부리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제 멋대로 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그들을 죄에 빠지도록 해놓고, 그리고서
그들을 처벌한다면 마치 백성들을 그물로 낚아내는 썸이니, 어찌 인자한 사람이
임금의*

²²⁷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문을 영구히 이어간다는 의식이 미약했다고 본다. 따라서 재산과 조상을 모시는 문제 등에 있어서 자녀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물려받게 하는 규범 등을 통해서 가문의식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유교적 가문 의식이라 하겠다.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²²⁸

이상과 같은 글에서 전통사상(유교사상)이 일반사람에 있어서 향산(생업 혹은 산업)이 없으면, 향심(도덕 혹은 윤리)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맹자의 인용구 이외에도 서경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서 세가지 항목(3사)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덕, 이용, 후생이 그것이다.²²⁹

이상의 내용을 유추해 볼 때에 전통 사상이 근본에 있어서 재물을 천시하고 산업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구조의 차이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²³⁰의 추구 과정에서 재래의 유교 문화가 재화를 경시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경제 사회의 측정 가치로 볼 때에 물질적 빈곤을 초래한 것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가문 의식이라 하겠다.

1 세대가 모두 이런 가치관으로 항시적으로 이민 삶 살아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좌절감과 빈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1 세대의 자존감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런 갈등과 좌절을 극복하는 길로 기대하며 살아온 1 세대에게 있어 2 세대는 신분 상승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신앙에 있어서 역시 많은 부분을 신분 상승적인 가치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민 1 세대가 교회에서의 신앙과 함께 따라오는 직분 역시 유교적 가치관의 시각으로 볼 때 1 세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은 이민 교회를 성장시키는 조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이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되기도 하였다. 호주 시드니에 한인 교회가 2012년 현재 공식적인 교회로만 250 개가 넘는다²³¹는 것은 단순히 수적 성장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250 개 교회라는 교회의 수적인 증가의 원인 가운데는 분열에 의한 수적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때 1 세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무관한 가치관의 문제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2.3 정(情)으로 본 가치관

유교에서 강조되는 인(仁)²³²이 한국인 에게는 정(情)의 형태로 드러났다. 정은 어떤 면에서 가장 한국인다운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인의 심성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²²⁸ “한국의 시민사회와 유교문화,”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2004), 11, 13-50. 재인용.

²²⁹ *Ibid.*, 49.

²³⁰ 주자학적 전통이 강한 곳에 도덕적 엄숙주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²³¹ *호주 크리스찬 리뷰*, 8 월호, 2012

²³² 공자의 사상은 ‘仁’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된다. 인이란 어떤 하나의 덕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덕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자의 사상은 안자. 증자 등을 통해서 자사에게 전해지고, 자사는 또한 자기 학문을 맹자에게 전하여 유교사상의 학맥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정(情)이다. 한국인은 마음이 통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지칭할 때 ‘인간적인 관계’라고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적인’이란 말은 정(情)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정(情)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짓는 척도이기도 하며, 애증(愛憎), 호불호(好不好)²³³, 친소(親疎)²³⁴ 등의 이분법적 판단을 갖게 하기도 한다.²³⁵

가족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情)의 관계가 이루어 진다고 봐야 하지만, 사회 공동체로 확장 되어서도 하나의 연결망처럼 끈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민 1 세대의 호주 정착 과정을 볼 때 정(情)으로 맺어진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인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베트남 패망 후 호주로 함께 입국한 당시 한인 1 세대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직업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사면령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하나의 집단 공동체와 같이 움직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인(仁)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한국적인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 개념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첫째, 인간 관계를 말할 수 있겠다. 초기 한인 1 세대 역시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간의 어려운 처지가 같은 상황이었기에 서로 같은 힘을 합해 나가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었다. 이것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느끼며 함께 해 왔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며 지내왔다. 이민 초창기에 신분이 어려운 처지에 누가 먼저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자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중고 자동차 한 대는 모두의 출근 차량이었으며, 함께 갖게 된 재산이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국인만의 독특한 사랑을 말한다면, 강한 모성과 같은 사랑을 말할 수 있다. 논리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1 세대의 초창기 이민 정착에 있어서 정(情)이란 이렇게 따뜻한 온도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며,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이루어 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2.4 명분

황준연, *한국사상의 새 길잡이* (서울: 박영사, 2003), 64.

²³³ 좋음과 좋지않음.

²³⁴ 친한 것과 소원한 것

²³⁵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0), 143.

유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명분이란 개인이 아닌 집단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 또는 소속 집단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분을 갖는 움직임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과 함께 유교적 가치관이 역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한인교회는 확장되어질 수 있었으며, 기독교 신앙관의 내면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1 세대의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호주 한인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운영의 구조적인 면에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교회 조직에 있어서 주요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효(孝) 사상으로 볼 때, 한인 교회 중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치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없다. 한인회 역시 노인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부분에서 공을 드리고 있다. 교회의 구조적인 면에서 1 세대 부모들이 존중되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가 교회를 안정되게 성장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에 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당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교회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결정 기구처럼 되어 있다. 이것 역시 호주의 평등 문화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회의 기본 단위적 입장에서는 호주 교회도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서적 구조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주교회가 갖는 당회의 권위와 한인교회가 갖고있는 권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 번째 교육을 중시하는 한인 1 세대들의 가치관에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다. 교육의 강조는 45 년만에 비약적인 한인 공동체를 발전시킨 토양을 만드는 데 절대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2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1 세대의 가치관이 2 세대로 하여금 호주 주류 사회로의 진출을 이루어 가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교육에 대한 강조는 가족 의식에 대한 강한 가치관이 작용한 원인으로 볼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의 계승이나, 가업을 이어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나,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孝心)을 갖게하는 데 있어 함께 작용하게 했다. 유교적 문화 유산은 한국인의 생활 영역에 있어서 유교적 방식에 의하여 인간관계를 조절하고 자신들의 생존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의식인 혼례, 장례의식인 장례, 제사 의식인 제례, 성년 의식인 관례 등을 들수 있겠다.²³⁶ 가족 공동체의 집합주의가 확산된 형태가 공동체에서도 복종을 가져오는 수직적인 유교 가치관이 만들어낸 힘이라 하겠다.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해 줌으로써 교육의 정당성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런 의식은 더 나아가서 자발적인 복종을 갖게 만드는 질서를 가져왔다. 유교적 가치관은 위계 서열을 중요시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서구 문화의 수평적인 관념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효과까지 만들었다고 본다.

²³⁶ 한국사상의 새 길잡이, op. cit., 77.

네번째로는 명분중시가 한인 1 세대의 가치관이라 할 수있다. 명분은 개인에게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 또는 소속 집단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게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체면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치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²³⁷ 이렇게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1 세대는 정당성이 있다는 정의를 내리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나타나며, 때때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내기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1 세대의 가치관은 호주 이민 정착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었다는 것이다. 초기 시드니 한인 연합교회를 연합교단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1 세대 성도들의 경제적 현실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워 간다는 명분은 하나님 앞에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 드린다는 명분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힘은 유교적 가치관이 녹아져 있는 1 세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동기적 작용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교에서 가르침을 보면, 관용, 융통성, 조화, 협동, 근검 절약 등이 있는것 처럼 한인들의 이민 삶 속에서는 유교적 가르침이 한국인의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2.5 권위주의적 가치관

유교 철학은 권위적이며, 사회 계층 구조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상택 박사는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에 도덕률을 신앙 생활로 수용하는 한편 유교 철학이 가지는 권위주의와 계층구조가 자리 잡은 생활 습관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계층 구조는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등과 같은 섬김의 은사를 교회 내의 서열 제도와 지배 계급이 되게 하였다.²³⁸

힘든 이민 삶을 살아가는 1 세대 한인들에게 있어 교회는 유일한 권위와 지위를 회복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하겠다. 유교적 가치관에 익숙한 1 세대들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자존감에 있어 깊은 상처를 받아가면서 이민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직분은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면서 활동 무대가 되었다.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게 이민온 시기와 나이에 따라 교회를 출석했던 연도 수에 따라 직분이 분배되어지는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호주 한인 이민 교회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면서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심지어 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장로로 피택되어지지 못했을 경우 작은 교회를 출석 하면서 짧은 시간에 장로 직분을 받은

²³⁷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9), 76.

²³⁸ 이상택, *새교회와 새 땅*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105.

후에 다시 큰 교회로 옮겨가서 시무 장로로서의 권위를 갖고자 하는 것처럼 신앙과는 무관한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1 세대 신앙관의 현실이었다.

지배계급(ruling staff) 구조로 성장해 가는 한인 교회가 갖는 부작용은 신학 성찰의 빈곤과 사회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평가에 대한 바른 입장을 갖지 못한²³⁹ 호주 한인 이민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권위주의적 모델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유교의 권위주의와 계층 구조가 호주 이민 교회에 그대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제 2 세대 한인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는 호주 한인 공동체는 이민 교회만이 갖는 이민 신학의 성서 해석을 갖는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인 교회가 과연 호주 다문화 정책과 서구 문화 교육으로 성장한 1.5 세, 2 세들을 어떻게 담아 갈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로서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2.6 결론

모든 역사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는 사관이라는 것이 있다. 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이민 신학적인 사관에 의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1 세대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1 세대 가치관의 그 뿌리는 유교적 가치관에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은 초기 이민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검소하면서도, 솔선수범 하였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책임감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에 수많은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가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록 호주 이민 정착 1 세대로서 힘겨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2 세대인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그 기대를 이루고자 했던 의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민족보다 건강한 한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맺어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유교적 가치관이 1 세대에게는 깊이 자리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감과 가정을 지켜 가고자 하는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 내면에는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있으며, 무슨 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명분을 주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1 세대만이 갖는 흔들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유교적 가치관은 하나의 신앙이라기 보다 한국인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호주 한인 1 세대의 중심되는 역동성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주로 정착을 결정하고 들어온 1 세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의 고국의

²³⁹ Ibid., 105.

경제적 현실이 얼마나 암울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1 세대는 치열한 전쟁을 경험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가족과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했다.

초창기 한인들의 삶의 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한인교회 공동체는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기에 큰 힘이 되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이 인화단결을 이루어 왔으며, 함께 협동을 이루었으며, 모든 것을 참아내며 검소함과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호주 사회에서 힘겨운 일들을 해내면서 정착해 왔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녹아져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삶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호주 한인 1 세대는 이렇게 호주 문화 속에서 한인 이민자로 흔들림 없이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갈등도 많았으며, 아픔도 많은 45 년의 호주 한인 공동체지만 이제는 2 세대, 3 세대를 통해서 더욱 더 건강하고, 성숙한 한인 2 세대의 길을 열어 가게 하는 데 좋은 토양이 되어 주었다.

3. 보수지향적 신학적 가치관

3.1 보수적 국가관

리처드 니버(Richard H. Niebuhr)가 말하기를 신학 사상을 말할 때 신학은 사회적 범주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했다.²⁴⁰ 사회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은 특별히 호주 한인 1 세대 이민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고국을 떠난 그 시점은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 만큼이나 다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고국을 떠난 시간으로 사회적, 문화적 한계와 단절을 보여주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민자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먼저 보수주의라는 어원적 뜻을 말한다면, 보수주의는 관습적인 어떤 것, 즉 ‘전통’을 굳게 지키고 그 기반으로 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이념을 말한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래서 여타의 다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들, 예를들어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파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의미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²⁴¹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 년 광복 이후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자유 민주주의와 1950 년부터 1953 년까지 치러진 민족적 비극인 한국 전쟁과 국제적인 냉전 대립으로 인해 강화된 ‘반공주의’가 보수 지향적 가치관을

²⁴⁰ 오상철,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조명한다* (서울:쿠파출판사, 2008), 112.

²⁴¹ *Ibid.*, 113.

갖게된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띄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보수주의는 유럽이나, 영국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다른 한국만의 특색있는 보수주의라고 봐야 하며, 보수의 지향성은 미국의 영향이 많이 녹아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근대화 변화 시기를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몸부림을 치던 시기였다. 이때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는 경제 발전이었으며, 분단국으로 안고 있는 위기 또한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동족 간의 전쟁 위기 속에 있었다. 세계적인 정치 상황 역시 그리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결국 이데올로기의 갈등속에 베트남 전쟁²⁴²이 터지게 되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 했어야만 하는 어려움 가운데, 놀랍게도 베트남 파병을 국가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우리의 젊은 아들들을 파병하게 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그 내면에는 놀랍게도 나라를 생각하는 한국 민족으로서의 보수적인 애국심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서 베트남 파병은 자발적인 파병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나라를 향한 국가관은 어느 나라 어느민족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온 국민이 하나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보수 지향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국가라고 하겠다. 특별히 6.25 사변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이념으로 인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한 국가관과 보수 지향성을 갖게 하였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온 1세대 실향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국가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한 한 축을 이룰 만큼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의 고도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 시대에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인이 가져야 하는 국가관이 어떠한지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실 ‘사회적’이란 말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civilization)은 곧 문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니버는 이러한 문명을 그 시대의 종교적인 현상과 영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제라고 정의하였다.²⁴³

데이비드 실드(David L. Shields)는 “고정관념은 계급주의를 낳게 하며 그 근원은 이중주의(dualism)에서부터”라고 말한다. 즉 영. 육, 남. 녀, 빈. 부, 흑. 백, 지식층, 무식층, 교역자. 평신도 등의 이중주의 가치관이 우월 관념을 낳고 압력자와 눌린 자를 낳는 다는

²⁴² 베트남 전쟁은 1955년 11월 1일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공산군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종전되었다. 월남전쟁 또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한다.

²⁴³ Ibid., 113.

것이다.²⁴⁴ 데이비드 실드의 사상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1 세대 호주 이민자에게서 여실히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문화의 고립이란 표현을 감히 담아 본다면, 1 세대 이민자들은 비록 호주라는 서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호주 문화와 무관하고, 한국문화와도 무관한 고립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이민 개척의 삶을 살아왔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신분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로 3D 업종²⁴⁵이나 3S 업종²⁴⁶이라 할 수 있는 직업에 대부분이 종사하게 되면서 어려운 이민 삶을 일구어 왔던 것이다. 오로지 희망을 가져 본다면, 자녀 세대인, 1.5 세대, 2 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통해서 보상 받고자 하는 힘겨운 이민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의 고립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립적 반응은 이민 교회 안에서 계급주의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게 되었으며, 보수지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2 보수 지향적 기독교 가치관

한국인의 보수주의적 기독교 가치관을 말한다면 먼저 율법주의에서 부터 접근해야 한다. 율법주의란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외형적 조문에 집착하여 문자적인 해석을 율법 해석의 유일한 원리로 삼고, 그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온 관심을 기울이는 일단의 경향 혹은 태도²⁴⁷를 의미한다. 이것이 그 원론의 영역에 적용될 때에는 구원을 위해 율법을 준수하며,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선행을 근거로 하는 공로주의적 신앙 체계를 말한다.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전통적 정의 외에 교회 정황의 변천과 함께 나타난 오해나 개념의 변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이 단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1 절 유교적 가치관에서 언급한 것 처럼, 한국인이 역사 속의 문화로 받아들여진 체면 문화에 익숙한 유교적 문화, 더 나아가서 불교 문화, 양적 성장 논리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나타난 질적 성장과 불균형 현상이라 하겠다. 한국 교회는 체제 유지를 위한 신앙의 이데올로기화, 교회의 위계적 권위 구조등 이 모든 요인들이 신앙적인 삶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상택박사 역시 자신의 저서 “새 교회과 새 땅”에서, 한국 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 구조와 지도권 내에서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⁴⁸ 호주 한인 1 세대 역시 고국에서의 이러한 문화와 신앙적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

²⁴⁴ Ibid., 119.

²⁴⁵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²⁴⁶ 규모가 작고(small size), 임금이 적으며(small pay), 단순한 일(simple work).

²⁴⁷ 김진영, “율법주의,” *신학 사전*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연도), 536.

²⁴⁸ 이상택, *새교회와 새땅*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1), 103.

세대들이므로 호주 한인 이민 교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보수지향적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은 한인 교회 안에서의 보수 지향성은 교회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

초기 한인들은 이러한 신앙적 이데올로기가 우선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서로 모여서 위로하며, 정보를 나누고자 함이 우선 순위 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첫 번째 사면령²⁴⁹을 받게 되었고, 가족을 초청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아 가게 되었다. 교회는 초기 한인들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조직과 질서가 요구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목회를 감당해 줄 목사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인교회는 공식적인 교회 명칭을 “시드니 한인 연합교회”로 하면서 비로서 조직 교회로서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신앙적 방향을 드러내는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이 보여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주 한인 교회는 교민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저마다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겠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가장 먼저 분파적 교회로 나서게 된 명분은 장로교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가겠다는 신앙적 의지를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며, 이복을 고향으로 둔 한인들을 중심으로 개척된 시드니 영락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 되었으며, 침례교, 순복음, 더나아가서 보수적 신앙을 지향하는 고신측 교회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와 교단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한인교회들은 대부분이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로 개척되어졌다.

1972 년부터 2012 년까지 현재 시드니에만 세워진 한인 교회가 300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²⁵⁰, 한국어 과정으로 세워진 신학교만 6 개²⁵¹나 되며, 앞으로도 한인 교회는 지속적인 숫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3 보수 지향적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를 말한다면 한마디로 보수지향적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한국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신앙관이 보수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국 땅에 들어온 때부터 한국인의 신앙관을 봐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복음과

²⁴⁹ 1976년 1월 26일 호주 한인 이민사회가 비상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호주 건국 기념일을 맞아 호주 정부가 호주 내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이른 바 1차 사면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 사면령으로 영주 비자 승인을 받고 신원조회 신체검사를 준비하던 한국인 486 명이 곧바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 *호주 한인 50년사* (호주한인 50년사 편찬 위원회, 2008), 62.

²⁵⁰ *크리스찬 리뷰* 참조,

²⁵¹ 시드니에만 현재 한국어 과정으로 세워진 신학교로는(웨슬리 신학대학교, SCD(시드니 신학대학), 성결교 신학 대학원, 호프 칼리지, 알파크루시스 칼리지, 코람데오 신학원)등이 있다.

서구 문화를 접하였고 이를 한국 토착 상황에서 해석하여 수용하였다.²⁵² 그 결과 한국이란 토착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이 수용, 해석, 적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유교적 전통까지 연결되면서 한국만의 기독교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두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내적 상황을 보면 첫째,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된 분파적 교회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교사들에 의해 추구된 교회 연합운동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참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외적 상황은 첫째, 한말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갈등과 마찰 문제를 들 수 있으며, 둘째, 선교사들의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의 오류와 모순을 돌이켜 봐야하며, 한국적 신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²⁵³

호주 이민 교회 역시 한국 교회의 보수 지향적 신앙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호주 이민 교회 역시 보수적 신앙에 치우쳐 사회나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편이라 하겠다. 호주 한인 이민교회의 내적 상황을 보면,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계급 의식, 남녀 차별의식이 강하다. 특히 교역자 중심의 권위적인 목회 스타일은 평신도들의 영적 개발과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민 교회의 분파적 교회로의 변화 역시 한국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들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하겠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강력한 교파와 교단을 중심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²⁵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파와 교단, 심지어 지역주의까지 만들어 내는 분파적 교회를 만들어 내었다. 미국 장로교,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미국의 감리회, 남감리회, 영국의 성공회, 기독교동신회, 그리스도인의 집회소, 형제과, 플리모드형제단, 구세군, 엘라딘선교회(침례교회), 동양선교회(성결교 모체), 러시아정교회, 안식교회, 일본조합교회, 20 세기초 한국선교 상황은 서구 기독교 분파교회 전시장과 같은 형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²⁵⁵

이러한 한국교회의 분파 형성은 여전히 보존되고, 성장을 거듭해 왔다. 더 나아가서 한국형 교단 분열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교단적 영향은 호주 이민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교회의 분파는 곧 성도들의 신앙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 역기능적인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말았다.

²⁵²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91.

²⁵³ 한국기독교 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2* (서울:기독교문서, 2009), 154.

²⁵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1829년 뉴욕에서 태어난 중국 지푸에서 사역하고 있던 프린스톤 신학교 출신 북장로교 선교사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ivingston Nevius)에게서 유래 되었다. 초기 한국에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20대 젊은이들로 브라운 선교사가 지적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뛰어난 잠재력이 있었지만 선교 경험이 없었다. 게일이 25세, 언더우드가 2세, 아펜젤러가 27세, 알렌 의사가 27세 그리고 그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스크렌톤 선교사도 29세에 불과했다. 참고로 호주 멜본 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21세였다. 박용규, “한국교회 선교 정책으로서의 네비우스 정책” (Nevius Methods as a Mission Strategy in the Korea Mission Field).

²⁵⁵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 *목회와신학* (두란노서원, 2000, 9), 121.

3.4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 논쟁

해방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와 친일 행위를 한 일제 식민 잔재 세력인 교회 지도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려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성결교, 안식교, 침례교, 구세군 등은 교단 지도자들의 신사 참배나 친일 행위를 일제에 의해 강요된 불가항력으로 간주하고 신앙 정절 문제로까지 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교단 재건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²⁵⁶ 감리교 역시 지나치게 친일한 목사들만이라도 제거하자는 안을 부결시킬 정도로 일제 치하에서 교단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신사 참배나 친일 행위 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교단 장악을 목적으로 잠시 재건파²⁵⁷와 부흥파²⁵⁸로 갈라졌으나, 1949년 4월 20일에 양쪽은 정동교회에 모여 무조건 통합에 합의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장로교의 움직임만은 특이했다. 장로교는 나라가 미, 소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도 권력 장악을 위해 국내파, 해외파, 친일파, 간에 혈쟁을 불사했던 해방 정국과 거의 일치했다. 한상동 목사를 비롯해 출옥 성도들은 1945년 9월 20일에 한국교회 재건을 구상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했으니 권징의 길을 취해 통회 정화한 후 교역에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²⁵⁹ 출옥 성도파가 신사 참배를 문제 삼아 교회 정화를 주장한 것이다.

1946년 9월 20일 그들에 의해 고려신학교가 개교하면서 고신측은 점점 힘을 결집해 나갔다. 그러나 1951년 5월 24일 부산에서 속개된 제 36회 총회는 고신측이 배제된 경남노회를 총대로 인정하고, 총회 석상에서 정죄되 거세된 고신측은 경남법통 노회를 조직하고 독립 교단을 세웠다.²⁶⁰ 이로서 고신측은 해방 후 신앙 정절을 문제 삼아 신학 논쟁을 벌인 첫 교파가 되었고 교파 분열의 첫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고신측의 한국 교회사적 의의도 배제할 수 없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친일 행위와 신사참배로 반민배교(反民背敎)를 자행한 일제 잔재 세력에 의해 거의 장악당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대다수 친일 부역자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신측이 환기시켜 준 것이다.

해방 후 한국 신학계의 사활을 건 신학 논쟁은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사이에 정경관의 차이로 촉발되었다.²⁶¹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박형룡 목사와 김재준 목사 사이에 오래 전부터 쌓아온 미묘한 개인적 감정과 개교 명분으로 교단의 정서상 수용하기

²⁵⁶ 이원규,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기독교대한 감리회 출판국, 2010), 248.

²⁵⁷ 일제 치하 교단에서 소외되어 추방된 소수파

²⁵⁸ 일제에 순응하며 교단을 장악한 다수파

²⁵⁹ 한승홍, “광복 60년사와 맞물려온 한국 신학의 변천사,” *목회와 신학* (2005, 8), 75.

²⁶⁰ *Ibid.*, 75.

²⁶¹ *Ibid.*

어려운 조선신학교의 개교 목적 등이 교단을 분열시킬 정도로 신학 논쟁을 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신학적인 문제에서 합리적 해석을 거부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주의와 성서와 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유주의 사이의 신학적 차이는 신앙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 서로의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²⁶² 이런 현상은 호주 이민 교회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인 교회 분열의 원인과 현상이 한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적 현상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이민 역사 45 년을 넘겨 오면서 1 세대의 보수 지향적 가치관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2 세대, 3 세대로 나아가야 하는 호주 한인 이민교회는 이민 신학적 해석과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하는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1 세대 교회는 지나치리만큼 보수주의적 신학을 고수해 왔다면, 2 세대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호주 한인 이민교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사회 윤리와 도덕적인 참여에 있어서 호주 한인 교회는 호주 사회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2 세대로 하여금 호주 주류 사회에서의 성숙하고, 자유로운 윤리의식을 열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호주 안에서 타민족의 지나친 종교적 보수성은 때때로 사회 변호에 저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슬렘의 종교의식과 여성들의 복장을 볼 때, 뚜렷한 민족적 선을 긋는 행위로 강하게 어필되는 것을 본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보이면서, 민족의 보수적 가치관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호주 한인 교회가 이민 신학적 입장에서 성장과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선명함과 유연성을 함께 들어내는 이민신학적인 해석과 실천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갱신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3.5 결론

지금까지 1 세대의 보수 지향적 가치관에 대해서 4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보수적 국가관, 둘째, 보수지향적 기독교 가치관, 셋째, 보수 지향적 한국 교회, 넷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 논쟁의 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한국교회의 중심은 여전히 보수 지향적이란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영향은 호주 이민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1 세대의

²⁶²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op. cit., 250.

보수적 가치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한국에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란 사실과, 여전히 이민 신학적인 적용과 이해에 대한 부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주재용 박사는 “한국교회와 권위주의”라는 글에서 한국 교회 지도권의 본질은 권위주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⁶³.

호주 이민 역사 45년 동안 10만을 넘기고 있으며, 시드니만 해도 6만²⁶⁴이 넘는 한인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한인 교회수가 300개에 달한다. 이제는 1세대만의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더이상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실에서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며, 호주 사회로 부터 영향력을 갖는 도덕성과 윤리성, 더 나아가서 사회 참여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2세대와 함께 이민 신학의 토양을 만들어가며, 함께 고유하는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는 호주 한인 세대와 이민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상택 박사는 “새 교회는 하이픈 교회(Hyphen Church)” 곧 두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 하이픈 교회는 두 문화 속에 있는 이민자들의 장래를 인도하는 교회이다²⁶⁵. 라고 하고 있다. 보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두 문화 속에 살고있는 이민자로서 예수 문화를 이루어 가는 가치관으로 변화 될 때 보수적 가치관을 뛰어 넘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건강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²⁶³ 새교회와 새땅, op. cit., 재인용, 104.

²⁶⁴ Top Woman Magazine (2012, 7, 23).

²⁶⁵ 새교회와 새땅, op. cit., 176.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난 교회와 정치에 관한 고찰

박영식 교수
교회사

목차

1. 서론
 - 문제 제기
 - 연구 방법과 목적

2. 본론
 - 2.1 성서적 고찰
 - 2.1.1 구약성서적 근거
 - 2.1.2 신약성서적 근거
 - 2.2 칼뱅의 개혁주의
 - 2.3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역사적 분석
 - 2.3.1 개화기 초기
 - 2.3.2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
 - 2.3.3 4.19혁명과 박정희 정부 시기

3. 결론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난 교회와 정치에 관한 고찰

박영식 교수
교회사

1. 서론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정치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정치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역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정치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사람 하나 하나가 뭉쳐서 하나의 정치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존엄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을 수 없지만, 과거나 현재의 모든 사회는 거의 다 균형을 잃고 무질서 속에서 대다수의 원망과 절망의 도가니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²⁶⁶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 지도자나 예언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국가 지도자의 역할의 함수 관계가 당시의 시대를 구분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되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신학자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 개혁시대의 마틴 루터, 요한 칼뱅, 청교도 시대의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근현대사로서 독일의 본 회퍼, 칼 바르트²⁶⁷ 등,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²⁶⁶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밀란 칙령,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과 사건, 카톨릭의 굴욕 혹은 반대 개념으로서 아비뇽 유수를 예로 들 수 있겠다.

²⁶⁷ 마틴 니펠러 등 고백 교회 목사들의 조언을 얻어 칼 바르트가 작성한 바르멘 선언은 독일 교회는 국가의 기관이 아니며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교리적으로 틀렸다고 재차 선언했다. 이 선언은 그 핵심 내용에서, 어떤 국가도, 심지어 전체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백교회는 실질적으로 나치의 승인을 받은 제국교회(Reichskirche)들이 이교적이라고 선포한 것이었다. 바르멘 신학선언: 1934년 5월 31일, 독일 고백교회 총회는 히틀러와 그의 지원을 받고 있던 독일 기독교인 연맹(Deutsche Christen)에 대항하여 “바르멘 신학선언”을 발표하였다. 히틀러의 침략행위를 신학적으로 정당화 하려고 했던 독일 교회의 이러한 행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목사들은 1933년 9월 긴급 목사 연맹을 조직하였고, 이러한 저항 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독일 개신교 고백 공동체(Bekennnisgemeinschaft der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가 탄생하였다. 독일 개신교 고백교회는 1934년 5월 29일에 바르멘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때 발표할 총회 성명서를 만들어 고백교회가 승인한 신학성명이 “바르멘 신학선언”이다.

깊은 관심을 가졌다.²⁶⁸ 크리스천은 자연인이며 동시에 한 국가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지 전능한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은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교회와 국가라는 ‘두 정부’ 사이에서 늘 긴장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란 헌법이 국가의 조직과 권력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치 국가를 말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 원칙²⁶⁹ 아래 상부 상조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토마스 제퍼슨²⁷⁰이 정교 분리를 언급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향해 어떠한 정치적 소견도 갖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보다는 국가 제도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종교적 편향성이나 경외감을 배제시키고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강제시키지 않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에게 정치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확보하고 국가 자체에 있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한국도 헌법에 정교 분리를 명시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 중의 하나이고²⁷¹, 특히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 하였다. 개화기의 독립 협회 운동에서부터 오늘날 남북 통일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태도와 방식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권력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비판적이며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정치 참여 방식에서도 기도회, 사회 운동과의 연대, 정당 결성, 개인의 정당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와 정치 참여 방식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일까?

²⁶⁸ 김명혁 외, *현대교회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강인철,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및 개신교의 정치 사회적 태도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1995); 강원돈, “독일의 사회 복지 체계에서 교회 복지와 국가 복지의 연계 원칙과 그 법제화,” *신학사상*, 제 144 집, 봄호, (서울:한국신학연구소, 2009), 161-93 각각 참조.

²⁶⁹ 본래 정교분리라는 말은 1802년 덴버리 침례교로 보내는 토머스 제퍼슨의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다.

"Believing with you that religion is a matter which lies solely between Man & his God, that he owes account to none other for his faith or his worship, that the legitimate powers of government reach actions only, & not opinions, I contemplate with sovereign reverence that act of the whole American people which declared that their legislature should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us building a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 State." -Jefferson, Thomas. "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 (1802.1.1).

제퍼슨이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종교적 경외심이 각 개인의 문제이니만큼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각 개인의 종교적 활동 자체도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²⁷⁰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년 4월 13일 ~ 1826년 7월 4일)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3번째 미국 대통령(재임 1801년 ~ 1809년)이자 미국 독립 선언서의 기초자이다(1776년).

²⁷¹ 대한민국 헌법 제 20 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문제 제기

문제 1, 내년 11 월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점점 흥미진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수가 많다. 그 중에는 '종교'도 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이 오랜 시간 뿌리 내렸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는 감소 추세이지만, 그래도 정치권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얼마 전 종교 면에 기독교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그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다. 시발점은 동성결혼 합법화였다. 파장은 컸다. 동성결혼을 반대해온 보수 기독교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 충격이었다. 충격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시대적 위협 또는 폄박으로까지 해석했다. 현재 그들은 결집 중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이미 미국 내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동성 결혼, 낙태 등 종교와 상충하는 사회적 이슈를 두고 설교, SNS, 성명서 등을 통해 계속해서 결집을 외치며 신앙적 신념을 고취시키고 있다.

문제 2, 보수 기독교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어 교회)의 세월호 참사 망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목사는 20 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기총 회의실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²⁷²

문제 3, 논문 표절과 교회의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재정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2014 년 4 월 27 일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목회자들과의 세미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정몽준 후보 아들의 소위 ‘미개한 국민’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 목사는 “정몽준 씨 아들이 (국민들이)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며 이어서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두 목사는 한국 보수 기독교의 주류 교단인 한기총의 핵심 임원이고, 또 오 목사의 사랑의 교회는 한기총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한국 대형교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슈들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 입장’이다. 기독교인의 사고와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볼 때, 기독교인의 정치적 태도²⁷³와

²⁷² 크리스천투데이 2014, 5 월 23 일자.

²⁷³ 2014 년 6 월 11 일, KBS 뉴스 9에서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지명자 문창극이 2011 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 교회 양재 캠퍼스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문창극은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씨 조선 시대부터 깨울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라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데 성서를 해석하는 관점이 유일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지만, 그에 접근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신학이며, 따라서 각각의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와 정치 참여 방식이 어떠한 신학적 연관 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에는 정치와 관련하여 연역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말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서 성서에서 바람직한 정치 이념을 도출하려 한다면 입장에 따라 그 결과물들이 서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입각하여 제도나 이념을 성서에 근거하여 논하면,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엉뚱한 말의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는 성서적이지 않다”라거나 “아무리 독재자라도 하나님은 권력자를 축복하신다”, “신앙인은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옹호해야만 한다” 따위의 주장이다. 이 주장들은 성서의 구절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지만, 성경의 정신과 내용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근본주의 문자주의의 한 극단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음의 정신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말들이다.

그래서 본 논문이 의도하는 것은 과연 현재의 교회 상황과 정치에 관계성을 몇몇 역사적 사건 속에 드러난 교회와 교단의 반응들을 신학적으로 재 조명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복음 안에서 신학과 목회를 함께 병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목적

본 연구는 주로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적인 통합 교회사 서술 방법을 결합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틀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한국 개신교는 국가와의 관계 또는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개신교의 인식은 정치참여의 방향 및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개신교는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정리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수주의, 진보주의, 저항적 진보주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셋째,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몇몇 중대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두드러졌던 신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근 현대사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고 적용하며 기독교의 정치참여 사례 분석을 시대별, 분야별로 나누어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토대로 한국 개신교의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조선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민족성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독립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치 참여에 관한 신학적 입장을 정립해 볼 것이다.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교회의 역할에 관한 모형을 세우고, 분석의 틀을 만들어 사례 분석의 기틀로 사용하고, 좀 더 나아가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사회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먼저 본 논문의 주제인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바하(J. Wach), 잉거(Yinger)의 정치 종교 이론들을 살펴 보자.²⁷⁴

바하(J. Wach)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국가)와의 관계(church-state relation)는 우선 그 역사적 발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되어 왔다.²⁷⁵

그 첫째 단계는 고대 희랍이나 중세 일본에서처럼 세속적 집단과 종교적 집단이 동일시되는 정교합일의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이스라엘, 로마 등에서처럼 종교집단들이 상대적으로 독립과 자율권을 누리는 가운데 정부와 제의조직이 별도로 발달하는 이른바 정교분리의 시기이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유교나 불교 및 기독교 등 보편적 종교 전통들이 일반화되면서, 고도의 정치적 발전과 종교 공동체의 보편성을 위한 일관된 주장이 생겨서 결국 보편 종교의 정치참여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한편 잉거(Yinger)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⁷⁶

첫 번째는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때 종교는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는 종교를 보호해 주고, 다양한 혜택을 준다. 두 번째는 정치 권력에 의해 종교가 이용당하는 경우이다. 이때에 종교는 정치 제도의 목적을 위한 부속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세 번째는 정치 권력에 종교가 도전하는 경우이다. 이때에 종교는 정치 체계들과 모순된 요구와 규범을 강조하며, 정치는 경계선을 넘어선 종교 체계로 인하여 정치적 요구가 과소 평가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둘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²⁷⁷

²⁷⁴ 또 다른 형태로는 벨라(Robert N. Bella), 마두로(Otto Maduro)의 이론이 있는데 이는 논문의 흐름상 배제하고자 한다. 간략히 언급하자면 벨라는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융합, 분리, 창조적 긴장의 단계로 설명하였으며, 마두로는 국가는 자신의 지배를 확대, 심화, 공고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²⁷⁵ Joachim Wach, *Soci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²⁷⁶ J. Milton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London: Macmillan, 1970).

²⁷⁷ 예컨대 종교가 세속적인 규율을 지배하는 유형, 공공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의 입장이 불일치하여 긴장이 있는 유형, 국가가 종교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유형이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호모 폴리틱우스(homo politicus)인 동시에 호모 텔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정치성과 종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생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종교 행위인데, 이 둘 다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정치와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르다. 정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종교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이제 먼저 기독교와 정치에 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또는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 보자.

2.1 성서적 고찰

2.1.1 구약성서적 근거

기독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행동하신다는 것, 구원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²⁷⁸ 구약의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치 사업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과한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심판한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정치를 행하게 하려 했다. 아브라함 선택 이후 하나님의 정치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실현된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언급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조차도 공의와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정치는 히브리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통치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기독교 정치 참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1.2 신약성서적 근거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예수님의 강림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이다.²⁷⁹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와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정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과 교회에

²⁷⁸ 장헌일,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정치의 참여와 실제: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서적 고찰(1),” *크리스찬 투데이* (2008. 8. 21).

²⁷⁹ 누가복음 4:16-30,4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²⁸⁰한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막는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 참여의 긍정적 측면은 복음이 지닌 본질상 정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직접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그의 가르침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²⁸¹ 죄를 책망하고 불의에 대항하며 압박 당하고 소외 당한 자들을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태도²⁸²는 바른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노력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동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이 개혁을 맞보았고 노예 제도가 무너지고 독재자가 쫓겨나고 가난한 자와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고 문맹이 퇴치되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다.

반면에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근거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²⁸³라는 말씀을 제시하곤 한다. 이 말씀은 정치 참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상대성과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밝힌 것으로 정치의 자율성은 인정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²⁸⁴ 또한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²⁸⁵는 사도 바울의 말이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²⁸⁶는 베드로의 말도 다른 부분과 연관 지어 해석한다면,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최종 근거로 정치권력의 성격을 판단하고 그에 걸맞게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덕이 겸전한 사람들을 뽑아서 십부장, 백부장 회의²⁸⁷를 구성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여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제도를 설립하게 된 동기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조정하여 사랑이 있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함이었고, 사도행전 15 장에서도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한 것도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구원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을 정의롭게 조정하여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치

²⁸⁰ 마태복음 5:13-14.

²⁸¹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제사장 그룹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등 폭언과 저주를 퍼부은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²⁸²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우선 순위는 그/그녀가 옳으나 그러나(간음죄로 붙잡혀 온 여인), 혹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약자나 소외 당한 자냐 아니냐였다. 누가복음 10:25~37 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라.

²⁸³ 마가복음 12:17.

²⁸⁴ 채정민, “교회의 정치 참여의 한계,” *사목*, 제 252 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년 1 월호 참조.

²⁸⁵ 로마서 13:1-2.

²⁸⁶ 베드로전서 2:13-14

²⁸⁷ 출애굽기 18:13~27

참여의 목적은 성서에 입각하여 갈등을 정의롭게 조정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있다.

2.2 칼뱅의 개혁주의

프랑스 신학자인 존 칼뱅은 마틴 루터를 이어 종교 개혁을 완성한 인물이다. 그가 세운 개혁 교회는 국내 장로교의 뿌리이기도 하다. 칼뱅은 지나치게 의례화한 당시 가톨릭을 비판하고 성경에 의거한 '말씀의 신앙'을 강조하며 절제와 금욕에 바탕을 둔 실천적 사역을 펼쳤다. 칼뱅의 신학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정부론'을 이해해야 한다. 칼뱅은 영혼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정부와 현세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서의 정치적 정부를 구별하였다.²⁸⁸ 그런데 칼뱅에게 있어 두 정부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²⁸⁹. 하나님의 동일한 주권 행사가 교회와 국가의 두 통치로 나타나는 것이다.

칼뱅은 국가의 주요 임무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후원하는 것,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는 것, 교회법을 수호하는 것, 인간 사회에 필요한 생활을 조장하는 것, 국민의 관습을 시민의 정부에 맞게 만드는 것, 시민 상호간의 일치를 도모 증진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평정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²⁹⁰ 칼뱅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요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인 정부의 관원, 즉, 통치자에게 복종할 것을 주장했다.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심지어 광포한 전제 군주에게도 복종할 것을 주장한다.²⁹¹ 그렇다면 악한 정부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칼뱅은 관원의 역할을 제시한다. 시민의 관리들은 그 직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폭군적 부패에 항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²⁹² 칼뱅은 지배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는 것은 안 되며, 오직 주 안에서만 지배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만일 지배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무엇인가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⁹³ 이와 같이 칼뱅은 '두 정부론'을 통해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고 두 영역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칼뱅의 이론은 교회와 국가의 '창조적 협력과 긴장 관계'를 시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²⁸⁸ 기독교 강요 3.19.15.

²⁸⁹ 기독교 강요 4.20.5.

²⁹⁰ 기독교 강요 4.20.15.

²⁹¹ 기독교 강요 4.20.27.

²⁹² 기독교 강요 4.20.30-31.

²⁹³ 기독교 강요 4.20.31.

2.3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역사적 분석

2.3.1 개화기 초기

조선인들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찾게 된 시기는 1890년대 중반이었다. 일본의 조선 침투가 본격화되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영적, 심리적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선교 학교를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양과 협력하여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에 입교하였다.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관료와 지식인들이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교회를 찾게 된 것이다.²⁹⁴ 한국 개신교의 조선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협력적 태도²⁹⁵를 지니면서 침략을 더욱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적 태도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백성들은 교회의 만민 평등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반봉건 근대를 지향하게 되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1900년대 후반기에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구국의 방편으로 교회에 입교하여 민족 독립 수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²⁹⁶ 한국 개신교의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 활동을 들 수 있다. 독립 협회는 기독교계 인사들과 개화 지식인층이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중 계몽을 위한 정치 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도적 인사들은 기독교계 인사들이었고 회원들도 기독교인들과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독립 협회 운동은 한국 교회의 공동체의 개혁운동이었다. 또한, 1893년 독립 협회는 러시아의 침략 간섭 정책과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을 대중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민 공동회’라는 대중 대회를 개최 했는데, 1만여 명이 모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²⁹⁷

²⁹⁴ 조창연, "개신교 목회자들의 의식과 교회의 세속화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22-23.

²⁹⁵ 개화기 초기 한국 개신교는 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국 최초의 의사 선교사로 들어온 알렌(Allen)은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광혜원의 설립을 허락 받았다(조광삼, 1973). 1895년에는 무어(S.F. Moore)목사가 조정에 진정서를 보내 백성들의 법적 보호와 평민 신분의 확보를 청했는데, 이를 조정에서 받아들인 사건도 한국 개신교와 국가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²⁹⁶ 송건호, "일제하 민족과 기독교,"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편, *민주주의와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1), 87.

²⁹⁷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서울: 일조각, 1971), 82-86, 398-399.

개화기 초기에 한국 선교의 주류를 이룬 미국인 선교사들은 ‘근본주의²⁹⁸’라는 보수적 신앙이었다.²⁹⁹ 철저한 청교도적 복음주의를 지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성숙 이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특징으로서 보수적, 경건주의 신학 및 인간의 개인적 죄성을 강조하며, 이것과 대치되는 모든 신앙적 태도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배타성을 지니게 하였다.³⁰⁰

이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종말론적 구원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신앙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다분히 ‘묵시론적(Apocalyptic)’인 것이었다.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해야 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서 미래에 펼쳐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자세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마음이다. 심지어 예배, 잠, 운동, 음식, 시간 사용, 성경공부에 대한 자세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 연구였으며, 성경이 주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다.³⁰¹

반면 한국 개신교의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 운동³⁰²의 일환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측면이 강하였다.³⁰³ 따라서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 신앙 태도는 진보적인 기독교 지성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⁰⁴

한국 개신교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이 1907년의 ‘대 부흥 운동’이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구원보다는 개인의 구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는

²⁹⁸ 이들은 1910년에서 1915년 사이에 자신들의 교리를 담은 10여 권의 작은 책 『근본』을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불리게 된다. 한국에서도 창조과학으로 불리면서 기독교계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과학적 사실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근본주의자들의 성서관인 축자영감설의 특징 중 하나가 성서는 글자 하나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므로, 성서의 기록은 역사적,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성, *추락하는 한국교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7).

근본주의 신학은 20세기 초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근대적 시대정신에 대항한 자기 방어적 보수 신학이지만, 그 핵심엔 ‘성서 축자 영감설’에 있다. 타계적 개인 영혼 구원 신앙 강조, 영육 이원론, 초자연주의 계시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적 죽음의 강조, 임박한 우주적 종말 신앙 강조, 선악 이원론의 세계관, 타종교 및 타종교 문화 부정, 반지성주의적 신앙 강조, 기독교 교권적 교회주의의 이상화들이 그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독교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은 그들과 다른 견해나 타종교 공동체를 ‘타자화’하고 ‘타자’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자기 집단의 단합 ‘자기 정체성’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타자’의 ‘타자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악마화 한다는 점에 있다. 김정재, “종교 다원론과 한국 기독교의 혁신과제,” *변선헌 신학 새로 보기* (서울: 기독교서회, 2005), 87.

²⁹⁹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67.

³⁰⁰ 조창연, “개신교 목회자들의 의식과 교회의 세속화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22-23.

³⁰¹ 이장식, “기독교의 당면 과제,” *기독교사상*, 1959년 5월호, 62.

³⁰² 1919년 6월 30일 현재 감옥에 투옥된 사람의 수를 보면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유교나 불교 및 천도교인의 합계인 1,556명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한국 민족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45 참조.

³⁰³ 일제강점기 시절, 개신교는 민족주의적 성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912년에는 105인 사건이 있었고, 3.1 독립 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서명자 가운데 16인이 개신교인이었으며 3.1 운동의 독특한 특징인 비폭력은 개신교인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었다.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 저,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서울: 민족사, 1995), 252-253.

³⁰⁴ 조창연, 22-23.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의 관심을 영적이며 피안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강조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비정치화를 초래하여 정치와 현실의 문제로부터 떠나게 했다.³⁰⁵

1938년, 한국 교계가 질곡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조여오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부쩍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압으로 장로교 평북노회(1938년)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등도 뒤를 따랐다. 천주교는 이미 1936년 5월에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를 참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숭실학교, 숭의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들은 스스로 폐교(1938년 3월)까지 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와중에 주기철 목사와 한상동 목사 같은 분들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였다. 일제는 회유와 협박, 심지어 고문까지 하면서 이들의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이들의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³⁰⁶는 신사참배 거부죄로 목사직을 파면 당하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순교했다. 한상동 목사³⁰⁷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다가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며 핍박을 당했다. 결론적으로 일제 강점기 한국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탈 정치적 탈 사회적 태도를 강화하는 보수적 신앙 형태인 근본주의와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진보적 신앙 형태인 자유주의의 대립을 특징으로 한다.³⁰⁸

2.3.2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1945-1960년)

1960년대 이후, 당시 한국 사회는 전후 복구 문제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도시에는 빈민가가 급증했으며,

³⁰⁵ 민경배, *민족교회형성사론*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42.

³⁰⁶ 주기철 목사 (1897-1944) 한국 장로교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불응하다가 10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 사망하였다. 주기철 목사는 193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목사직에서 면직 당했다가 2006년에 목사직을 회복하였다. 이상규, “주기철의 신사참배 반대와 저항,” *기독교사상연구* 4호,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1997).

³⁰⁷ 한상동 목사 (1901-1976) 1924년 박창근의 전도로 신자가 되어 1927년 가문의 추방을 받고 고향을 떠나 진주 광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933년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 1937년 졸업했다. 1938년 부산 초량 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한 것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1946년 6월 진해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고신 대학교의 시작이었다.

³⁰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북 장로회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Arthur J. Brown)은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노골적인 친일 성향의 글을 유력한 선교 잡지에 발표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의 개혁을 싫어한다. 게으르고 잠이 많은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하러 가기를 싫어한다. 이제 한국은 이런 구습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러일 전쟁으로 한국에서 선교의 문은 거의 닫힐 뻔하였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위해서 싸웠던 일본의 승리로 한국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는 이토의 암살 소식을 접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사람들의 후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는 인도적이며 개화된 총독 이토였다. 그러나 1919년 10월 26일에 어느 광적인 한국인이 그를 살해했다.” 이렇게 친일로 바뀌어 가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모습에 실망한 한국 교인들이 상당수 교회를 떠났고 미국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에 의해서 격렬한 반 미국인 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성난 한국 사람들에 의해 선교사들이 길에서 매를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개일의 경우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를 중국의 종속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구한말의 중국적인 요소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공백을 일본에 의한 한국의 근대화를 기대했기에 그의 친일적인 태도는 이러한 논리의 결과이며 그것은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식민통치 본질을 깨닫고 바뀌었다. 조정경 “J. S. Gale의 한국인식과 在韓 활동에 관한 一研究,” *한성사학* 3 (1985), 62.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 기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³⁰⁹ 따라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를 하나의 연속적 단위를 보는 것은 타당한 관점이다. 미 군정의 수립으로 크리스마스, 주일의 공휴일화 등 각종 기독교적인 관례들이 한국에 이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자신들의 정책 수행을 위해 반공 사상이 투철한 한국의 보수 우익세력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다.³¹⁰ 그리고 미군정의 종교 정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 모두 반공주의적 입장을 지녔기 때문에 정치적 행태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수적 반공주의의 강화 현상이다.³¹¹ 소련이 점령한 북조선에서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피해 남으로 이주했다. 한국의 기독교는 북쪽 평양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남쪽 기독교인의 두 배였으며, 최초의 신학교도 서울이 아닌 평양 장로교회가 세웠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신사 참배에 저항하여 무수한 신자가 투옥, 옥사하였고, 남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그들은 안정된 터전이 없는 남한에서 자신은 허름한 움막에 살면서 자신의 집보다 먼저는 교회를 세웠으며, 정해진 직업도 없어 배고픈 중에도 절약하여 헌금하였다.



한국 교회의 반공 사상은 생존 동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1970 년대의 독재 정권 시기에 주류 교회들의 다수는 자유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보다는 생존을 보장해 주는 안정과 질서, 그리고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를 반공 정책에서 찾았다.³¹²

한국 개신교는 미군 정권하에서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했고 미 군정 당시 고위직 과반수가 기독교인으로 채워졌다. ‘장로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개신교 공화국이 되었고 상당수의 요직은 개신교 기독교인으로 채워졌다. 현재 보수 기독교인에게 한-미 동맹 강화는 금과옥조이고, 북한 선교는 절대선이다. 박천일 한기총 총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미국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다. 둘째, 한국전쟁 당시

³⁰⁹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 수립일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선서를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이것은 제 1 공화국 시기에 국가 의전은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행한다는 사실상의 기초가 되었다. 최종고, "제 1 공화국과 한국개신교회", *동방학지*, 1985.

³¹⁰ 해방 이후 미군정 최 고위직에 참여한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인구 대비 과대표되었으며, 자유당 정권 때 정부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의 종교적 배경에서도 개신교가 39.2%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인철, "한국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60",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148-150.

³¹¹ 강인철, "한국개신교 교회의 정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60",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242.

³¹² 김홍수, "한국 현대사 위기에 대한 기독교회들의 반응," *한국 기독교와 역사* 6 (1997/2), 306.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자유를 지켜준 혈맹이다. 셋째,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준 은혜로운 나라다.” 이런 정서에서 시국기도회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모습은 결코 엉뚱한 풍경이 아니다. 김진호 목사는 “기독교 보수주의 그룹의 정치세력화는 ‘미국’에 대한 선망의 신앙적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전쟁은 한국 기독교의 반공주의 열기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일제하 개신교는 서북 지방에 교세가 편중돼 있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해 개신교인의 3분의 1 정도가 월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공산당의 탄압을 직접 체험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보다 반공 의식이 강했다. 월남한 이들은 한국 교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당연히 교회의 반공주의도 강화됐다. 이제는 ‘원로’가 된 월남 목사들에게 반공은 의식이 아니라 체질이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숭미주의와 반공주의는 한국 교회의 속성으로 굳어졌다.³¹³

2.3.3 4.19 혁명과 박정희 정부 시기(1960-1972 년)

5.16 쿠데타가 발생하자 한국 개신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정 이양이 지연되자, 이것이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러나 교단이나 단체들과 달리 일부 교계 인사들은 쿠데타 중심 세력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지지하기도 했다.³¹⁴ 1965 년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에 대해 한국 개신교는 ‘한국의 항구적인 신식민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물론 일부 교계지도자들은 ‘교회 본연의 권위는 초연한 입장을 보유함에 있음’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개신교는 6.8 부정선거(1967)와 3 선 개헌(1969)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인식 하에 규탄 및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당시의 상황이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3 선 개헌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다.³¹⁵

그러나 보수 계열의 목사들은 3 선 개헌을 국민 스스로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촉구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중립과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

1960 년대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 참여가 시작된 시기로 보수와 진보의 구분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³¹⁶ 한국 개신교는 5.16 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교계의 성명서를 발표했고(1962 년), 1964 년에는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5 년에는 ‘나라를 위한 기독교 교직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로 교회들은 1967 년의 부정 선거를 규탄했으며,³¹⁷ 1969 년의 3 선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³¹³ 김진구, “한국 개신교와 친미반공 이데올로기,” *아웃사이더* 12 호, 83.

³¹⁴ 정관용, *1960.70 년대 정치 구조와 유신체제.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 (서울:한길사, 1995), 104.

³¹⁵ 김재준, *크리스찬으로서의 민족적 세계적 사명*, 김재준 전집 제 12 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1), 47

³¹⁶ 김명배, “한국 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원*, 2007, 46.

³¹⁷ *기독교사상*은 권두언에서 “이번 총선거는 정부를 위한 선거, 국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선거, 민주당이나 자유당, 혹은 세칭 혁신세력 정당을 위한 선거이기 전에 국민의 자유, 기회균등, 인권 신장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기독교사상*, 1967.7.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³¹⁸ 반면에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에서는 대체로 친정부적 태도를 보인다. 한일 회담과 관련하여 일부 교계의 목사들이 ‘비준 찬반의 민족적 혼선에서 기독교는 본의 자세를 지키자’, ‘한일 회담 비준에 대한 우리 교역자들의 견해’등을 통해 교회의 비준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한 3선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와 양심의 자유 선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종교의 중립을 천명하면서 실질적인 지지를 보였다.³¹⁹

이 시기에는 국가 조찬 기도회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5년 크리스천 국회의원 조찬 기도회에서 발단이 된 국가 조찬 기도회³²⁰는 1968년 5월 1일 ‘제 1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로 이어져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해서는 민족 복음화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사회 정의와 윤리적 책임 의식의 결여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³²¹ 보수주의 신학은 교회운영과 신학의 적용에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과 인간의 죄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에 현세적 삶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함축한다. 이러한 현실 도피적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현상을 유지시키는 현실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낳는다. 실제로 보수주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을 지지하기도 했다.³²² 정권의 비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기독교 신자를 늘릴 수 있다는 실리 계산이 숨겨지지 않은 채 드러났다. 폭압적인 유신통치가 시행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기독교인들 다수가 탄압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보수적 교회와 교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각종 대형 집회들이 정권의 비호 속에서 매우 빈번히 열렸고, 그와 같은 대형집회들은 기독교인들의 양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의 발언³²³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진보주의 신학의 초석을 제공한 이는 김재준이다. 김재준은 현실 참여 신학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보수주의 신앙은 타계적이고 내세 지향적이어서 이 세상의 역사적 현실을

³¹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조사연구자료 19" (서울:기사연, 1984), 40-60.

³¹⁹ 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서울:한울, 1995), 135~6.

³²⁰ 정권과 유착한 교회의 그와 같은 속내는 1973년 제 6회 조찬기도회에서 한 김준곤 목사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당초 정신혁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와 허무주의를 초극하는 새로운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될 줄 안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 신자화 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 민족 신자화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연합신보* (1973년 5월 6일).

³²¹ 조병호, *한국 기독교 청년 학생 운동 100년사 산책* (서울:땅에 쓰인 글씨, 2005), 87.

³²² 김용복, *해방 후 교회와 국가, 국가 권력과 기독교* (서울:민중사, 1982), 218.

³²³ 1974년 기독교 실업인회가 주최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김종필 총리는, 정권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교회증가 숫자는 2배, 교역자는 무려 6배의 증가를 보였다.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이 때 그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해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하며 정부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정당화했다. 한편의 교회와 정권은 그런 식으로 밀월 관계를 지속하였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그 밀월 관계의 상징이었다.

외면한다고 비판한다.³²⁴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서의 초월성과 복음의 절대성이 현실성과 세속을 떠나서는 주장될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아래 성서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복음의 현세적 맥락이 중시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실제로 김재준을 비롯한 진보주의 진영은 1960 년대에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그리하여 세속화에 적극적인 교파들은 진보적(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세속화를 거부하는 교파들은 보수적(복음주의적)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³²⁵

진보주의 정치 참여의 신학적 근거로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 교회 협의회(WCC)의 선교 방침으로 교회란 세상 속에서 구원 사업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상을 위한 존재하는 자기 인식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역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³²⁶

이후 유신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³²⁷ 지나 문민 정부인 김영삼 정권,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개신교의 국가 권력에 대한 인식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인식이 바뀌어, 진보 진영의 경우 좀 더 민주적이며 민족적인 정권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두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을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대중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한다. 노무현 정부 또한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한 정권이며, 특히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보수교회는 노무현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필사적인 저항을 하였다.³²⁸ 반공 의식과 친미 의식을 지닌 보수 진영³²⁹은 “미국의 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 한다”, “예수 잘 믿는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반미로 우방인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다”, “사탄은 한미 동맹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탄은 반미를 강조 한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제 1 의 적이다. 친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자”는 주장들

³²⁴ 김재준, *크리스찬으로서의 민족적 세계적인 사명*, 김재준 전집 제 12 권(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1), 472.

³²⁵ 김성건, "한국 개신교 교단조직 연구-장로교를 중심으로, 종교와 이데올로기" (서울:민영사, 1991), 206-238.

³²⁶ 현영학, "신의 역사 창조의 행위", *기독교사상* 1975년 4월호(통권 제 203호), 338.

³²⁷ 전태일 사건(1970)이후, 이 시기에 대변할 만한 사건들로는 광주 민주화 사태를 꼽을 수 있겠다.

³²⁸ <http://www.newdaily.co.kr/threads/free/view/47>

³²⁹ 지난해 6월,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함께 붉게 물들었던 곳, 그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깔려 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수백, 수천 개의 촛불이 넘실거렸던 그곳, 그 시청 앞 광장이 일부 기독교인들의 “미국 사랑” 열기로 가득 메워졌다. 개신교 보수 진영은 시청 앞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이 기도회에는 매번 10만 여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몰려나와 “미군 철수 반대”, “우리는 미국을 사랑한다”는 구호를 연발하며 성조기를 들고 미국 국가를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는 진풍경을 보여 주었다. 김진구, “한국 개신교와 친미반공 이데올로기,” *아웃사이더* 12호, *기독교사상* 47(2003/6), 88-89

한다.³³⁰ 우리는 흔히 장로 직분을 가졌던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들을 '기독교 정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 한국 현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정치는 기독교와 긴밀한 유착 관계를 맺어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모두가 사실상 기독교 정권이였다.

밖에서 볼 때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박정희 정권 18 년도 보수기독교와 정권의 유착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미국의 승인에 목말라 있던 박정희의 사절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분위기를 밝혀 놓은 것이 바로 한경직 목사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였다. 영구독재의 문을 연 1969년 3선 개헌 역시 조용기, 김준곤, 김장환 등 242 명의 목사들이 지지 성명으로 힘을 실어주었다.³³¹ 그 대가로 이들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회들은 살벌했던 그 시절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특혜들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1970년대의 유신 시대는 한국 보수 교회들이 국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암흑기였다. 보수 교회들이 삼선 개헌과 유신으로 대표되는 일인 권력의 절대화와 영구화 시도에 대해 무관심과 침묵, 혹은 동조와 지지를 일관하고 있을 때³³² 진보 교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맹렬하고도 끈질긴 투쟁을 감행했다.³³³ 1970년대 이후

³³⁰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보가 좋고 보수가 나쁜 게 아니며, 보수만 옳고 진보는 그른 것도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믿음과 사랑의 길에 충실한지가 문제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다.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가, 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사회를 바르게 하는 일을 잘 하는가? 기독교의 진리를 누가 잘 드러내는가가 기독교인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국 교회의 연합운동과 선교 활동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 사랑의 길과 원칙 위에서 추진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김지방, *정치 교회* (서울:교양인, 2007), 325-34.

³³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조사연구자료 19" (서울:기사연, 1984), 40-60. 윤보선, 함석헌, 김재준, 이병린, 장준하, 김관석 등 진보적 기독교 지도자들은 김대중, 김영삼과 함께 삼선 개헌 반대에 참여했다.

³³² 보수 진영 쪽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던 자로는 박조준 목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영락교회 2대 담임목사였던 박조준 목사는 군사정권 시절 권력과 불화했다.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박 목사에게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요청했지만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할 것을 암암리에 강요하기도 했지만 박 목사는 거절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 정권을 못마땅해했다. 자연스럽게 그의 설교에서는 대사회적 비판이 이어졌다. "남산에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회고하는 박조준 목사. 40여년 목회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

7월 4일 CBS '크리스천 NOW'에 출연한 박 목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두환 씨는 머리가 좀 나빠. 조금이라도 자기 칭찬하면 달갑게 듣는데...독재하는 사람이 강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약해요. 조금만 바른 소리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나 어떡해야 하는 거냐고 해요.", "미안한데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보지도 않아요. 인간으로도 보지 않아요. 역적이야, 재산이 29만 원? 벼락 맞을 이야기지." CBS, 크리스천 NOW, 2013.7.5

³³³ 이에 관련된 신학자로 서남동(1918-1984)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교육가. 한국 신학 대학과 연세 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기독교선교연구원을 운영하였다. 독자적인 신학노선을 구축하면서 제3세계 신학의 모델로 널리 알려진 '민중 신학'을 창출하였다. '민중 신학'을 창출하여 한국은 물론, 제3세계 신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70년대에 들어 국내 신학자들과 '한국 기독교인 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참여로 적극적 반독재 투쟁 대열에 섰다. 1975년 6월 유신 독재 하에서 야기된 이른바 '학원사태'로 해직되고, 이듬해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에 서명하여 함석헌, 김대중 등과 함께 긴급 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 시련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동료 교수인 안병무, 서광선, 주재용 등과 '민중 신학'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제3세계 신학의 모델로 널리 소개되어 한국의 수출신학(輸出神學) 제1호가 되었다. 서남동이 기독교 사상 1975년 2월호에 게재한 "예수, 교회사, 한국 교회"에 대해 김형효가 문학사상 1975년 4월호에서 반론을 제기하였고, 그것에 대해 서남동이 1975년 4월호에 기고한 "민중의 신학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처음 "민중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서남동, *민중 신학의 탐구* (서울:한길사, 1990), 29.

한국사회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민주화에 도달하기까지는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³³⁴ 이 부분은 한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추세는 12·12 쿠데타와 광주 5·18 항쟁 무력 진압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도 이어졌다.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한경직, 김준곤, 정진경 등 당대 유명 목사들은 전두환 국보위 상임 위원장을 칭송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 힘을 실어 주었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도 이들을 종교 원로로 떠받들며 한껏 힘을 실어주었다.³³⁵ 또한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종교적 결집력이 강한 개신교의 성향을 이용하여 초대 이승만 정권 이후 기독교 정권 만들기에 맞들인 이후 문민 시대에는 김영삼과 이명박에 이어지는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직접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 기독교 정당 만들기를 계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1997년에는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목사가 바른 정치 연합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한국 기독교당(조용기, 김기수, 김준곤, 박영률, 최수한 등)을,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전광훈 목사 등이 기독교사랑실천당을 창당했으며, 다시 19대 총선에서도 대형 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 국회 입성을 노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또 이러한 직접적 정치 운동에 더해 보수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는 김진홍³³⁶, 서경석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의 압제하에서 독립 운동에 이어 민족 해방에 기여를 하였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법치 국가 제도를 전해 주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소개하여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무질서, 윤리적 퇴폐, 부정과 부패,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 등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국가 사회적 구원의 역할과 책임은 소홀히 한 측면도 적잖게 있다. 최근에 들어 특정 기독교인들을 향해 중북이니 좌파니 하는 말들이 마치 저격수의 총알처럼 쏘아대고 있다. 한 국가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치에 종교가 개입할 수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뿐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시국 선언을 하면

또 다른 신학자로 현영학은 한국의 교육자, 기독교 사회운동가, 민중 신학자, 민속학자이며 반유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니버, D. 본혜퍼 등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안병무, 서남동 등과 함께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개척하였으며, 군정과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反유신, 反박정희, 反전두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³³⁴ 이수인, "한국의 국가, 시민 사회와 개신교의 정치 사회적 태도 변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188-207.

³³⁵ 김명혁, *시대의 방향을 제시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성명서 모음집*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CLC, 1998).

³³⁶ 두레 교회의 담임이었고 뉴라이트의 수장 일을 보았던 김진홍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주사파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이만열, "나라가 그 꼴 된 게 다 일제 탓이라" *한겨레신문* 2010.8.19.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국 선언조차 할 수 없게 한다면 그런 세력이 바로 종북이요 그런 나라가 빨갱이 나라이다.

3. 결론

기독교는 2000 년에 걸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종교이다. 정치와 종교에 대한 무수한 신학적 논의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예언자적 기능을 바로 잡아온 전통을 형성해 왔으며, 간혹 지나간 오류들에 대한 비판과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개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 신도수를 표밭으로 여기며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정치적 발언을 거듭할 경우,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 우리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인 이해 관계에 밀착된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교회의 본래의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과 복음적인 사명은 가려지게 된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소수 몇몇 성직자들의 신학적 판단 능력의 오류로 인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시대 착오적인 후진 집단으로 매도되고 만다.

반대로 일부 성직자들이 품고 있는 현 정부의 성향에 대한 분노가 지나쳐 교회의 강단을 정치적 발언의 자리로 바꾸는 행위는 신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죄의 현실은 기독교인, 비 기독교인을 떠나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의 영역은 보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영적 권위를 가진 이들이 정치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권위와 순수성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의 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선하시니 세상은 선하게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방관자가 된다면 그 또한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크리스천은 국가나 사회 또는 정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상 낙원의 유토피아를 믿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인간의 유한성, 불완전성 그리고 원죄를 인식하고 있다(Thomas Nipperdey-독일 역사학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정치와 정치적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와 정치적 책임감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다수의 조직 기구나 권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나 자연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신학적 고민을 통해 부패한 정치권과 부당한 국가 권력을 향해 쓴 소리를 하는 소금의 역할이다.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이나 강단을 지키는 자들은 그가 가진 권위를 이용하여 특정한 정치인을 높이는 일은 옳지 않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침묵하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뿐이며, 강단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그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학자 몰트만³³⁷의 글을 인용하며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소박하며 정치적 자의식이 거의 없는 신학이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신학(a-politische Theologie)이란 지상에도, 천상에도 없다. 자기들의 정치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사회에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있다. 그들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고, 베일을 씌우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임을 자처한다. 이에 반해 정치적 자의식을 가지고 현존하는 기독교 그룹들도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교회(a-politische Kirche)란 역사에도, 하나님의 왕국에도 없다."³³⁸

³³⁷ 1926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영국에서 포로가 되어 처음 신학을 접했다. 1948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195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브레멘에서 목회를 했다. 1958년부터 1963년까지 부퍼탈 교회 대학교(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1963년부터 1967년까지 본 대학교, 1967년부터 1994년까지 튀빙겐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다. 출처:Wikipedia.

³³⁸ J. 몰트만, *정치신학 정치윤리*, 조성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14.